

발간등록번호
2023-KIHF-251

2023년 가족센터 인지도 조사

2023년 가족센터 인지도 조사 연구

수 행 기 관 :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 손서희(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공동 연구자 : 김미영(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 연구개발팀)

박수선(서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 구 지 원 : 정여진, 강주현(숙명여자대학교 가족학과)

수 행 지 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본 보고서는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연구요약

□ 연구목적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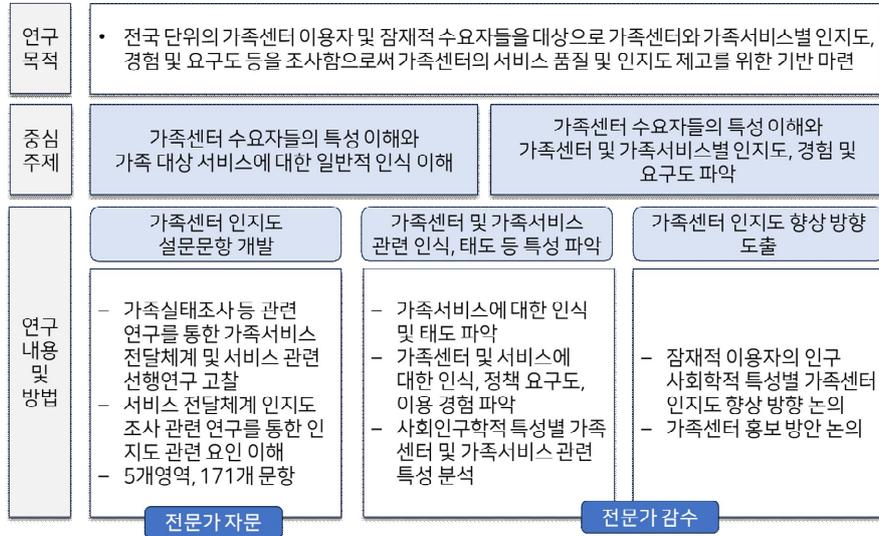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다문화가족, 1인가구 증가 등의 가족 다양성 증가 및 가족 기능 변화에 따라 가족센터의 역할 확대가 더욱 필요한 시점임.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센터의 역할 확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나, 가족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은 실정임
- 일부 가족 관련 조사에서 가족센터 인지도를 파악하고 있으나, 가족센터 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서비스에 대한 태도 및 인식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 가족센터 인지도 조사는 가족센터에 대한 인지도뿐만 아니라 가족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특성이 함께 파악될 때, 가족센터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9세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가족센터 인지도와 함께 가족센터 및 가족 대상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태도, 경험 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족센터 인지도 설문문항 개발
 - 가족센터 및 가족서비스 관련 인식, 태도 등의 특성 파악
 - 가족센터 인지도 향상 방향 도출
-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 전국 20세 이상 - 69세 이하 성인
표집방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표집
표본 수	• 설문조사 참여자 1,500명
조사 방법	• 패널을 이용한 모바일 또는 웹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 기간	• 2023년 11월 7일 ~ 11월 16일
조사업체	• ㈜마크로밀 엠브레인
분석 방법	•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차이분석

□ 연구모형



□ 가족센터 개요 및 인지도 연구 동향

- 가족의 변화에 따라 지역의 가족센터에서는 가족다양성을 고려한 가족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다양한 가족서비스 제공과 함께 가족서비스 확산을 위해서는 가족센터 및 가족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실제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가족서비스 이용은 가족의 스트레스 감소 혹은 가족건강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족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함
- 가족서비스의 접근성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족센터와 가족서비스 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가족센터 및 가족서비스 인지 및 이용과 관련될 수 있는 그 밖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가 필요함
-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지도란 지역사회 내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의미함. 가족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가치있는 자원으로 인식될 때, 지역 주민의 프로그램 참여 의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부정적으로 인식될 경우 참여 의향이 낮아질 수 있음. 따라서 가족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이용 장애 혹은 촉진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가족센터 및 가족서비스 인지도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잠재적 이용자의 개인 및 가족관계 특성, 가족생활의 어려움, 가족서비스에 대한 태도 등에 따른 가족센터 및 가족서비스 인지도와 이용 의향 차이 등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함

□ 가족센터 인지도 조사 결과

○ 인구사회학적 특성

- 조사응답자 1,500명 중 여성 49%, 남성 51%가 조사에 참여하였음. 연령은 50대가 23.2%로 가장 많았고, 40대 21.5%, 60대 20.7%, 30대 17.9%, 20대 16.7% 순이었음
- 최종학력은 대학교(4년제)가 54.3%로 가장 많았고, 이들의 가구소득 수준은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29.0%로 가장 많았음
- 결혼 지위는 기혼이 60.4%로 가장 많았고, 조사응답자의 58.4%가 자녀가 있었음
- 조사응답자의 18.9%가 1인가구였으며, 거주 지역 유형은 대도시가 53.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중소도시 42.8%, 농어촌 3.7% 순으로 나타났음

○ 개인 및 가족생활 특성

- 조사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가족 중요도, 가족생활 행복도, 기혼자들의 배우자와의 관계 행복도, 가족탄력성 등은 ‘보통’보다 높은 수준임
- 조사응답자가 경험하고 있는 생활상의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와 자녀 돌봄 및 교육의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가족관계 어려움 대처방법

- 부부갈등, 부모-자녀 관계 갈등 등과 같은 가족관계에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주요 언론 매체(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포털사이트, SNS, 동영상, 책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그다음은 ‘어렵지만 그냥 참고 지낸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받는다’와 ‘이웃이나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받는다’,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는다’, ‘비용을 지불하면서 민간서비스(사설 상담센터 등)를 활용한다’ 순임

○ 가족생활 어려움 대처방법

- 자녀 및 노부모 돌봄, 가사노동 등의 가족생활에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어렵지만 그냥 참고 지낸다’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주요 언론 매체(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포털사이트, SNS, 동영상, 책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받는다’, ‘이웃이나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받는다’가,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는다’, ‘비용을 지불하면서 민간서비스(돌봄 시설 등)를 활용한다’ 순임

- 가족 어려움 해결에 대한 지역사회나 공공기관 지원 필요성
 - 가족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지역사회나 공공기관 지원 필요성 인식은 신체·건강 문제에 대해 공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경제적 문제와 정신건강 문제, 자녀돌봄 및 교육의 어려움, 자녀 이외의 가족 돌봄 어려움,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부모 역할의 어려움, 가사의 어려움, 부부관계 어려움 순으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였음

- 가족 서비스 이용 의향
 -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의 자녀돌봄지원 이용 의향이 가장 높았고, 1인가구의 1인가구 지원 서비스 이용 의향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그다음은 노부모 부양 가족 지원,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 상담, 가족생활·문화프로그램, 가족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순이었고, 남성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아버지교육 등의 남성대상 교육은 이용 의향이 가장 낮았음

- 지역사회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인지도
 - 가족센터는 64.3%가 알고 있었고(이름만 들어보았다+ 서비스를 알고 있다+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64.6%로 가족센터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알고 있는 비율은 94.3%로 가족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비교해 월등히 높았음

- 가족서비스 및 정책 관련 정보 습득 용이성
 - 가족서비스나 정책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의 용이성을 질문한 결과 ‘보통이다’가 50.5%로 가장 높았고 ‘어렵다’ 33.5%, ‘쉬웠다’ 16% 순으로 나타남

- 가족서비스 및 정책정보 현재 습득방법 및 선호방법
 - 조사응답자들의 현재 이용방법과 선호방법 1순위와 2순위의 합을 비교한 결과,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방법인 포털사이트 등의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 습득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현재에는 TV나 라디오 등의 방송을 통한 정보 습득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던 것과 달리, SNS를 통한 가족서비스 및 정책 정보 습득을 선호하였음

- 가족서비스 이용 장애요인 인식
 - 가족서비스 이용의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결과, ‘가족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의 동의 수준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가족의 사생활 노출이 걱정되기 때문에’로 나타남

○ 가족센터 연상 서비스 대상과 내용

- 가족센터라는 기관 명칭을 들었을 때 연상되는 서비스 대상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이 71.1%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서비스 내용은 가족상담,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맞춤형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자녀돌봄지원 순으로 나타남

○ 가족센터 관련 경험

- 조사응답자의 5.3%만이 가족센터 이용 경험이 있었고, 전체 응답자의 61.8%가 향후 가족센터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족센터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31.4%만이 센터 홍보물을 경험하였고 그들이 가족센터를 알게 된 경로는 ‘라디오, TV 등 방송을 통해’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공공기관(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등)를 통해’, ‘친구, 친척, 동료 등 지인을 통해’, ‘가족센터 현판,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책자 등 오프라인 홍보물을 통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가족서비스 인지도와 요구도

- 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인지 정도가 가장 높았고,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긴급위기지원 및 생활도움, 가족상담 순으로 나타남. 반면 부부교육 인지도는 가장 낮았고, 아버지 교육, (예비)부모교육, 1인가구 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인지도도 낮게 나타남
- 가족서비스 요구도는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남. 4점 이상 요구도를 보인 서비스를 정리하면, 긴급위기지원 및 생활도움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상담 순으로 나타남

○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참여 희망 기관과 기관별 선호 이유

- 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 부부/커플교육)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 선호도는 공공기관 선호도가 민간기관보다 높게 나타남. 가족상담 역시 공공기관 선호도가 민간기관보다 높았음
- 두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 선호 이유는 비용이 저렴할 것 같아서, 찾아가기가 쉬울 것 같아서, 사전에 기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순으로 나타남. 민간기관의 선호 이유는 가족교육의 경우 원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비스 내용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서비스를 받은 후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순으로 나타났고, 가족상담은 서비스 내용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원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비스를 받은 후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순으로 나타남

○ 가족의 어려움 유형별 대처행동의 차이

- 조사응답자들이 경험하는 개인 및 가족생활의 어려움을 낮음, 중간, 높음의 세 수준으로 구분하여 대처행동 차이를 살펴본 결과, 경제적문제, 정신건강문제, 신체건강문제, 가사의 어려움,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자녀돌봄 및 교육의 어려움, 자녀 외 가족 돌봄의 어려움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공통적으로 ‘어렵지만 참고 지낸다’의 평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조사응답자들이 경험하는 전반적인 가족관계, 부부관계, 부모역할의 어려움도 세 수준으로 구분하여 대처행동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영역의 어려움에서 어려움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공통적으로 ‘어렵지만 참고 지낸다’의 평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가족관계 어려움 수준별 가족서비스 이용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 가족관계, 부부관계, 부모역할의 어려움 수준을 세 수준으로 구분하여 가족서비스 이용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세 영역에서 어려움이 낮은 집단이 공통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가족서비스를 받을 만큼 가족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가족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어려움이 높은 집단은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는데, 가족관계 어려움이 높은 집단은 ‘가족서비스를 이용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시설의 위치가 불편하기 때문에’, ‘가족에게 필요한 가족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가족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이 유의하게 높았음. 부부관계 어려움의 경우 ‘가족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족의 사생활 노출이 걱정되기 때문에’, ‘가족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부담 때문에’와 ‘가족서비스를 이용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부부관계 어려움이 높은 집단이 가족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부모역할 어려움은 ‘가족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부담 때문에’와 ‘가족에게 필요한 가족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 가족 특성별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의 지원 필요성

- 가족생활 행복도 수준이 낮은 집단이 중간 및 높은 집단과 비교해 ‘경제적 문제’와 ‘정신건강 문제’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높았고, 가족탄력성이 낮은 집단이 다른 집단과 비교해 ‘정신건강 문제’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높았음

○ 가족 특성별 가족서비스 이용 의향

- 가족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통과 높은 집단이 부부교육 이용 의향이 유의하게 높았고, 가족생활·문화프로그램 이용 의향은 가족중요성 인식 수준이 높은 집단의 참여 의향이 가장 높았음. 그리고 가족생활 행복도의 경우, 가족생활·문화프로그램에서 가족행복도 수준이 높은 집단이 유의하게 이용 의향이 높았음. 가족탄력성의 경우, 부부교육과 부모교육의 경우 가족탄력성이 높은 집단과 중간 집단이 유의하게 참여 의향이 높았고 아버지교육 등 남성대상 교육과 가족생활·문화프로그램의 경우 가족탄력성 수준이 높은 집단이 유의하게 참여 의향이 높았음

○ 가족 특성별 가족센터 인지도

- 가족센터 인지도는 가족행복도 수준이 높은 집단과 중간 집단의 인지도가 높았고 가족탄력성이 높은 집단과 중간 집단의 인지도가 유의하게 높았음

○ 가족 특성별 가족서비스 요구도

- 가족중요성 인식 수준별 가족서비스 요구도를 살펴보면, 부부교육과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가족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집단과 중간 집단의 요구도가 낮은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음. 부모교육, 아버지교육, 가족상담, 가족생활·문화프로그램, 긴급위기지원 및 생활 도움 등, 아이돌봄지원의 경우 가족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집단의 요구도가 가장 높았음
- 가족생활 행복도 수준별 서비스 요구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교육과 가족생활·문화프로그램의 경우 가족생활 행복도 수준이 높은 집단의 요구도가 다른 집단과 비교해 유의하게 높았음. 반면 1인가구지원과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가족생활 행복도가 가장 낮은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았음
- 가족탄력성 수준별 서비스 요구도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교육과 아버지교육 요구도의 경우 가족탄력성 수준이 높은 집단의 요구도가 유의하게 높았음. 가족상담과 가족생활·문화프로그램의 경우 가족탄력성이 높은 집단과 중간 수준 집단의 요구도가 낮은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음

□ 결론 및 제언

○ 지역사회 가족지원 체계에 대한 인식 제고

- 가족센터가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가족센터에 대한 홍보 예산 확대 및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족센터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임

○ 가족서비스의 효과성 홍보 강화

-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처전략 중 하나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가족관계 지원 서비스가 가족의 건강성 및 가족관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 전략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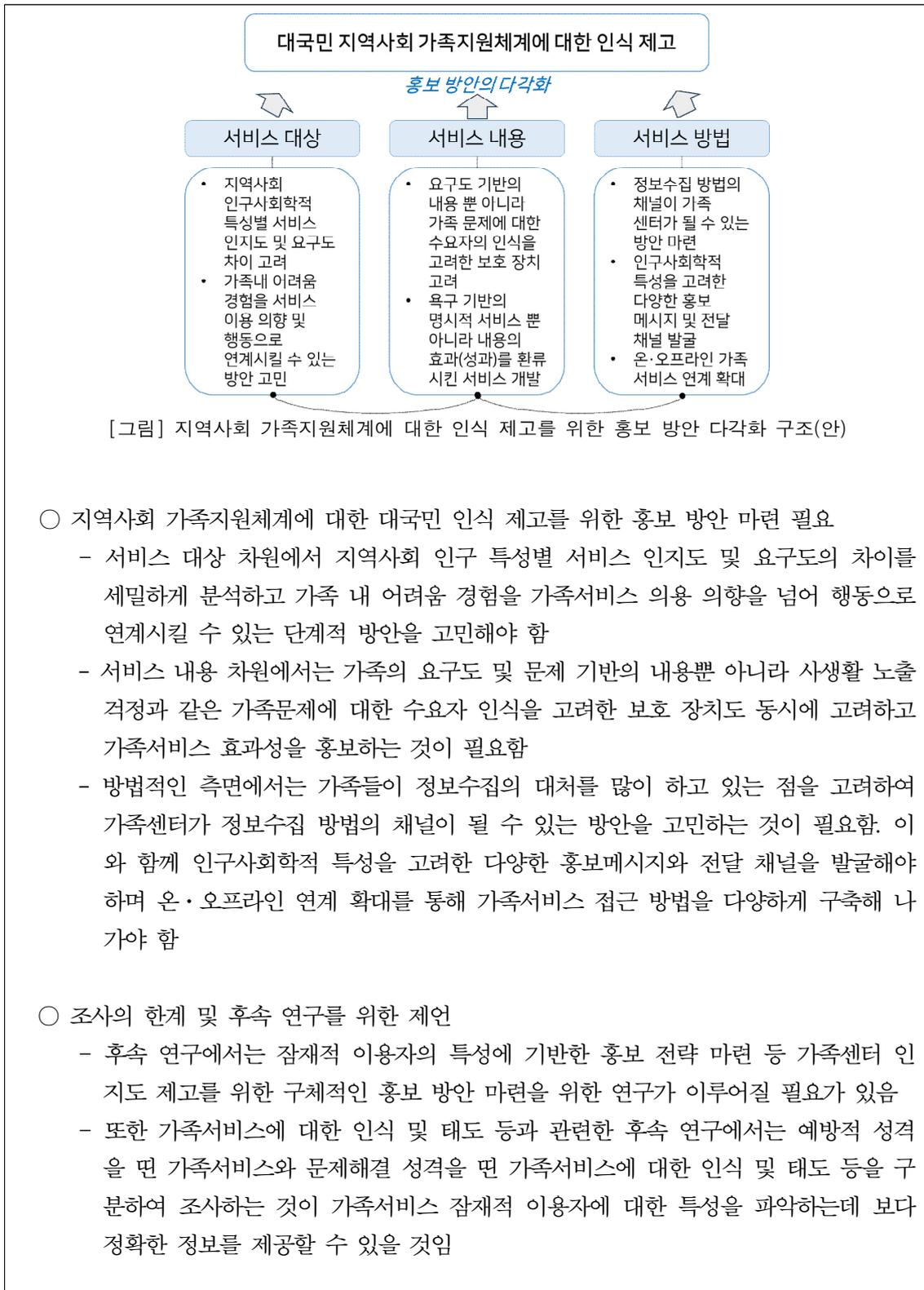
- 전반적인 가족센터에 대한 홍보와 함께 대상별 특화된 홍보 메시지 개발 및 전달 매체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가족센터가 가족갈등이나 가족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족이 이용하는 기관으로서의 이미지뿐 아니라, 일상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움을 얻는 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나 서울시 가족학교와 같이 가족센터 서비스만의 고유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도 가족서비스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온·오프라인 가족서비스 연계 확대

- 가족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직접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가족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 관련 정보를 찾아본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가족 문제 대처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가족센터 홈페이지 등에 제공함으로써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온라인 콘텐츠 제공 확대는 가족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고위험 가족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필요

- 가족관계 어려움이 높은 집단일수록 개인적 혹은 소극적 대처 방안을 활용하고 가족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이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아웃리치 및 관계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가족서비스가 필요한 가족을 발굴하고 가족서비스 참여로 연계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와 함께 가족가치 확산 및 가족서비스를 통한 가족건강성 향상은 가족서비스 참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가족서비스 이용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1) 연구내용	3
2) 연구방법	3
제2장. 가족센터 개요 및 인지도 연구 동향	7
1. 가족센터 개요	7
2. 가족센터 인지도 연구 동향	8
제3장. 가족센터 인지도 조사 결과	14
1. 조사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4
1) 조사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4
2) 조사응답자의 개인 및 가족생활 특성	15
2. 가족 대상 서비스에 대한 인식	21
1) 가족관계 어려움 대처방법	21
2) 가족생활 어려움 대처방법	25
3) 가족 어려움 해결에 대한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 지원 필요성	28
4) 가족서비스 이용 의향	35
5) 지역사회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인지도	41
6) 가족서비스 및 정책 관련 정보 습득 용이성	43
7) 가족서비스 및 정책정보 습득 방법	45
8) 가족서비스 및 정책정보 습득 선호방법	46
9) 가족서비스 이용 장애요인 인식	47
10) 소결	54

3. 가족센터 및 가족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정책요구도	54
1) 가족센터 연상 서비스 대상	55
2) 가족센터 연상 서비스 내용	55
3) 가족센터 이용 경험	56
4) 지난 1년간 가족센터 이용 횟수	57
5) 향후 가족센터 이용의향	57
6) 가족센터 관련 홍보물 경험 여부	59
7) 가족센터를 알게 된 경로	59
8) 가족서비스 인지도	60
9) 가족서비스별 이용 경험 여부	67
10) 가족서비스 요구도	68
11) 가족서비스별 이용 경험 기관	73
12) 가족생활교육 참여 희망 기관 및 기관별 선호이유	74
13) 가족상담 참여 희망 기관 및 기관별 선호이유	76
14) 소결	79
4. 가족 특성별 대처행동, 가족센터 및 서비스 인지도와 요구도 차이	79
1) 가족의 어려움 유형별 대처행동의 차이	80
2) 가족관계 어려움 수준별 가족서비스 이용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84
3) 가족 특성별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의 지원 필요성	87
4) 가족 특성별 가족서비스 이용 의향	89
5) 가족 특성별 가족센터 인지도	91
6) 가족 특성별 가족서비스 요구도	91
7) 소결	94
제4장. 결론 및 제언	95
1. 요약	95
2. 주요 논의	96

1) 가족서비스 및 전달체계에 대한 인식 전환	96
2) 가족서비스와 정책 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	97
3) 가족센터 인지도 및 이용 경험과 이용 의향의 차이 해소	98
4) 다양한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가족서비스 제공	98
3. 정책적 시사점	99
1) 지역사회 가족지원 체계에 대한 인식 제고	99
2) 가족서비스의 효과성 홍보 강화	99
3)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 전략 마련	100
4) 온·오프라인 가족서비스 연계 확대	101
5) 고위험 가족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필요	102
4. 조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103
참고문헌	105
부록: 설문지	107

표 목 차

<표 1-1> 설문지 개발 과정	4
<표 1-2> 설문조사 개요	6
<표 2-1> 가족센터 영역별 사업내용	8
<표 3-1> 조사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5
<표 3-2> 가족 중요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	16
<표 3-3> 가족생활 행복도	16
<표 3-4> 배우자와의 관계 행복도	17
<표 3-5> 평소 생활상의 어려움	18
<표 3-6> 가족탄력성 수준	20
<표 3-7> 가족관계 어려움 대처방법의 일반적 경향	22
<표 3-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관계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법	24
<표 3-9> 가족생활 어려움 대처방법의 일반적 경향	26
<표 3-10>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생활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법	27
<표 3-11> 가족 어려움 해결에 대한 지역사회나 공공기관 지원 필요성의 일반적 경향	30
<표 3-1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 어려움 해결에 대한 지역사회나 공공기관 지원 필요성 인식	33
<표 3-13> 가족서비스 이용 의향의 일반적 경향	36
<표 3-1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서비스 이용 의향	39
<표 3-15> 지역사회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인지도 일반적 경향	41
<표 3-1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인지도	42
<표 3-17> 가족서비스 및 정책 관련 정보 습득 용이성	43
<표 3-1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서비스 및 정책 관련 정보 습득 용이성	44
<표 3-19> 가족서비스 및 정책정보 습득 방법	45
<표 3-20> 가족서비스 및 정책정보 습득 선호방법	46
<표 3-21> 가족서비스 이용 장애요인 인식의 일반적 경향	49

<표 3-2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서비스 이용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52
<표 3-23> 가족센터 연상 서비스 대상	55
<표 3-24> 가족센터 연상 서비스 내용	56
<표 3-25> 가족센터 이용 경험	56
<표 3-26> 지난 1년간 가족센터 이용 횟수	57
<표 3-27> 향후 가족센터 이용의향	57
<표 3-2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센터 이용 의향	58
<표 3-29> 가족센터 관련 홍보물 경험 여부	59
<표 3-30> 가족센터를 알게 된 경로	60
<표 3-31> 가족서비스별 인지도의 일반적 경향	61
<표 3-3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서비스 인지도 (1)	63
<표 3-3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서비스 인지도 (2)	65
<표 3-34> 지역사회 가족서비스별 이용 경험 여부	67
<표 3-35> 가족서비스별 요구도	68
<표 3-3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서비스 요구도	71
<표 3-37> (서비스별)가족서비스 이용 경험 기관	73
<표 3-38> 가족생활교육 제공 희망 기관	75
<표 3-39> 가족생활교육 제공 희망 기관별 선호이유	75
<표 3-40> 가족상담 제공 희망 기관	77
<표 3-41> 가족상담 제공 희망 기관별 선호이유	77
<표 3-42> 개인 및 가족생활의 어려움별 대처행동 차이 분석	81
<표 3-43> 가족관계의 어려움별 대처행동 차이 분석	83
<표 3-44> 가족관계 어려움 수준별 가족서비스 이용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86
<표 3-45> 가족 특성별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 지원 필요성	88
<표 3-46> 가족 특성별 가족서비스 이용 의향	90
<표 3-47> 가족 특성별 가족센터 인지도 차이	91
<표 3-48> 가족 특성별 가족서비스 요구도 차이	93

그 립 목 차

[그림 1-1] 연구모형	6
[그림 3-1] 평소 생활상의 어려움	19
[그림 3-2] 가족탄력성 수준	20
[그림 3-3] 가족관계 어려움 대처방법	22
[그림 3-4] 가족생활 어려움 대처방법	26
[그림 3-5] 가족 어려움 해결에 대한 지역사회나 공공기관 지원 필요성	31
[그림 3-6] 가족서비스 이용 의향	37
[그림 3-7]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인지도	42
[그림 3-8] 가족서비스 및 정책 관련 정보 습득 용이성	44
[그림 3-9] 가족서비스 및 정책 관련 정보 습득 방법	46
[그림 3-10] 가족서비스 및 정책 관련 정보 습득 선호방법	47
[그림 3-11] 가족서비스 및 정책 관련 정보 습득 현재 이용방법과 선호방법 비교	47
[그림 3-12] 가족서비스 이용 장애요인 인식	50
[그림 3-13] 가족센터 이용 경험	56
[그림 3-14] 가족센터 이용 의향	57
[그림 3-15] 가족센터 관련 홍보물 경험 여부	59
[그림 3-16] 가족센터를 알게 된 경로	60
[그림 3-17] 가족서비스별 인지도	61
[그림 3-18] 가족서비스 요구도	69
[그림 3-19] 가족생활교육 제공 희망기관	76
[그림 3-20] 가족생활교육 제공 희망 기관별 선호이유	76
[그림 3-21] 가족상담 제공 희망기관	78
[그림 3-22] 가족상담 제공 희망 기관별 선호이유	78
[그림 4-1] 가족생활의 어려움과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 지원 필요성	97
[그림 4-2] 가족서비스 정보습득 용이성 및 가족센터 홍보물 경험 여부	97

[그림 4-3] 가족센터 인지도, 이용경험, 이용의향 비교 98

[그림 4-4] 지역사회 가족지원체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방안 다각화 구조(안) · 103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족센터는 2004년 시범사업 시작 이후 약 20년 동안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전달하는 여성가족부의 주요 가족정책 전달체계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다문화가족, 1인가구 증가 등의 가족 다양성 증가 및 가족 기능 변화에 따라 가족센터의 역할 확대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사각지대 없는 가족서비스 지원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비서 시스템 등과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을 발표하였다(여성가족부, 2022). 이와 함께 연령, 성별, 지역 등으로 가족센터 서비스를 검색하고, 적합한 서비스에 대한 알림 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맞춤형 가족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을 계획하는 등 가족센터의 접근성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서관, 어린이집, 주민 체육시설 등과 복합화하는 가족센터SOC 또한 가족센터의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인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을 가족센터SOC 내에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고, 나아가 가족센터 프로그램 참여로 연결시키고자 공간 운영 프로그램 개발(윤성은, 홍우정, 손서희, 권영재, 박연진, 2022) 및 지역센터 컨설팅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처럼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센터의 역할 확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센터와 가족센터가 제공하는 가족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경우, 가족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즉, 가족센터 및 가족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서비스 이용 의향 및 실제 이용 행동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자원요인이다(손서희, 이재림, 2023).

가족센터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부 가족 관련 조사에서는 가족센터 인지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일례로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서는 가족지원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기관 인지도를 조사하였는데, 가족센터의 사업 중 하나인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54.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 전달체계인 가족센터(조사시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44.2%로 개별 단위 사업인 아이돌봄서비스와 비교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란 외, 2021). 이와 유사하게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가족

보고서(이재림, 손서희, 박인숙, 박지수, 신하은, 윤보라, 이가은, 2023)에서도 2018년부터 매년 가족센터 인지도를 조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 알고 있다(들어보기만 했다 +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약 40% 초반대의 인지도를 보였다. 이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2021년 조사에서는 76.1%로 인지도가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새로운 명칭인 가족센터의 인지도를 조사한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62.9%와 58.7% 수준으로 2021년과 비교해 다소 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인지도의 변화는 명칭 변화에 따른 차이로 해석되었다(이재림 외, 2023). 가족센터 인지도 조사는 전 국민 혹은 서울시민의 가족센터 명칭 및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가족센터 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서비스에 대한 태도 및 인식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가족센터 이용은 가족센터 및 가족서비스에 대한 인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가족센터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기관 인지도에서 더 나아가 기관 및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하여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족센터와 가족센터의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가족센터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가족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특정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서비스 요구도 등을 파악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전춘애, 이종남, 방한별, 2009; 최새은, 김미영, 손서희, 2020). 이들 선행연구는 가족센터 이용자에 대한 이해에는 도움을 주지만, 비이용자 및 가족센터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박정윤, 김정은, 송혜림, 진미정, 2022)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가족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족센터의 잠재적 이용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포괄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족센터 인지도 조사는 가족센터에 대한 인지도뿐만 아니라 가족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특성이 함께 파악될 때, 가족센터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9세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가족센터 인지도뿐만 아니라 가족센터 및 가족 대상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태도, 경험 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개인 및 가구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족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욕구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족센터 인지도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가족센터 인지도 설문문항 개발
 - 가족센터 인지도 조사 관련 선행연구 고찰
 - 타기관 인지도 조사 연구 파악

- 가족센터 및 가족서비스 관련 인식, 태도 등의 특성 파악
 - 가족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파악
 - 가족센터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 정책 요구도, 이용 경험 파악
 -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센터 및 가족서비스 관련 특성 분석

- 가족센터 인지도 향상 방향 도출
 - 잠재적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센터 인지도 향상 방향 논의
 - 가족센터 홍보 방안 논의

2) 연구방법

(1) 가족센터 인지도 조사를 위한 선행연구 고찰

가족센터 인지도 조사 설문문항 개발에 앞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및 가족서비스 관련 조사 문항을 포함한 가족실태조사 등의 국내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가족센터 인지도 조사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의 인지도 조사연구를 함께 분석하였다.

(2) 가족센터 인지도 조사 설문문항 개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설문지 초안을 개발한 후, 가족학 전문가 및 가족센터 실무자 등을 포함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족센터 인지도 조사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설문지 개발 과정 및 최종 설문영역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설문지 개발 과정

- 1차 설문지 개발
 - 문헌조사 및 연구진 회의를 통해 조사 영역 및 조사 내용 결정
 - 1차 설문지 영역 및 문항 개발: 4개 영역, 178개 문항
 - 세부 영역
 - 인구사회학적 특성
 - 개인 및 가족생활 특성 전반
 - 가족서비스에 대한 인식
 - 가족센터 인지도 및 정책 요구도
- 2차 설문지 수정
 - 외부 자문위원의 자문의견 반영을 통해 2차 설문지 수정
 - 2차 설문지 영역 및 문항: 4개 영역, 186문항
- 3차 설문지 수정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의견 반영을 통해 3차 설문지 수정
 - 3차 설문지 영역 및 문항: 5개 영역, 171개 문항
- 최종 설문지 영역 및 내용

영역	내용	응답자	
		가족센터 이용자	가족센터 비이용자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0	0
	출생연도	0	0
	연령	0	0
	거주 지역	0	0
	학력	0	0
	사회경제적 지위	0	0
	본인 및 배우자 임금노동 여부	0	0
	가족 전체 월평균 소득	0	0
	독신가구 여부	0	0
	함께 살고 있는 사람	0	0
	혼인상태	0	0
	자녀 여부	0	0
	자녀 수	0	0
자녀의 만 나이	0	0	
2. 개인 및 가족 생활 특성 전반	가족의 중요도	0	0
	가족생활 행복도	0	0
	배우자와의 관계 행복도	0	0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0	0
	가족관계 어려움	0	0

	가족생활의 어려움	0	0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대처	0	0
3. 가족 대상 서비스에 대한 인식	가족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나 공공기관의 지원 필요도	0	0
	가족 관련 서비스 이용 의향	0	0
	가족센터 및 관련 기관의 인지 정도	0	0
	가족 서비스 및 정책 관련 정보 습득의 용이성	0	0
	현재 가족서비스 및 정책 정보 습득 방법	0	0
	선호하는 가족서비스 및 정책 정보 습득 방법	0	0
	지역사회 가족서비스 이용 장애요인	0	0
4. 가족센터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 정책 요구도, 이용 경험	가족센터 연상 서비스 대상	0	0
	가족센터 연상 서비스 내용	0	0
	가족센터 이용 경험	0	0
	지난 1년간 가족센터 이용 횟수	0	
	가족센터 이용 의향	0	0
	가족센터 관련 홍보물 경험 여부	0	0
	가족센터를 알게 된 경로	0	
	가족센터 이용 이유	0	
	가족센터 이용 경험	0	
5. 가족서비스 인식과 이용 경험	지역사회 가족서비스 제공 인지	0	0
	가족서비스 필요성	0	0
	지역사회 가족서비스 이용 경험	0	0
	가족서비스 이용 기관	0	0
	가족서비스 이용 만족도	0	0
	가족교육 제공 희망 기관 및 해당 기관 선택 이유	0	0
	가족상담 제공 희망 기관 및 해당 기관 선호 이유	0	0

(3) 설문조사 및 분석

2023 가족센터 인지도 조사의 조사대상은 가족서비스 잠재수요 계층인 20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이다. 리서치 회사가 보유한 대규모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표집을 통해 총 1,50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는 2023년 11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모바일 또는 웹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개요는 아래 <표 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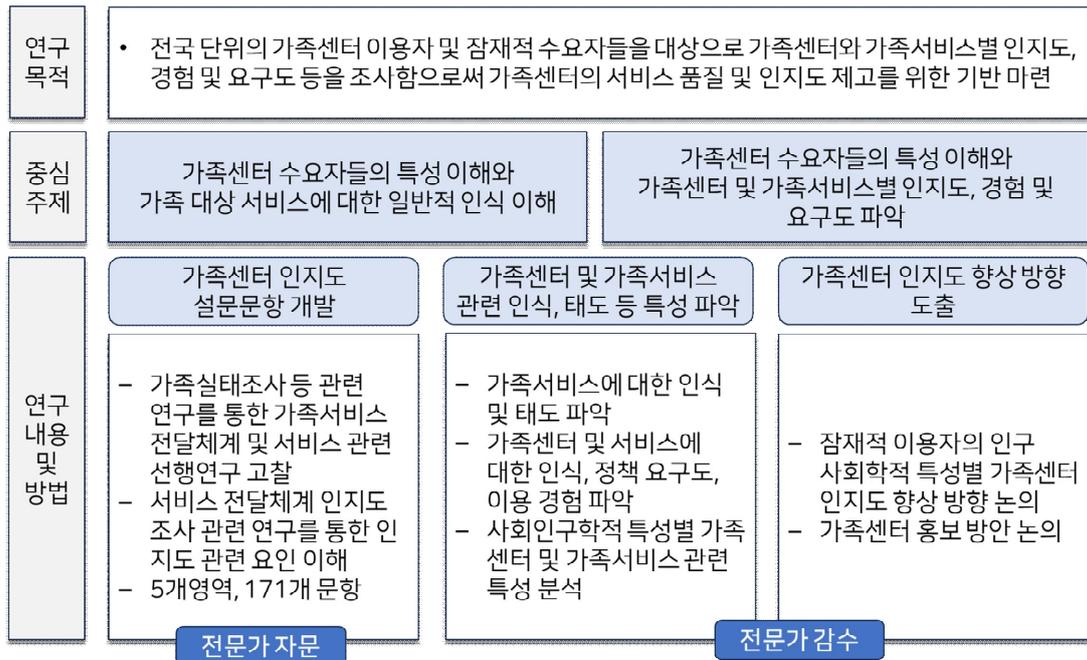
조사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문항에 대한 응답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조사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가족 관련 특성별 가족센터 및 가족서비스별 인지도,

이용 경험 및 요구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Chi-square),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사후검증(Scheffé test)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분석은 SPSS 26을 활용하였다.

<표 1-2>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 전국 20세 이상 - 69세 이하 성인
표집 방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표집
표본 수	• 설문조사 참여자 1,500명
조사 방법	• 패널을 이용한 모바일 또는 웹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 기간	• 2023년 11월 7일 ~ 11월 16일
조사 업체	• ㈜마크로밀 엠브레인
분석 방법	•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차이분석

(4) 연구모형



[그림 1-1] 연구모형

제2장. 가족센터 개요 및 인지도 연구 동향

1. 가족센터 개요

여성가족부는 2021년 10월부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하였다(여성가족부, 2021). 변경 전 명칭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 내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잘못 인식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변경한 것이다. 따라서 가족센터는 가족 유형별로 이원화된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다양한 가족을 위한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설립 목적이 있다. 가족센터는 2014년부터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연도별로 운영기관을 확대하여 2023년 현재에는 211개소가 운영 중이다(여성가족부, 2023).

가족센터는 영유아기 자녀에서부터 부모 및 노인세대까지 모든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고려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가족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다양한 가족의 욕구를 고려한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서비스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자녀 방문교육 등 종합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가족들의 높은 자녀돌봄 욕구에 부응하여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1인가구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과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학습과 진로 지원 사업’을 신규로 시행하였다(여성가족부, 2021). 또한 가족센터를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과 함께 설치해 통합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SOC 건립(생활SOC복합화사업¹⁾)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가족센터의 사업영역을 살펴보면,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영역이 있으며, 다양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표 2-1> 참조). 각 영역에서의 기본사업은 지역적 여건, 특성,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교육·상담·정보제공·사례관리·문화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서비스 제공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가족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지만,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별도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서비스

1) 돌봄·문화·체육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3종 시설 중 2개 이상을 하나의 건물에 함께 건립하는 사업

이용 제고를 위해 서비스 제공 시간을 주중, 야간, 주말 등으로 다양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2-1> 가족센터 영역별 사업내용

사업영역	기본사업	비고
가족관계	부모역할 지원(임신출산(부모)지원, 영유아기 부모지원, 학부모지원, 가족가치교육, 아버지 역할 지원), 부부역할지원(부부갈등예방·해결지원, 노년기 부부지원), 이혼전·후가족지원, 다문화가족관계향상지원, <u>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u> ,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가족상담, (손자녀 돌봄)조부모 역할 지원,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교육, 상담(정보제공 및 초기상담), 문화프로그램 등
가족돌봄	가족희망드림 지원	교육, 상담(정보제공 + 초기상담 → 전문상담) 돌보미 파견, 사례관리 등
가족생활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1인가구 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사회포용안전망 사업	교육, 상담, 정보제공, 문화프로그램 등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가족봉사단(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 공동육아나눔터(자녀돌봄 품앗이),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가족사랑의 날,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다음사업, 다함께 프로그램, 기타(사업 영역에 속하지 않는 사업)	모임, 활동, 문화프로그램 등

※ _____ : 밑줄의 3개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중 우선적으로 시행

※ 사업영역별 기본사업 외의 건가 또는 다가사업, 지역특성화 사업 등 운영 가능

출처: 여성가족부(2023). 2023년 가족사업안내. p. 94.

2. 가족센터 인지도 연구 동향

현재 우리 사회의 가족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정형화된 모습의 가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부부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모든 형태의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여성가족부, 2021), 지역의 가족센터에서도 가족 다양성을 고려한 가족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서비스 제공과 함께 가족서비스 확산을 위해서는 가족센터 및 가족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실제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부터 경험까지의 과정을 보면 서비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단계에서 시작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탐색하고 서비스 경험을 통한 삶의 변화에 대한 기대 등으로 발전한다(전진아 외, 2019).

이러한 단계를 고려하면 사람들이 가족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가족서비스에 대한 인지는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과정이다. 또한 가족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무엇이며,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족서비스 및 가족센터를 대상으로 한 인지도에 대한 연구는 노인과 장애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인지도란 지역사회 내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으로 인지도(awareness) 혹은 지식(knowledge)으로 혼용되어 사용되며 이는 서비스 이용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로 파악되고 있다(임효연, 정은수, 2017). 다수의 선행연구들(김혜미, 허선영, 2022; 임효연, 정은수, 2017; 천재영, 최영, 2014)에 따르면 해당 기관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의 인지도가 이들의 서비스 이용 의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족에게 가족서비스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가족센터와 가족센터의 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지도와 인식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가족서비스 이용은 가족의 스트레스 감소 혹은 가족건강성 향상에 도움(진미정, 노신애, 소효중, 2017)이 되기 때문에 가족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가족서비스의 접근성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족센터와 가족서비스에 관한 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가족센터 인지도 관련 선행연구는 가족실태조사나 서울가족보고서 등 가족생활 전반을 살펴보는 연구에서 가족센터 및 가족서비스 인지도를 살펴본 연구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도에 따른 가족생활을 살펴본 일부 연구에 불과하다.

2020년 가족실태조사 연구는 가족지원서비스 인지도와 가족서비스 요구도를 조사하였다(김영란 외, 2021). 우선 가족지원서비스와 전달기관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 가족역량강화지원서비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6개 항목 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 (54.3%)였으며, 두 번째는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 (45.0%), 가족서비스 전달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44.2%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성별 및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여성(48.8%)이 남성(39.6%)보다 가족센터를 ‘알고 있음’의 응답이 높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세 이상-60세 미만’의 인지도가 50.2%로 가장 높았고, ‘40세 이상-50세 미만’ 47.3%, ‘30세 이상-40세 미만’ 45.4%, ‘25세 이상-30세

미만' 40.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가족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족지원 서비스 중 필요한 항목 1순위 응답은 노인돌봄지원(23.3%), 가족 여가·문화프로그램 지원(14.3%),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 방법 교육·상담지원(9.9%)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원서비스의 요구도는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50대 이상은 노인돌봄지원에, 20대와 30대는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지원에, 40대는 가족 여가문화 프로그램 지원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연령대별로 가족서비스 요구가 차이는 있는 것은 지역 가족센터에서 가족서비스를 시행할 때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가족서비스 구성과 홍보가 효과적일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다음으로 서울가족보고서에서도 2018년부터 가족센터 인지도를 조사하였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센터 등 가족센터 명칭 변경에 따라 가족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다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재림 외, 2023).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조사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지도의 경우 '들어보기만 했다'는 응답이 약 33.1%-35.5%,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7.4%-9.8%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후 인지도는 '들어보기만 했다' 64.8%, '내용을 알고 있다' 11.3%로 인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22년 이후 가족센터로의 명칭 변경 후의 인지도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을 2021년부터 새로운 기관 명칭으로 변경하면서 삭제하였기 때문에, 지역사회 주민들이 같은 기관인지 잘 모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한편 가족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의 중심 정책인 가족다양성을 고려한 가족센터 사업 운영 방안을 조사한 고선강, 손서희, 서찬란(2023)의 연구에서는 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취약한 가족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내 존재하는 보편적인 다양한 가족을 위한 서비스 집행기관으로서의 가족센터 이미지 형성과 홍보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결국 지역주민들의 가족센터 인지도 향상 및 이용률 향상을 위해 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 혹은 어떤 특정한 가족만을 위한 곳이 아닌 모든 가족에게 열린 공간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다양성 사업 운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족센터의 운영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가족센터별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연구(진미정, 2021) 결과를 볼 때, 앞으로 가족센터가 모든 가족들을 위해 존재하는 대표적인 가족정책 전달기관으로써 지역 특색에 맞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 역할에 대한 지역별 구체적인 홍보 방법에 대한 추가 조사가 요구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인지도를 조사한 진미정, 노신애, 소효중(2017) 연구는 2015년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전국가족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응답자의 33.19%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48.97%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알고 있었으며, 이는 2010년에 비해 향상된 수치로 그동안 센터 개수나 센터 사업 증가가 인지도 상승의 원인으로 보여진다고 하였다. 사회인구학적 측면으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청소년자녀(만12세-25세)가 있는 응답자들이 두 센터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는 40-60대 응답자들이 더 잘 알고 있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는 30대와 70대 응답자들이 나머지 연령층에 비해 더 잘 모르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40-60대 여성들이 부모교육이나 부부교육에 참여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보다는 농촌에 사는 응답자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는데 다문화가족의 비율이 도시보다 농촌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빨리 확대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센터 인지도 향상을 위해 센터의 주된 관심 집단인 청소년 자녀가 있는 40-6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안내 강화 등의 홍보 우선순위 설정을 강조하였고, 지역센터와 함께 시도 가족센터에서 가족센터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지리적 접근성이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진미정과 유재연(2012) 연구에 따르면, 지리적 접근성의 영향이 프로그램 영역, 대상 집단, 회기 수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상담이나 가족문화화 조성, 가족돌봄지원, 다양한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는 이용자의 지리적 근접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가족교육 프로그램은 지리적 근접성에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성인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지리적 근접성에 따라 참여율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단회기 프로그램은 지리적 근접성과 상관이 없었으나, 다회기 프로그램 참여자는 비참여자에 비해 더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 사업을 포함한 가족서비스 홍보 시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한 세밀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제주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건강가정사업 인지 및 프로그램 요구를 조사한 김효주(2009)의 연구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5.1%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알고 있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에 대해 요구가 높으며

연령이 높고 결혼생활을 오래 지속할수록 ‘노후설계교육’에도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기혼자들은 주로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가족생활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있으며, 그 다음 친구 및 이웃주민, 인터넷 정보검색, 가족 및 친인척, 전화 및 문자메세지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자들은 공통적으로 자녀와 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언론매체를 통해 가족생활 관련 정보를 주로 습득하고 있으므로 지역 공통으로 양육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가족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성하고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한다면 센터 인지도 상승에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하였다.

한편 ‘2012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의 센터 인지 및 이용 결정요인을 분석한 손병돈(2014)의 연구는 Anderson과 Newman(1973)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석모델을 적용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회인구학적 요인인 선행요인(predisposing factors), 서비스 이용을 위한 자원요인(enabling factors), 서비스에 대한 직간접적인 욕구를 말하는 욕구요인(need factors)으로 구분하고 있다(Anderson, 1995; 김안나, 최승아, 2012). 분석결과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한국어 능력이 우수할수록, 모국인이나 한국인 지지가 많을수록, 참여하는 모임이 많을수록, 사회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클수록, 그리고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 거주할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비스 이용 확률의 경우,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 외국인 배우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대상자들이 기관과 서비스를 인지하는 것과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것은 차이가 있으며, 사회인구학적인 측면 외에 서비스 대상자 주변 자원과 욕구 모두가 반영된 결과로 서비스 이용 결정 요인을 봐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가족센터 인지도 관련 연구가 일부 수행되어 왔으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서비스 욕구에 따른 인지도 및 이용 경험을 살펴본 것에 불과하다. 이를 고려할 때, 가족센터 및 가족서비스 인지 및 이용과 관련될 수 있는 그 밖의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McCurdy와 Daro(2001)는 서비스에 대한 규범적 인식은 프로그램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가족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가치있는 자원으로 인식될 때, 지역 주민의 프로그램 참여 의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부정적으로 인식될 경우 참여 의향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상담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에 대한 연구(김주미, 유성경, 2002)가 다수 수행되었지만,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서비스인 가족교육 및 문화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이용 행동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가족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이용 장애 혹은 촉진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가족센터 및 가족서비스 인지도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 이용자의 개인 및 가족관계 특성, 가족생활의 어려움, 가족서비스에 대한 태도 등에 따른 가족센터 및 가족서비스 인지도와 이용 의향 차이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 가족센터 인지도 조사 결과

1. 조사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절에서는 조사응답자 1,500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개인 및 가족 특성을 분석하여 주요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조사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응답자 1,500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가족센터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성별, 연령, 학력, 가구소득, 결혼지위, 1인가구 여부, 자녀 유무, 미성년자녀 유무, 맞벌이 여부, 지역 유형 등을 포함하였다.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3-1>과 같다.

본 조사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49.0%, 남성 51.0%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50대가 23.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40대 21.5%, 60대 20.7%, 30대 17.9%, 20대 16.7%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응답자의 최종학력은 대학교(4년제)가 54.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고졸이하 18.6%, 대학교(2-3년제) 16.5%, 대학원 이상 10.6%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가구소득은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9.0%로 가장 많았고,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28.1%, 6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19.1%, 200만원 미만과 8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각각 8.2%, 1000만원 이상 7.5%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응답자의 결혼 지위는 기혼이 60.4%로 가장 많았고 비혼(미혼)이 34.6%, 이혼 및 사별 가구가 5.0%로 나타났다. 가구 형태 중 가장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1인가구 여부를 확인한 결과 18.9%가 1인가구였고 81.1%가 다인가구였다. 자녀 유무에서는 조사응답자의 58.4%가 자녀가 있었고, 41.6%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녀가 있는 876명의 조사응답자를 대상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41.6%,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가 58.4%로 확인되었다. 조사응답자 중 기혼자의 맞벌이 여부를 파악한 결과 51.5%가 맞벌이가구로 확인되었다. 조사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유형은 대도시가 53.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중소도시 42.8%, 농어촌 3.7% 순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의 대상은 성별, 연령, 지역 유형 등이 우리나라 인구통계와 비례하게 적정하게 표집되었고, 1인가구 비율은 우리나라 현재 20세에서 69세까지의 1인가구 비율이 13.5%(통계청, 2023)인 것을 고려하면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구 형태인 만큼 보다 많은 1인가구의 가족센터 및 가족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요구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1> 조사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 = 1,500) (단위: 명, %)

구분	정도	빈도	비율
성별	여성	735	49.0
	남성	765	51.0
연령	20-29세	251	16.7
	30-39세	268	17.9
	40-49세	323	21.5
	50-59세	348	23.2
	60-69세	310	20.7
학력	고졸이하	279	18.6
	대학교(2-3년제)	247	16.5
	대학교(4년제)	815	54.3
	대학원 이상	159	10.6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23	8.2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435	29.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421	28.1
	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286	19.1
	8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23	8.2
	1000만원 이상	112	7.5
결혼지위	비혼(미혼)	519	34.6
	기혼	906	60.4
	이혼 및 사별	75	5.0
1인가구 여부	1인가구	284	18.9
	다인가구	1216	81.1
자녀유무	무자녀	624	41.6
	유자녀	876	58.4
미성년자녀 유무 (n = 876)	무	512	58.4
	유	364	41.6
맞벌이 여부 (n = 906)	맞벌이	467	51.5
	맞벌이 외	439	48.5
지역유형	대도시	803	53.5
	중소도시	642	42.8
	농어촌	55	3.7

2) 조사응답자의 개인 및 가족생활 특성

조사응답자의 가족생활 및 개인 특성은 가족 중요도, 가족생활 행복도, 배우자와의 관계 행복도, 평소 생활상의 어려움, 가족탄력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조사응답자들의 개인 및 가족생활 특성은 그들이 가족센터를 인지하거나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있어 선행요인 및 욕구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 가족 중요도

조사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가족 중요도(범위: 1-5점)를 살펴본 결과, 평균 점수는 4.70점(표준편차 0.573)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 비율이 95.8%로 나타날 정도로 응답자들은 가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2> 가족 중요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 (단위: 명, %, 점)

유형	정도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가족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0.1	4.70	(.573)
	별로 중요하지 않다	7	0.5		
	보통이다	55	3.7		
	대체로 중요하다	313	20.9		
	매우 중요하다	1123	74.9		
합계		1500	100		

(2) 가족생활 행복도

조사응답자들에게 지난 한 달 동안 가족생활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범위: 1-10점)를 질문함으로써 가족생활 행복 수준을 확인한 결과, 평균 점수는 7.62점(표준편차 1.830)으로 나타나 ‘보통’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3-3> 가족생활 행복도 (단위: 명, %, 점)

유형	정도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가족생활 행복도	1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13	0.9	7.62	(1.830)
	2	9	0.6		
	3	30	2.0		
	4	38	2.5		
	5	101	6.7		
	6	151	10.1		
	7	241	16.1		
	8	411	27.4		
	9	287	19.1		
	10 매우 행복했다	219	14.6		
합계		1500	100		

(3) 배우자와의 관계 행복도

조사응답자 중 기혼자들에게 지난 한 달 동안 배우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범위: 1-10점)를 질문한 결과, 평균 점수는 7.56점(표준편차 1.997)으로 나타나 ‘보통’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3-4> 배우자와의 관계 행복도 (단위: 명, %, 점)

유형	정도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배우자와의 관계 행복도	1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15	1.7	7.56	(1.997)
	2	10	1.1		
	3	19	2.1		
	4	26	2.9		
	5	68	7.5		
	6	85	9.4		
	7	123	13.6		
	8	234	25.8		
	9	193	21.3		
	10 매우 행복했다	133	14.7		
합계		906	100		

주: 기혼자 906명을 분석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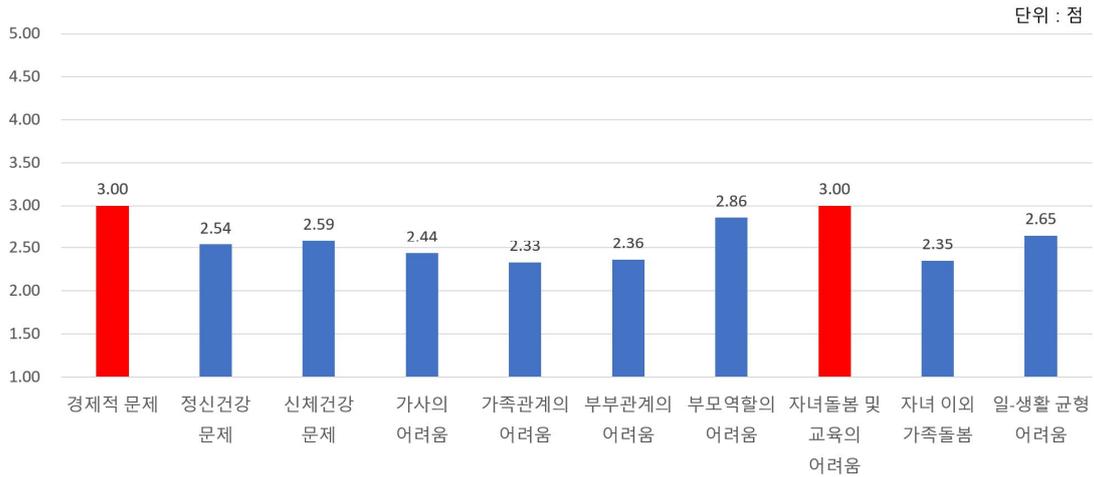
(4) 평소 생활상의 어려움

조사응답자가 경험하고 있는 생활상의 어려움(범위: 1-5점)을 경제적 문제, 정신 건강 문제, 신체건강 문제, 가사의 어려움, 가족관계의 어려움, 자녀 이외 가족 돌봄의 어려움,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기혼 응답자에게는 부부관계의 어려움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에게는 부모역할의 어려움, 자녀 돌봄 및 교육의 어려움 항목을 추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제적 문제(표준편차 1.009)와 자녀 돌봄 및 교육의 어려움(표준편차 1.027)이 평균 3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고, 그다음으로 부모역할의 어려움이 2.86점(표준편차 1.005),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2.65점(표준편차 .992), 신체건강 문제 2.59점(표준편차 .983), 정신건강 문제 2.54점(표준편차 1.061), 가사의 어려움 2.44점(표준편차 .974), 부부관계의 어려움 2.36점(표준편차 1.003), 가족관계의 어려움 2.33점(표준편차 .988), 자녀 이외 가족 돌봄의 어려움 2.35점(표준편차 1.047)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 평소 생활상의 어려움

(단위: 명, %, 점)

유형	정도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경제적 문제	전혀 어렵지 않다	85	5.7	3.00	(1.009)
	별로 어렵지 않다	407	27.1		
	보통이다	530	35.3		
	대체로 어렵다	378	25.2		
	매우 어렵다	100	6.7		
정신건강 문제	전혀 어렵지 않다	258	17.2	2.54	(1.061)
	별로 어렵지 않다	515	34.3		
	보통이다	431	28.7		
	대체로 어렵다	244	16.3		
	매우 어렵다	52	3.5		
신체건강 문제	전혀 어렵지 않다	199	13.3	2.59	(.983)
	별로 어렵지 않다	514	34.3		
	보통이다	527	35.1		
	대체로 어렵다	218	14.5		
	매우 어렵다	42	2.8		
가사의 어려움	전혀 어렵지 않다	247	16.5	2.44	(.974)
	별로 어렵지 않다	595	39.7		
	보통이다	442	29.5		
	대체로 어렵다	184	12.3		
	매우 어렵다	32	2.1		
가족관계의 어려움	전혀 어렵지 않다	315	21.0	2.33	(.988)
	별로 어렵지 않다	604	40.3		
	보통이다	389	25.9		
	대체로 어렵다	162	10.8		
	매우 어렵다	30	2.0		
부부관계의 어려움 (n=906)	전혀 어렵지 않다	171	18.9	2.36	(1.003)
	별로 어렵지 않다	387	42.7		
	보통이다	226	24.9		
	대체로 어렵다	93	10.3		
	매우 어렵다	29	3.2		
부모역할의 어려움 (n=364)	전혀 어렵지 않다	22	6.0	2.86	(1.005)
	별로 어렵지 않다	130	35.7		
	보통이다	107	29.4		
	대체로 어렵다	88	24.2		
	매우 어렵다	17	4.7		
자녀돌봄 및 교육의 어려움 (n=364)	전혀 어렵지 않다	24	6.6	3.00	(1.027)
	별로 어렵지 않다	101	27.7		
	보통이다	110	30.2		
	대체로 어렵다	110	30.2		
	매우 어렵다	19	5.2		
자녀 이외 가족돌봄의 어려움	전혀 어렵지 않다	356	23.7	2.35	(1.047)
	별로 어렵지 않다	512	34.1		
	보통이다	418	27.9		
	대체로 어렵다	174	11.6		
	매우 어렵다	40	2.7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전혀 어렵지 않다	184	12.3	2.65	(.992)
	별로 어렵지 않다	483	32.2		
	보통이다	558	37.2		
	대체로 어렵다	221	14.7		
	매우 어렵다	54	3.6		



[그림 3-1] 평소 생활상의 어려움

(5) 가족탄력성 수준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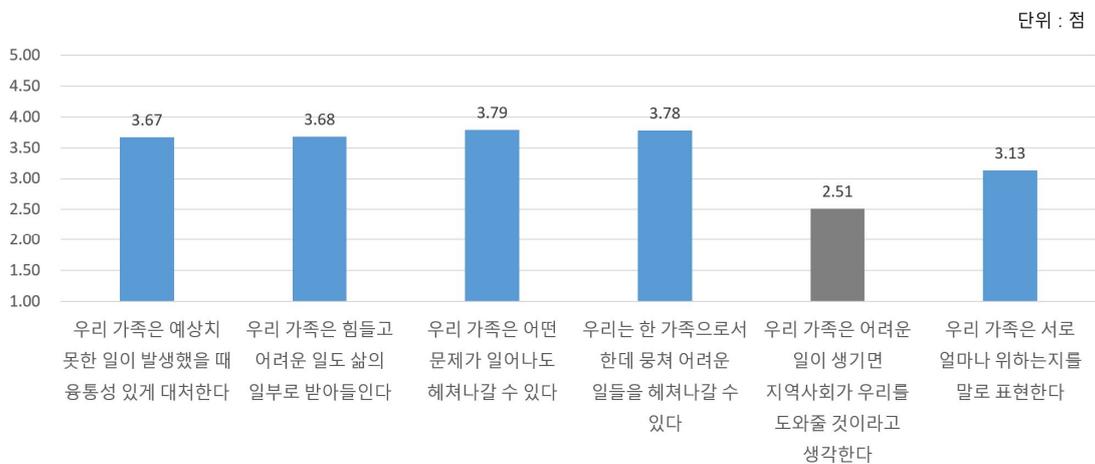
조사응답자에게 역경이나 어려움에 놓인 가족이 그러한 상황을 극복해가는 힘을 의미하는 가족탄력성 수준(범위 1-5점)을 확인한 결과 전체 평균 3.61점(표준편차 .657)으로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가족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헤쳐나갈 수 있다’가 평균 3.79점(표준편차 .837)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한데 뭉쳐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 3.78점(표준편차 .851), ‘우리 가족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3.68점(표준편차 .722), ‘우리 가족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 3.67점(표준편차 .740), ‘우리 가족은 서로 얼마나 위하는지를 말로 표현한다’ 3.13점(표준편차 .984), ‘우리 가족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역사회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2.51점(표준편차 .997) 순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에 대처하는 가족 내부 역량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달리, 지역사회 도움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만하다.

2) 가족탄력성은 홍은숙(2018)의 척도를 재구성하였음.

<표 3-6> 가족탄력성 수준

(단위: 명, %, 점)

유형	정도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우리 가족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6	1.1	3.67	(.740)
	별로 그렇지 않다	86	5.7		
	보통이다	381	25.4		
	대체로 그렇다	906	60.4		
	매우 그렇다	111	7.4		
우리 가족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전혀 그렇지 않다	10	0.7	3.68	(.722)
	별로 그렇지 않다	84	5.6		
	보통이다	391	26.1		
	대체로 그렇다	901	60.1		
	매우 그렇다	114	7.6		
우리 가족은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헤쳐나갈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6	1.1	3.79	(.837)
	별로 그렇지 않다	80	5.3		
	보통이다	382	25.5		
	대체로 그렇다	750	50.0		
	매우 그렇다	272	18.1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한데 뭉쳐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24	1.6	3.78	(.851)
	별로 그렇지 않다	84	5.6		
	보통이다	350	23.3		
	대체로 그렇다	784	52.3		
	매우 그렇다	258	17.2		
우리 가족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역사회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227	15.1	2.51	(.997)
	별로 그렇지 않다	566	37.7		
	보통이다	470	31.3		
	대체로 그렇다	190	12.7		
	매우 그렇다	47	3.1		
우리 가족은 서로 얼마나 위하는지를 말로 표현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75	5.0	3.13	(.984)
	별로 그렇지 않다	307	20.5		
	보통이다	567	37.8		
	대체로 그렇다	444	29.6		
	매우 그렇다	107	7.1		
합계		1500	100	3.61	(.657)



[그림 3-2] 가족탄력성 수준

2. 가족 대상 서비스에 대한 인식

향후 가족센터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사응답자들의 가족 대상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살펴보았다. 가족 대상 서비스에 대한 인식에는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법, 가족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지역사회나 공공기관의 지원 필요성, 가족 관련 서비스 이용 의향, 가족센터 및 지역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공공기관에 대한 인지 정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정책 관련 정보 확인의 용이성, 가족 관련 서비스 정보 수집 방법과 선호 방법, 가족 서비스 이용 장애요인 등의 문항을 포함하였다. 이에 대한 기술통계와 함께 가족서비스 및 가족센터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관련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부를 선정하여 가족관계 및 생활상의 어려움 대처 방법,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가족서비스 이용 의향, 가족서비스 제공 기관 및 가족서비스 인지도, 가족서비스 이용 장애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선정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지위, 미성년자녀 유무, 1인가구 여부, 지역 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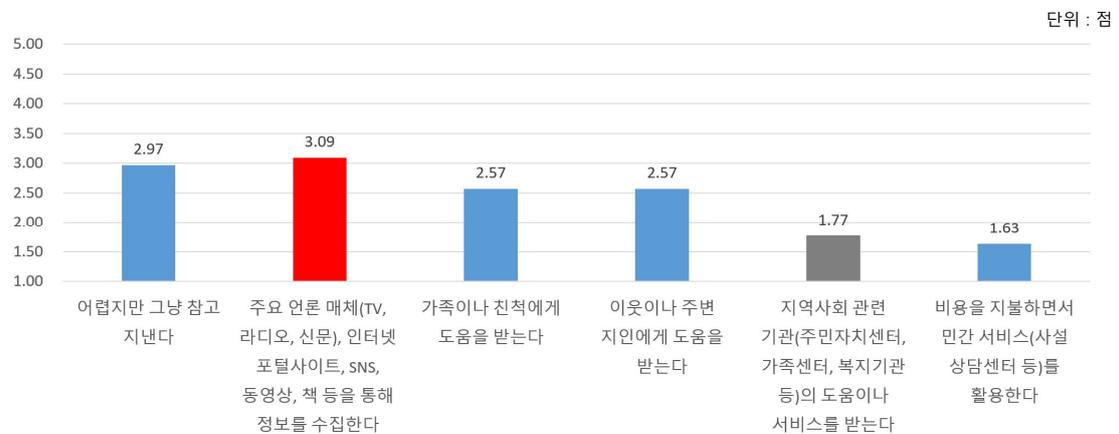
1) 가족관계 어려움 대처방법

(1) 가족관계 어려움 대처방법의 일반적 경향

조사응답자에게 평소 부부갈등, 부모-자녀 관계 갈등 등과 같은 가족관계에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범위: 1-5점)을 확인한 결과 ‘주요 언론 매체(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포털사이트, SNS, 동영상, 책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가 평균 3.09점(표준편차 1.036)으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어렵지만 그냥 참고 지낸다’가 2.97점(표준편차 1.089), ‘가족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받는다(표준편차 1.037)’와 ‘이웃이나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받는다(표준편차 1.010)’가 각각 2.57점, ‘지역사회 관련 기관(주민자치센터, 가족센터, 복지기관 등)의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는다’가 1.77점(표준편차 .882), ‘비용을 지불하면서 민간서비스(사설 상담센터 등)를 활용한다’가 1.63점(표준편차 .90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개인적 대처를 우선으로 사용하고 사회적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정도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가족탄력성 수준 조사에서 지역사회의 도움 가능성에 대해 낮게 인지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표 3-7> 가족관계 어려움 대처방법의 일반적 경향 (단위: 명, %, 점)

유형	정도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어렵지만 그냥 참고 지낸다	전혀 그렇지 않다	149	9.9	2.97	(1.089)
	별로 그렇지 않다	400	26.7		
	보통이다	374	24.9		
	대체로 그렇다	508	33.9		
	매우 그렇다	69	4.6		
정보를 수집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22	8.1	3.09	(1.036)
	별로 그렇지 않다	297	19.8		
	보통이다	491	32.7		
	대체로 그렇다	508	33.9		
	매우 그렇다	82	5.5		
가족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받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244	16.3	2.57	(1.037)
	별로 그렇지 않다	500	33.3		
	보통이다	458	30.5		
	대체로 그렇다	258	17.2		
	매우 그렇다	40	2.7		
이웃이나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받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386	25.7	2.57	(1.010)
	별로 그렇지 않다	541	36.1		
	보통이다	384	25.6		
	대체로 그렇다	167	11.1		
	매우 그렇다	22	1.5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702	46.8	1.77	(.882)
	별로 그렇지 않다	516	34.4		
	보통이다	212	14.1		
	대체로 그렇다	60	4.0		
	매우 그렇다	10	0.7		
비용을 지불하면서 민간 서비스(사설 상담센터 등)를 활용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883	58.9	1.63	(.900)
	별로 그렇지 않다	365	24.3		
	보통이다	184	12.3		
	대체로 그렇다	53	3.5		
	매우 그렇다	15	1.0		
합계		1500	100		



[그림 3-3] 가족관계 어려움 대처방법

(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관계 어려움 대처방법

가족관계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법을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를 통계적 차이가 유의한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표 3-8〉 참조).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는다’ ($t = 6.76, p < .001$)와 ‘비용을 지불하면서 민간 서비스를 활용한다’ ($t = 4.90, p < .001$)는 응답의 평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어렵지만 그냥 참고 지낸다’ ($F = 5.47, p < .001$)와 ‘주요 언론 매체, 인터넷 포털 사이트, SNS, 동영상, 책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F = 11.44, p < .001$)는 문항에 대해서만 유의하였다. ‘어렵지만 그냥 참고 지낸다’의 경우 50대의 응답이 평균 3.0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 3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요 언론 매체, 인터넷 포털 사이트, SNS, 동영상, 책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는 응답은 50대와 60대에서 각각 평균 3.24점과 3.2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 3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지위별 대처방법을 살펴보면, ‘주요 언론 매체, 인터넷 포털 사이트, SNS, 동영상, 책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F = 19.70, p < .001$)와 ‘비용을 지불하면서 민간 서비스를 활용한다’ ($F = 3.02, p < .01$)는 응답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요 언론 매체, 인터넷 포털 사이트, SNS, 동영상, 책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는 응답에는 ‘이혼 및 사별’ 집단이 평균 3.52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혼, 비혼 순으로 나타났다. ‘비용을 지불하면서 민간서비스를 활용한다’는 응답은 비혼 및 기혼 집단과 비교해 이혼 및 사별 집단이 유의하게 낮았다.

미성년자녀 유무별 어려움 대처방법의 차이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과 비교해 ‘어렵지만 그냥 참고 지낸다’ ($t = 5.22, p < .001$), ‘주요 언론 매체, 인터넷 포털 사이트, SNS, 동영상, 책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t = 2.17, p < .05$), ‘이웃이나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받는다’ ($t = 2.83, p < .01$),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는다’ ($t = 3.12, p < .01$), ‘비용을 지불하면서 민간서비스를 활용한다’ ($t = 3.32, p < .01$)는 응답이 유의하게 높았다.

1인가구여부에 따른 대처방법은 1인가구가 다인가구와 비교해 ‘이웃이나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받는다’ ($t = 2.25, p < .05$)는 응답이 유의하게 높았다. 지역유형에 따른 대처방법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3-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관계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법

구분		어렵지만 그냥 참고 지낸다	정보를 수집한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받는다	이웃이나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받는다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는다	비용을 지불하면 서 민간 서비스를 활용한다	
성별	여성	M	2.99	3.11	2.56	2.24	1.62	1.52
		SD	1.09	1.01	1.06	1.01	0.78	0.80
	남성	M	2.95	3.07	2.57	2.29	1.92	1.75
		SD	1.10	1.06	1.02	1.01	0.95	0.97
	t	-0.73	-0.84	0.12	1.02	6.76***	4.90***	
연령	20대	M	2.80 ^{bc}	2.78 ^c	2.68	2.34	1.74	1.65
		SD	1.23	1.12	1.18	1.14	0.88	0.88
	30대	M	3.02 ^{abc}	2.93 ^{bc}	2.51	2.18	1.73	1.63
		SD	1.08	1.07	1.11	1.05	0.88	0.91
	40대	M	3.08 ^{ab}	3.12 ^{ab}	2.53	2.29	1.85	1.72
		SD	1.01	0.96	0.99	0.98	0.97	0.97
	50대	M	3.09 ^a	3.24 ^a	2.61	2.33	1.84	1.63
		SD	1.05	0.99	1.01	0.97	0.87	0.92
	60대	M	2.79 ^c	3.26 ^a	2.51	2.18	1.69	1.53
		SD	1.072	0.99	0.92	0.94	0.80	0.80
		F	5.47***	11.44***	1.41	1.77	2.00	1.84
	결혼 지위	비혼	M	2.92	2.88 ^c	2.62	2.26	1.80
SD			1.12	1.07	1.09	1.06	0.91	0.88
기혼		M	2.99	3.17 ^b	2.55	2.28	1.77	1.64 ^a
		SD	1.07	1.00	1.01	0.99	0.87	0.93
이혼· 사별		M	3.00	3.52 ^a	2.40	2.12	1.65	1.39 ^b
		SD	1.08	1.02	0.99	0.85	0.85	0.68
	F	0.55	19.70***	1.79	0.90	0.94	3.02*	
미성 년자 녀유 무	있음	M	3.22	3.19	2.59	2.40	1.90	1.79
		SD	1.40	0.96	0.99	1.03	0.95	1.04
	없음	M	2.88	3.05	2.56	2.22	1.73	1.59
		SD	1.92	1.06	1.05	1.00	0.86	0.84
	t	5.22***	2.17*	0.39	2.83**	3.12**	3.32**	
1인 가구 여부	1인 가구	M	2.99	3.08	2.65	2.39	1.83	1.68
		SD	1.07	1.10	1.06	1.06	0.95	0.94
	다인 가구	M	2.96	3.09	2.55	2.24	1.76	1.62
		SD	1.10	1.02	1.03	1.00	0.87	0.89
	t	0.41	-0.05	1.53	2.25*	1.15	1.01	
지역 유형	대도 시	M	2.99	3.08	2.57	2.28	1.75	1.63
		SD	1.09	1.03	1.05	1.03	0.88	0.91
	중소도 시 및 농어촌	M	2.94	3.10	2.56	2.25	1.79	1.65
		SD	1.09	1.05	1.02	0.98	0.88	0.89
	t	0.75	-0.11	0.10	0.71	-0.88	-0.44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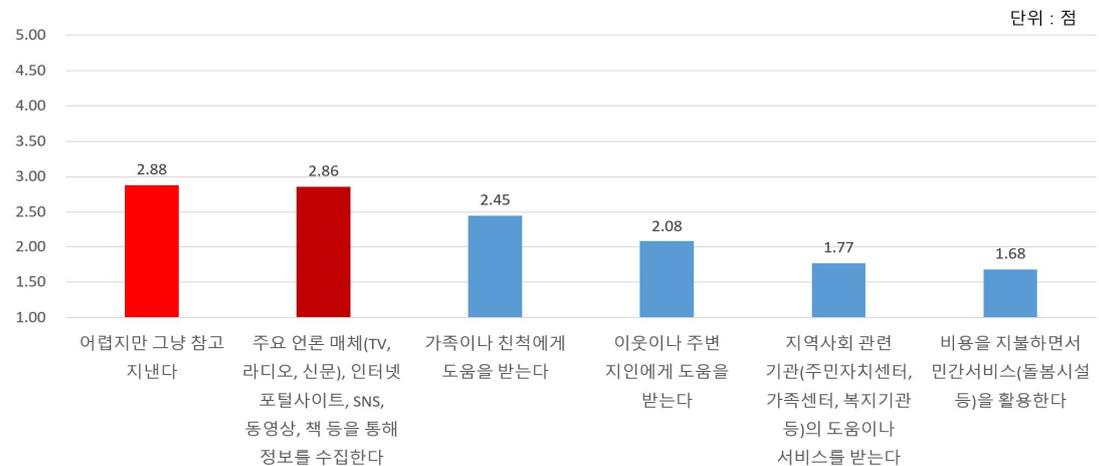
2) 가족생활 어려움 대처방법

(1) 가족생활 어려움 대처방법의 일반적 경향

조사응답자에게 자녀 및 노부모 돌봄, 가사노동 등의 가족생활에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범위: 1-5점)을 확인한 결과 가족관계 어려움에 대한 대처와는 조금 다른 결과가 확인되었다. ‘어렵지만 그냥 참고 지낸다’가 2.88점(표준편차 1.125)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주요 언론 매체(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포털사이트, SNS, 동영상, 책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가 평균 2.86점(표준편차 1.097), ‘가족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받는다’가 2.45점(표준편차 1.070), ‘이웃이나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받는다’가 2.08점(표준편차 .995), ‘지역사회 관련 기관(주민자치센터, 가족센터, 복지기관 등)의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는다’가 1.77점(표준편차 .956), ‘비용을 지불하면서 민간서비스(민간시설 및 돌봄 시설 등)를 활용한다’가 1.68점(표준편차 .955) 순으로 나타났다.

<표 3-9> 가족생활 어려움 대처방법의 일반적 경향 (단위: 명, %, 점)

유형	정도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어렵지만 그냥 참고 지낸다	전혀 그렇지 않다	202	13.5	2.88	(1.125)
	별로 그렇지 않다	366	27.4		
	보통이다	411	27.4		
	대체로 그렇다	447	29.8		
	매우 그렇다	74	4.9		
정보를 수집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201	13.4	2.86	(1.097)
	별로 그렇지 않다	347	23.1		
	보통이다	483	32.2		
	대체로 그렇다	398	26.5		
	매우 그렇다	71	4.7		
가족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받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325	21.7	2.45	(1.070)
	별로 그렇지 않다	499	33.3		
	보통이다	390	26.0		
	대체로 그렇다	255	17.0		
	매우 그렇다	31	2.1		
이웃이나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받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502	33.5	2.08	(.995)
	별로 그렇지 않다	548	36.5		
	보통이다	301	20.1		
	대체로 그렇다	130	8.7		
	매우 그렇다	19	1.3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756	50.4	1.77	(.956)
	별로 그렇지 않다	445	29.7		
	보통이다	197	13.1		
	대체로 그렇다	85	5.7		
	매우 그렇다	17	1.1		
비용을 지불하면서 민간 서비스(돌봄시설 등)를 활용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881	58.7	1.68	(.955)
	별로 그렇지 않다	330	22.0		
	보통이다	199	13.3		
	대체로 그렇다	73	4.9		
	매우 그렇다	17	1.1		
합계		1500	100		



[그림 3-4] 가족생활 어려움 대처방법

(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생활 어려움 대처방법

조사응답자들의 가족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법을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3-10>과 같다. 우선 성별에 따른 대처방법의 차이를 살펴보면, 가족관계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법과 같이 남성이 여성보다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는다’ ($t = 4.60, p < .001$)와 ‘비용을 지불하면서 민간 서비스를 활용한다’ ($t = 3.78, p < .001$)는 응답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다.

연령의 경우, ‘어렵지만 그냥 참고 지낸다’ ($F = 4.26, p < .001$)와 ‘주요 언론 매체, 인터넷 포털 사이트, SNS, 동영상, 책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F = 13.05, p < .001$)는 문항에 대해서만 유의하였다. 사후검정 결과 ‘어렵지만 그냥 참고 지낸다’는 연령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요 언론 매체, 인터넷 포털 사이트, SNS, 동영상, 책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는 응답의 경우 20대와 비교해 30-60대의 응답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결혼지위별 대처방법 차이를 살펴보면, ‘주요 언론 매체, 인터넷 포털 사이트, SNS, 동영상, 책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F = 29.73, p < .001$)만 유의하였다. 이혼 및 사별 집단의 응답 평균 3.41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혼(평균 2.97점), 비혼(평균 2.60점) 순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녀 유무의 경우, 미성년자녀가 있는 집단이 미성년자녀가 없는 집단과 비교해 모든 유형의 대처방법(어렵지만 참고 지낸다, 정보를 수집한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받는다,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는다, 비용을 지불하면서 민간 서비스를 활용한다)에 대한 응답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1인가구여부에 따른 대처방법은 1인가구가 다인가구와 비교해 ‘이웃이나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받는다’ ($t = 2.62, p < .01$)는 응답이 유의하게 높았다. 지역유형에 따른 대처방법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3-10>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생활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법

구분		어렵지만 그냥 참고 지낸다	정보를 수집한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받는다	이웃이나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받는다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는다	비용을 지불하면 서 민간 서비스를 활용한다	
성별	여성	M	2.89	2.89	2.41	2.04	1.66	1.58
		SD	1.13	1.08	1.07	0.98	0.89	0.89
	남성	M	2.88	2.84	2.47	2.11	1.88	1.77
		SD	1.12	1.12	1.07	1.01	1.01	1.01
	t		-0.17	-0.86	1.08	1.45	4.60***	3.78***
연령	20대	M	2.74	2.46 ^b	2.52	2.17	1.80	1.65
		SD	1.19	1.16	1.18	1.11	1.02	0.93

30대	<i>M</i>	2.92	2.77 ^a	2.44	2.01	1.72	1.67	
	<i>SD</i>	1.17	1.13	1.12	0.98	0.94	0.96	
40대	<i>M</i>	2.99	2.92 ^a	2.46	2.11	1.85	1.77	
	<i>SD</i>	1.09	1.07	1.07	1.02	0.99	1.02	
50대	<i>M</i>	2.99	3.01 ^a	2.46	2.10	1.81	1.69	
	<i>SD</i>	1.10	1.01	1.02	0.98	0.97	0.96	
60대	<i>M</i>	2.73	3.03 ^a	2.35	2.00	1.68	1.59	
	<i>SD</i>	1.07	1.07	0.99	0.89	0.86	0.89	
	<i>F</i>	4.26***	13.05***	0.92	1.42	1.74	1.58	
결혼 지위	비혼	<i>M</i>	2.79	2.60 ^c	2.47	2.13	1.80	1.67
		<i>SD</i>	1.15	1.12	1.12	1.04	0.98	0.94
	기혼	<i>M</i>	2.94	2.97 ^b	2.43	2.07	1.78	1.70
		<i>SD</i>	1.10	1.05	1.05	0.97	0.95	0.97
	이혼· 사별	<i>M</i>	2.88	3.41 ^a	2.39	1.85	1.60	1.49
		<i>SD</i>	1.19	1.07	0.97	0.90	0.84	0.88
	<i>F</i>	2.83	29.73***	0.32	2.54	1.38	1.57	
미성 년자 녀유 무	있음	<i>M</i>	3.24	3.02	2.58	2.21	1.91	1.88
		<i>SD</i>	1.08	1.04	1.04	1.05	1.01	1.09
	없음	<i>M</i>	2.77	2.81	2.40	2.03	1.73	1.61
		<i>SD</i>	1.12	1.11	1.08	0.97	0.93	0.90
	<i>t</i>	7.10***	3.34**	2.70**	2.85**	3.16**	4.17***	
1인 가구 여부	1인 가구	<i>M</i>	2.88	2.91	2.53	2.22	1.86	1.68
		<i>SD</i>	1.15	1.15	1.12	1.05	1.05	0.98
	다인 가구	<i>M</i>	2.88	2.85	2.43	2.04	1.75	1.68
		<i>SD</i>	1.12	1.09	1.06	0.98	0.93	0.95
	<i>t</i>	-0.05	0.82	1.45	2.62**	1.61	0.13	
지역 유형	대도 시	<i>M</i>	2.93	2.85	2.46	2.09	1.76	1.66
		<i>SD</i>	1.13	1.09	1.08	1.02	0.96	0.94
	중소도 시 및 농어촌	<i>M</i>	2.84	2.87	2.42	2.06	1.79	1.69
		<i>SD</i>	1.12	1.11	1.06	0.97	0.96	0.97
	<i>t</i>	1.55	-0.38	0.70	0.46	-0.65	-0.67	

* $p < .05$. ** $p < .01$. *** $p < .001$.

3) 가족 어려움 해결에 대한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 지원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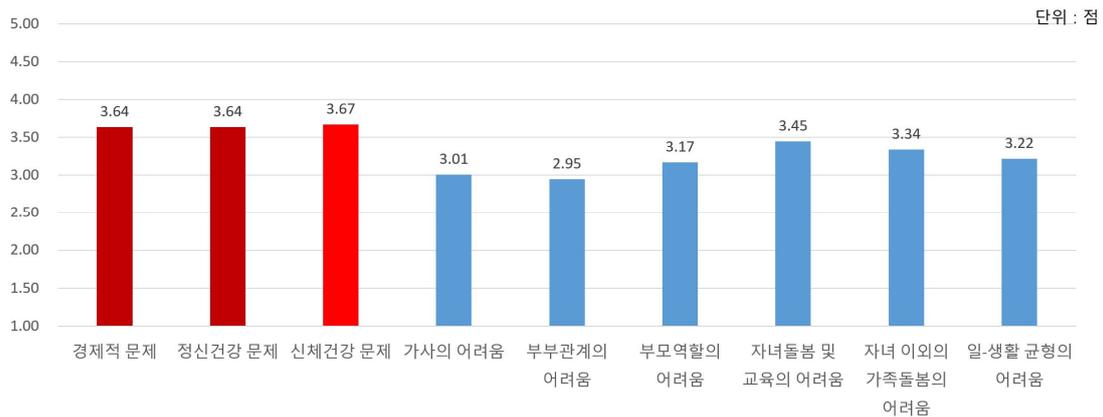
(1) 가족 어려움 해결에 대한 지역사회나 공공기관 지원 필요성의 일반적 경향

가족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아홉 가지의 세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문제, 정신건강 문제, 신체건강 문제, 가사의 어려움, 부부관계의 어려움, 부모역할의 어려움, 자녀 돌봄 및 교육의 어려움, 자녀 이외의 가족돌봄의 어려움,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등이며, 각각에 대해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나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범위: 1-5점)을 확인한 결과는 <표 3-11>과 같다. 조사응답자들은 신체건강 문제(평균 3.67, 표준편차 1.012)에 대해 공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

있고 경제적 문제(평균 3.64, 표준편차 .993)와 정신건강 문제(평균 3.64, 표준편차 1.034)에 대한 공적 지원 필요성 인식이 그 뒤를 이었다. 그다음으로는 자녀돌봄 및 교육의 어려움(평균 3.45, 표준편차 1.179), 자녀 이외의 가족 돌봄의 어려움(평균 3.34, 표준편차 1.127),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평균 3.22, 표준편차 1.017), 부모 역할의 어려움(평균 3.17, 표준편차 1.058), 가사의 어려움(평균 3.01, 표준편차 1.018), 부부 관계의 어려움(평균 2.95, 표준편차 1.018) 순으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앞서 살펴본 조사응답자들의 실제 어려움 순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실제 어려움과 공적 지원 필요성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표 3-11> 가족 어려움 해결에 대한 지역사회나 공공기관 지원 필요성의 일반적 경향 (단위 명 % 점)

유형	정도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경제적 문제	전혀 필요하지 않다	49	3.3	3.64	(.993)
	별로 필요하지 않다	166	11.1		
	보통이다	317	21.1		
	대체로 필요하다	715	47.7		
	매우 필요하다	253	16.9		
정신건강 문제	전혀 필요하지 않다	58	3.9	3.64	(1.034)
	별로 필요하지 않다	168	11.2		
	보통이다	316	21.1		
	대체로 필요하다	671	44.7		
	매우 필요하다	287	19.1		
신체건강 문제	전혀 필요하지 않다	55	3.7	3.67	(1.012)
	별로 필요하지 않다	153	10.2		
	보통이다	303	20.2		
	대체로 필요하다	704	46.9		
	매우 필요하다	285	19.0		
가사의 어려움	전혀 필요하지 않다	118	7.9	3.01	(1.018)
	별로 필요하지 않다	325	21.7		
	보통이다	567	37.8		
	대체로 필요하다	401	26.7		
	매우 필요하다	89	5.9		
부부관계의 어려움	전혀 필요하지 않다	146	9.7	2.95	(1.018)
	별로 필요하지 않다	297	19.8		
	보통이다	619	41.3		
	대체로 필요하다	359	23.9		
	매우 필요하다	79	5.3		
부모역할의 어려움	전혀 필요하지 않다	121	8.1	3.17	(1.058)
	별로 필요하지 않다	243	16.2		
	보통이다	530	35.3		
	대체로 필요하다	477	31.8		
	매우 필요하다	129	8.6		
자녀돌봄 및 교육의 어려움	전혀 필요하지 않다	136	9.1	3.45	(1.179)
	별로 필요하지 않다	181	12.1		
	보통이다	318	21.2		
	대체로 필요하다	598	39.9		
	매우 필요하다	267	17.8		
자녀 이외의 가족돌봄의 어려움	전혀 필요하지 않다	129	8.6	3.34	(1.127)
	별로 필요하지 않다	188	12.5		
	보통이다	434	28.9		
	대체로 필요하다	540	36.0		
	매우 필요하다	209	13.9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전혀 필요하지 않다	88	5.9	3.22	(1.017)
	별로 필요하지 않다	224	14.9		
	보통이다	608	40.5		
	대체로 필요하다	423	28.2		
	매우 필요하다	157	10.5		
합계		1500	100		



[그림 3-5] 가족 어려움 해결에 대한 지역사회나 공공기관 지원 필요성

(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 어려움 해결에 대한 지역사회나 공공기관 지원 필요성 인식

가족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3-12>와 같다. 성별에 따른 인식의 경우,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모든 영역에서 지역사회나 공공기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문제($F = 11.88, p < .001$), 신체건강 문제($F = 8.06, p < .001$), 부부관계의 어려움($F = 13.92, p < .001$), 부모역할의 어려움($F = 23.34, p < .001$), 자녀 이외의 가족돌봄의 어려움($F = 15.04, p < .001$),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F = 18.99, p < .001$)에 대한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 지원의 필요성 인식은 20-50대가 60대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 필요성의 경우 30대가 평균 3.92점으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유의하게 높았다($F = 15.14, p < .001$). 마지막으로 자녀 돌봄 및 교육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인식은 30대와 40대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유의하게 높았다($F = 28.19, p < .001$). 가사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4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 = 6.59, p < .001$).

결혼지위별 차이를 살펴보면, 비혼과 기혼 집단이 이혼 및 사별 집단과 비교해 정신건강 문제($F = 9.05, p < .001$), 부부관계의 어려움($F = 13.83, p < .001$), 부모역할의 어려움($F = 8.28, p < .001$), 자녀 돌봄 및 교육의 어려움($F = 8.60, p < .001$), 자녀 이외의 가족돌봄의 어려움($F = 10.70, p < .001$),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F = 3.75, p < .05$)에 대한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의 지원 필요성을 유의하게 높게 인식하였다.

미성년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미성년자녀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과 비교해 경제적 문제($t = 2.41, p < .05$), 가사의 어려움($t = 2.35, p < .05$), 부부

관계의 어려움($t = 5.04, p < .001$), 부모역할의 어려움($t = 5.42, p < .001$), 자녀 돌봄 및 교육의 어려움($t = 5.27, p < .001$), 자녀 이외 가족돌봄의 어려움($t = 2.22, p < .05$),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t = 4.57, p < .001$)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유의하게 높게 인식하였다.

1인가구 여부의 경우 부부관계의 어려움만 유의하였는데, 다인가구의 지원 필요성 인식이 1인가구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 = -2.62, p < .01$). 지역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 거주 집단이 중소도시 및 농어촌 거주 집단과 비교해 경제적 문제($t = 2.17, p < .05$), 가사의 어려움($t = 2.31, p < .05$), 부부관계의 어려움($t = 2.36, p < .05$), 부모역할의 어려움($t = 2.01, p < .05$),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t = 2.58, p < .05$)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인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3-1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 어려움 해결에 대한 지역사회나 공공기관 지원 필요성 인식

구분		경제적 문제	정신건강 문제	신체건강 문제	가사의 어려움	부부관계의 어려움	부모역할의 어려움	자녀 돌봄 및 교육의 어려움	자녀 이외의 가족돌봄의 어려움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성별	여성	M	3.70	3.73	3.77	3.12	3.08	3.31	3.57	3.51	3.31
		SD	0.95	0.99	0.97	1.01	1.02	1.03	1.17	1.11	0.99
	남성	M	3.57	3.55	3.58	2.91	2.83	3.02	3.34	3.18	3.14
		SD	1.03	1.07	1.05	1.02	1.00	1.06	1.18	1.12	1.04
<i>t</i>		-2.56**	-3.32***	-3.52***	-3.88***	-4.92***	-5.35***	-3.89***	-5.70***	-3.20***	
연령	20대	M	3.78 ^a	3.72 ^{ab}	3.71 ^a	2.93 ^b	3.00 ^a	3.33 ^a	3.61 ^{ab}	3.43 ^a	3.25 ^a
		SD	1.01	1.02	1.04	1.06	1.06	1.14	1.16	1.17	1.00
	30대	M	3.78 ^a	3.92 ^a	3.85 ^a	3.01 ^{ab}	3.14 ^a	3.37 ^a	3.81 ^a	3.53 ^a	3.44 ^a
		SD	1.00	0.95	0.97	1.02	1.01	1.04	1.12	1.05	1.07
	40대	M	3.74 ^a	3.74 ^{ab}	3.73 ^a	3.22 ^a	3.13 ^a	3.36 ^a	3.65 ^a	3.50 ^a	3.41 ^a
		SD	0.87	0.92	0.95	0.93	0.94	0.97	1.02	1.00	0.91
	50대	M	3.61 ^a	3.57 ^b	3.70 ^a	3.05 ^{ab}	2.91 ^a	3.14 ^a	3.36 ^b	3.35 ^a	3.22 ^a
		SD	0.96	0.99	0.96	1.02	0.97	0.98	1.13	1.12	0.97
	60대	M	3.32 ^b	3.30 ^c	3.41 ^b	2.83 ^b	2.62 ^b	2.69 ^b	2.92 ^c	2.93 ^b	2.82 ^b
		SD	1.06	1.18	1.10	1.03	1.03	1.04	1.25	1.19	1.04
	<i>F</i>		11.88***	15.14***	8.06***	6.59***	13.92***	23.34***	28.19***	15.04***	18.99***
	결혼 지위	비혼	M	3.75	3.78 ^a	3.81	3.01	2.94 ^a	3.25 ^a	3.55 ^a	3.44 ^a
SD			0.98	0.96	0.98	1.02	1.04	1.09	1.17	1.11	0.97
기혼		M	3.58	3.59 ^{ab}	3.60	3.03	3.01 ^a	3.16 ^a	3.44 ^a	3.33 ^a	3.22 ^a
		SD	0.98	1.06	1.02	1.01	0.98	1.03	1.16	1.11	1.03
이혼· 사별		M	3.55	3.33 ^b	3.67	2.81	2.37 ^b	2.72 ^b	2.96 ^b	2.80 ^b	2.93 ^b
		SD	1.19	1.14	1.07	1.10	1.15	1.06	1.32	1.28	1.13
<i>F</i>		5.07**	9.05***	7.31**	1.59	13.83***	8.28***	8.60***	10.70***	3.75*	
미성년 자녀 유무	있음	M	3.74	3.69	3.66	3.12	3.18	3.43	3.71	3.45	3.44
		SD	0.92	1.00	1.01	1.00	0.97	0.97	1.01	1.02	1.02
	없음	M	3.60	3.63	3.68	2.98	2.88	3.08	3.37	3.31	3.16
		SD	1.01	1.04	1.01	1.02	1.02	1.07	1.22	1.16	1.01
<i>t</i>		2.41*	1.04	-0.38	2.35*	5.04***	5.42***	5.27***	2.22*	4.57***	

구분		경제적 문제	정신건강 문제	신체건강 문제	가사의 어려움	부부관계의 어려움	부모역할의 어려움	자녀 돌봄 및 교육의 어려움	자녀 이외의 가족돌봄의 어려움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1인 가구 여부	1인	<i>M</i>	3.63	3.67	3.73	2.96	2.81	3.10	3.43	3.34	3.20
	가구	<i>SD</i>	1.04	1.00	0.97	1.02	1.04	1.03	1.14	1.10	0.98
	다인	<i>M</i>	3.64	3.63	3.66	3.02	2.99	3.18	3.46	3.34	3.23
	가구	<i>SD</i>	0.98	1.04	1.02	1.02	1.01	1.06	1.19	1.13	1.03
		<i>t</i>	-0.08	0.51	0.95	-1.00	-2.62**	-1.14	-0.37	-0.06	-0.38
지역유 형	대도시	<i>M</i>	3.69	3.67	3.70	3.07	3.01	3.22	3.49	3.39	3.29
		<i>SD</i>	0.97	1.01	1.00	1.00	0.99	1.04	1.17	1.13	0.98
	중소도 시 및 농어촌	<i>M</i>	3.58	3.61	3.64	2.95	2.89	3.11	3.41	3.29	3.15
		<i>SD</i>	1.02	1.06	1.03	1.03	1.04	1.07	1.19	1.13	1.05
		<i>t</i>	2.17*	1.08	1.22	2.31*	2.36*	2.01*	1.16	1.70	2.58*

* $p < .05$. ** $p < .01$. *** $p < .001$.

4) 가족서비스 이용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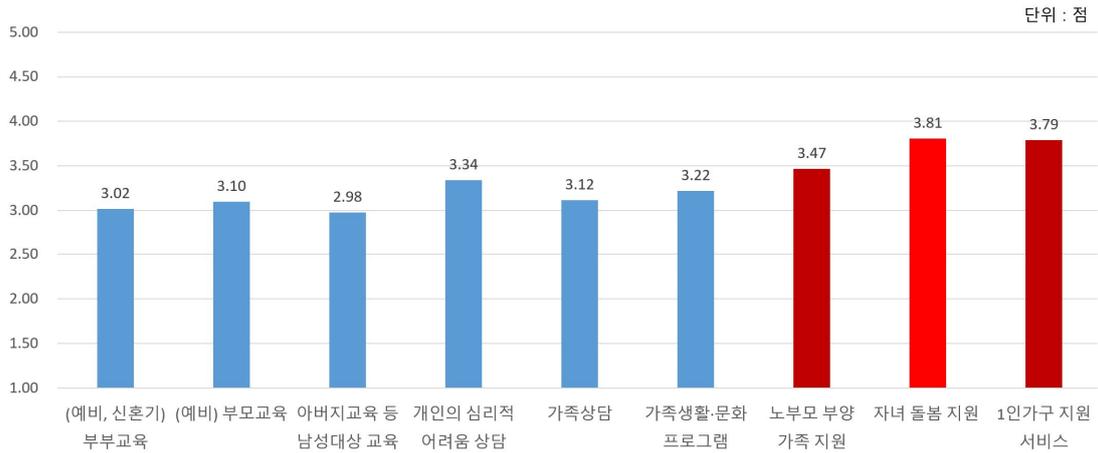
(1) 가족서비스 이용 의향의 일반적 경향

조사응답자들에게 가족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이용할 의향(범위: 1-5점)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의 자녀돌봄지원(평균 3.81점, 표준편차 .940) 이용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살펴본 1인가구 지원 서비스(평균 3.79점, 표준편차 1.159) 이용 의향이 두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이용 의향이 높은 서비스의 순서는 노부모 부양 가족 지원(평균 3.47점, 표준편차 1.175),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 상담(평균 3.34점, 표준편차 1.100), 가족생활·문화프로그램(평균 3.22점, 표준편차 1.124), 가족상담(평균 3.12점, 표준편차 1.146), 부모교육(평균 3.10점, 표준편차 1.213), 부부교육(평균 3.02점, 표준편차 1.092) 순이었으며, 남성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아버지교육 등의 남성대상 교육(평균 2.98점, 표준편차 1.173)은 이용 의향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3> 가족서비스 이용 의향의 일반적 경향

(단위: 명, %, 점)

유형	정도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부부교육	전혀 없다	144	9.6	3.02	(1.092)
	별로 없다	350	23.3		
	보통이다	441	29.4		
	약간 있다	466	31.1		
	많이 있다	99	6.6		
부모교육	전혀 없다	178	11.9	3.10	(1.213)
	별로 없다	309	20.6		
	보통이다	384	25.6		
	약간 있다	439	29.3		
	많이 있다	190	12.7		
아버지교육 등 남성대상 교육 (n = 765명)	전혀 없다	91	6.1	2.98	(1.173)
	별로 없다	187	24.4		
	보통이다	206	26.9		
	약간 있다	208	27.2		
	많이 있다	73	9.5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 상담	전혀 없다	100	6.7	3.34	(1.100)
	별로 없다	242	16.1		
	보통이다	404	26.9		
	약간 있다	557	37.1		
	많이 있다	197	13.1		
가족상담	전혀 없다	152	10.1	3.12	(1.146)
	별로 없다	298	19.9		
	보통이다	424	28.3		
	약간 있다	474	31.6		
	많이 있다	152	10.1		
가족생활·문화 프로그램	전혀 없다	121	8.1	3.22	(1.124)
	별로 없다	273	18.2		
	보통이다	436	29.1		
	약간 있다	490	32.7		
	많이 있다	180	12.0		
노부모 부양 가족 지원	전혀 없다	126	8.4	3.47	(1.175)
	별로 없다	182	12.1		
	보통이다	348	23.2		
	약간 있다	556	37.1		
	많이 있다	288	19.2		
자녀 돌봄 지원 (n = 243명)	전혀 없다	4	1.6	3.81	(.940)
	별로 없다	17	7.0		
	보통이다	60	24.7		
	약간 있다	103	42.4		
	많이 있다	59	24.3		
1인가구 지원 서비스 (n = 284)	전혀 없다	16	5.6	3.79	(1.159)
	별로 없다	27	9.5		
	보통이다	50	17.6		
	약간 있다	100	35.2		
	많이 있다	91	32.0		



[그림 3-6] 가족서비스 이용 의향

(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서비스 이용 의향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서비스 이용 의향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3-14>와 같다. 우선 성별에 따른 가족서비스 이용 의향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부부교육($t = -4.10, p < .001$), 개인상담($t = -5.01, p < .001$), 가족상담($t = -5.13, p < .001$), 노부모 부양가족지원($t = -3.17, p < .01$), 1인가구 지원 서비스($t = -3.49, p < .01$)에 대한 이용 의향이 유의하게 높았다.

연령대별 이용 의향을 살펴보면, 20-40대의 부모교육($F = 20.65, p < .001$)과 아버지교육 등 남성대상 교육($F = 5.99, p < .001$) 이용 의향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유의하게 높았다. 개인상담은 20대의 이용 의향이 가장 높았고($F = 16.12, p < .001$), 가족상담은 60대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유의하게 낮았다($F = 10.42, p < .001$). 가족생활·문화프로그램($F = 4.85, p < .01$)과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F = 13.69, p < .001$)에 대한 40대의 이용 의향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유의하게 높았다. 부부교육은 연령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연령대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결혼지위별 차이를 살펴보면, 부부교육의 경우 기혼 집단의 이용 의향이 비혼이나 이혼 및 사별 집단과 비교해 유의하게 높았다($F = 11.29, p < .001$). 개인상담 및 가족생활·문화프로그램은 결혼지위별 차이가 유의하였으나, 사후검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비혼의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서비스 이용 의향은 평균 3.52점으로 다른 집단보다 이용 의향이 높았다.

미성년자녀 유무에 따른 가족서비스 이용 의향을 살펴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부부교육($t = 3.92, p < .001$), 부모교육($t = 5.24, p < .001$), 아버지교육 등 남성대상 교육($t = 4.96, p < .001$), 가족상담($t = 5.21, p < .001$), 가

족생활·문화프로그램($t = 7.12, p < .001$),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t = 2.06, p < .05$)에 대한 이용 의향이 유의하게 높았다.

1인가구여부에 따른 서비스 이용 의향은 다인가구가 1인가구와 비교해 부부교육($t = -2.78, p < .01$)과 가족생활·문화프로그램($t = -2.38, p < .05$) 참여 의향이 유의하게 높았다.

지역 유형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가족상담($t = 2.66, p < .01$)과 1인가구 지원 서비스($t = 2.78, p < .01$)에 대한 참여 의향이 유의하게 높았다.

<표 3-1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서비스 이용 의향

구분		부부교육	부모교육	아버지교육 등 남성대상 교육 (n = 765)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	가족 상담	가족생활·문화 프로그램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자녀 돌봄 지원 (n = 243)	1인가구 지원 서비스 (n = 284)	
성별	여성	M	3.13	3.16	-	3.48	3.27	3.26	3.56	3.75	4.05
		SD	1.07	1.25	-	1.04	1.12	1.11	1.18	0.99	1.00
	남성	M	2.90	3.04	-	3.20	2.97	3.19	3.37	3.85	3.59
		SD	1.10	1.18	-	1.14	1.15	1.14	1.16	0.90	1.23
t		-4.10***	-1.90		-5.01***	-5.13***	-1.19	-3.17**	0.78	-3.49**	
연령	20대	M	2.91	3.34 ^a	3.09 ^a	3.57 ^a	3.15 ^a	3.18 ^{ab}	3.38 ^b	4.00	4.08
		SD	1.16	1.25	1.26	1.11	1.18	1.22	1.21	0.76	0.98
	30대	M	3.11	3.47 ^a	3.11 ^a	3.50 ^{ab}	3.34 ^a	3.28 ^{ab}	3.59 ^{ab}	3.87	3.64
		SD	1.13	1.21	1.22	1.13	1.13	1.18	1.13	1.02	1.26
	40대	M	3.16	3.21 ^a	3.19 ^a	3.48 ^{ab}	3.25 ^a	3.43 ^a	3.71 ^a	3.79	3.84
		SD	1.07	1.20	1.15	0.99	1.11	1.08	1.00	0.92	1.08
	50대	M	2.98	2.87 ^b	2.92 ^{ab}	3.26 ^b	3.09 ^a	3.17 ^{ab}	3.55 ^{ab}	3.56	3.59
		SD	1.06	1.13	1.10	1.07	1.12	1.07	1.15	0.81	1.19
	60대	M	2.92	2.73 ^b	2.61 ^b	2.95 ^c	2.79 ^b	3.06 ^b	3.08 ^c	-	3.66
		SD	1.05	1.15	1.08	1.11	1.13	1.07	1.28	-	1.31
	F		3.15*	20.65***	5.99***	16.12***	10.42***	4.85**	13.69***	0.63	2.01
	결혼 지위	비혼	M	2.84 ^b	3.14	2.90	3.50	3.05	3.08	3.52	-
SD			1.15	1.27	1.24	1.12	1.19	1.18	1.17	-	1.13
기혼		M	3.12 ^a	3.08	3.02	3.25	3.15	3.31	3.46	-	3.54
		SD	1.04	1.18	1.14	1.07	1.12	1.08	1.17	-	1.21
이혼· 사별		M	2.95 ^{ab}	3.11	3.21	3.33	3.17	3.11	3.19	-	3.73
		SD	1.16	1.23	1.08	1.19	1.18	1.18	1.28	-	1.25
F		11.29***	0.33	1.54	8.87***	1.54	7.26**	2.71	-	0.77	

구분		부부교육	부모교육	아버지교육 등 남성대상 교육 (n = 765)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	가족 상담	가족생활·문화 프로그램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자녀 돌봄 지원 (n = 243)	1인가구 지원 서비스 (n = 284)	
미성년 자녀 유무	있음	M	3.21	3.39	3.32	3.43	3.39	3.58	3.57	-	3.88
		SD	1.00	1.10	1.06	1.03	1.03	1.02	1.02	-	0.99
	없음	M	2.96	3.01	2.86	3.31	3.03	3.11	3.43	-	3.78
		SD	1.11	1.23	1.19	1.12	1.17	1.13	1.22	-	1.17
		t	3.92***	5.24***	4.96***	1.89	5.21***	7.12***	2.06*	-	0.36
1인 가구 여부	1인	M	2.86	3.01	2.91	3.42	3.02	3.08	3.38	-	-
		SD	1.10	1.19	1.20	1.16	1.16	1.12	1.21	-	-
	다인	M	3.06	3.12	3.00	3.32	3.14	3.26	3.48	-	-
		SD	1.09	1.22	1.17	1.08	1.14	1.12	1.17	-	-
		t	-2.78**	-1.42	-0.82	1.42	-1.52	-2.38*	-1.30	-	-
지역 유형	대도시	M	3.06	3.14	3.02	3.39	3.19	3.26	3.51	3.76	3.95
		SD	1.09	1.20	1.19	1.07	1.12	1.08	1.18	0.92	1.06
	중소도 시 및 농어촌	M	2.97	3.06	2.93	3.28	3.03	3.18	3.41	3.85	3.56
		SD	1.10	1.23	1.15	1.13	1.17	1.17	1.17	0.96	1.26
		t	1.66	1.18	1.04	1.96	2.66**	1.45	1.65	-0.74	2.78**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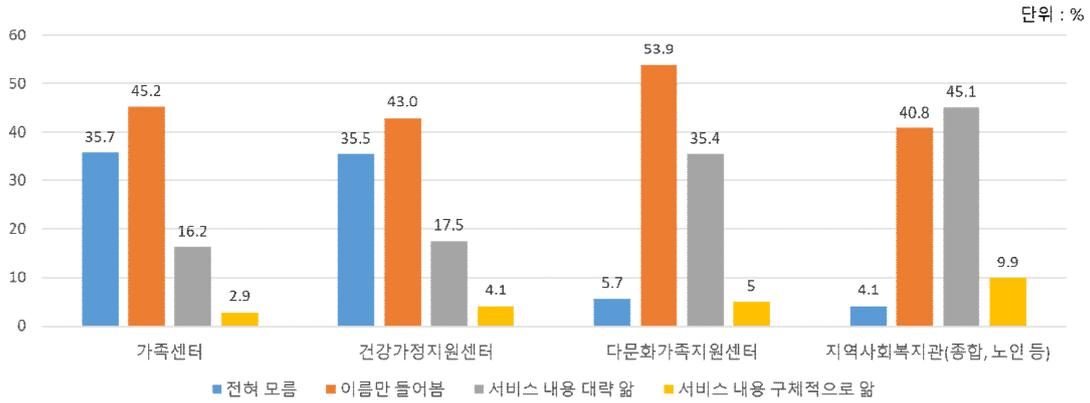
5) 지역사회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인지도

(1) 지역사회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인지도 일반적 경향

조사응답자들의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인지도(범위: 1-4점)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뿐 아니라 지역사회복지관(종합, 노인 등)까지 포함시켜 가족센터 명칭 변경 전후 인지도와 지역사회복지관과의 인지도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름만 들어보았다’ + ‘서비스 내용을 대략 알고 있다’ +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라는 세 가지 항목 합의 비율을 토대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가족센터는 64.3%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64.6%로 가족센터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알고 있는 비율은 94.3%로 가족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비교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관(종합, 노인 등)의 인지도는 95.8%로 가장 높게 나타나, 기관별 인지도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15> 지역사회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인지도 일반적 경향 (단위: 명, %, 점)

유형	정도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가족센터	전혀 모른다	535	35.7	1.86	(.786)
	이름만 들어보았다	678	45.2		
	서비스 내용을 대략 알고 있다	243	16.2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44	2.9		
건강가정지원센터	전혀 모른다	532	35.5	1.90	(.826)
	이름만 들어보았다	645	43.0		
	서비스 내용을 대략 알고 있다	262	17.5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61	4.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혀 모른다	86	5.7	2.40	(.674)
	이름만 들어보았다	808	53.9		
	서비스 내용을 대략 알고 있다	531	35.4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75	5.0		
지역사회복지관 (종합, 노인 등)	전혀 모른다	62	4.1	2.61	(.721)
	이름만 들어보았다	612	40.8		
	서비스 내용을 대략 알고 있다	677	45.1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149	9.9		
합계		1500	100		



[그림 3-7]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인지도

(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인지도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3-16>과 같다. 성별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t = -3.48, p < .01$)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t = -2.72, p < .01$)에 대한 인지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가족센터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대별 인지도를 살펴보면, 60대의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인지도가 세 개의 기관 모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지위의 경우 세 개 기관 모두 결혼지위에 따른 인지도 차이가 유의하였으나, 사후검증에서는 이혼 및 사별 집단의 건강가정지원센터($F = 13.28, p < .001$)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F = 7.84, p < .001$)에 대한 인지도만 다른 집단과 비교해 유의하게 높았다. 미성년자녀 유무, 1인가구 여부, 지역 유형에 따른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인지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3-1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인지도

구분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별	여성	M	1.89	1.98	2.44
		SD	0.79	0.84	0.68
	남성	M	1.84	1.83	2.35
		SD	0.78	0.81	0.67
<i>t</i>		-1.11	-3.48**	-2.72**	
연령	20대	M	1.79 ^b	1.77 ^b	2.30 ^{bc}
		SD	0.79	0.80	0.72
	30대	M	1.73 ^b	1.75 ^b	2.25 ^c
		SD	0.79	0.78	0.65
	40대	M	1.80 ^b	1.84 ^b	2.37 ^{bc}
		SD	0.77	0.84	0.66
	50대	M	1.90 ^{ab}	1.95 ^{ab}	2.44 ^{ab}
		SD	0.78	0.82	0.66
	60대	M	2.06 ^a	2.15 ^a	2.59 ^a
		SD	0.77	0.82	0.64

		<i>F</i>	8.15***	11.61***	11.70***	
결혼 지위	비혼	<i>M</i>	1.75	1.76 ^a	2.30 ^b	
		<i>SD</i>	0.76	0.78	0.68	
	기혼	<i>M</i>	1.92	1.97 ^{ab}	2.44 ^{ab}	
		<i>SD</i>	0.79	0.84	0.66	
	이혼·사별	<i>M</i>	1.95	2.11 ^a	2.51 ^a	
		<i>SD</i>	0.82	0.85	0.72	
		<i>F</i>	8.82***	13.28***	7.84***	
미성년자 녀유무	있음	<i>M</i>	1.87	1.90	2.37	
		<i>SD</i>	0.80	0.84	0.67	
	없음	<i>M</i>	1.86	1.90	2.40	
		<i>SD</i>	0.78	0.82	0.68	
		<i>t</i>	0.04	-0.15	-0.84	
1인가구 여부	1인가구	<i>M</i>	1.81	1.83	2.36	
		<i>SD</i>	0.78	0.83	0.69	
	다인가구	<i>M</i>	1.88	1.92	2.41	
		<i>SD</i>	0.79	0.82	0.67	
			<i>t</i>	-1.37	-1.59	-1.14
	지역유형	대도시	<i>M</i>	1.86	1.87	2.38
<i>SD</i>			0.79	0.82	0.67	
중소도시 및 농어촌		<i>M</i>	1.87	1.93	2.41	
		<i>SD</i>	0.78	0.83	0.68	
			<i>t</i>	-0.25	-1.36	-0.89

* $p < .05$. ** $p < .01$. *** $p < .001$.

6) 가족서비스 및 정책 관련 정보 습득 용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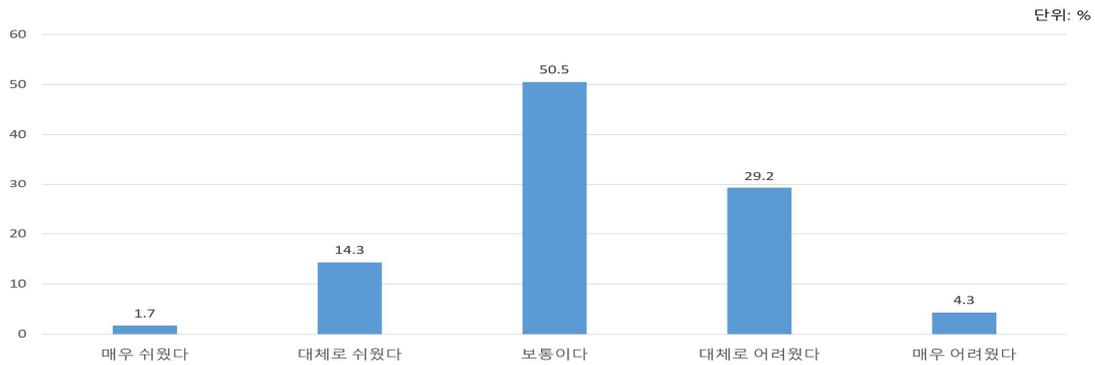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정책 관련 정보는 가족센터의 홍보와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조사응답자들에게 가족서비스나 정책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의 용이성(범위: 1-5점)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50.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어렵다(대체로 어려웠다+매우 어려웠다)’ 33.5%, ‘쉬웠다(대체로 쉬웠다+매우 쉬웠다)’ 16.0%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7> 가족서비스 및 정책 관련 정보 습득 용이성

(단위: 명, %, 점)

유형	정도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가족 서비스 및 정책 관련 정보 습득 용이성	매우 쉬웠다	20	1.7	3.20	(.796)
	대체로 쉬웠다	173	14.3		
	보통이다	609	50.5		
	대체로 어려웠다	353	29.2		
	매우 어려웠다	52	4.3		
합계		1207	100		

주: “서비스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293명을 제외한 응답자



[그림 3-8] 가족서비스 및 정책 관련 정보 습득 용이성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정보 습득 용이성을 살펴본 결과, 연령과 미성년자녀 유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3-18> 참조). 30대와 40대의 평균이 각각 3.33점(표준편차 .79)과 3.32점(표준편차 .80)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유의하게 높아 정보 획득의 어려움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F = 5.44, p < .001$). 이와 함께 미성년자녀가 있는 집단이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정보습득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 = -2.43, p < .05$).

<표 3-1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서비스 및 정책 관련 정보 습득 용이성

구분		가족서비스 및 정책 관련 정보 습득 용이성	
성별	여성	M	3.23
		SD	0.78
	남성	M	3.18
		SD	0.81
<i>t</i>			-1.15
연령	20대	M	3.15 ^{ab}
		SD	0.79
	30대	M	3.33 ^a
		SD	0.79
	40대	M	3.32 ^a
		SD	0.80
	50대	M	3.18 ^{ab}
		SD	0.83
	60대	M	3.05 ^b
		SD	0.74
<i>F</i>			5.44 ^{***}
결혼 지위	비혼	M	3.23
		SD	0.76
	기혼	M	3.19
		SD	0.81
	이혼·사별	M	3.15
		SD	0.92
<i>F</i>			0.39

미성년자녀 유무	있음	M	3.30
		SD	0.87
	없음	M	3.17
		SD	0.77
		t	2.43*
1인가구 여부	1인 가구	M	3.23
		SD	0.81
	다인 가구	M	3.19
		SD	0.79
		t	0.66
지역유형	대도시	M	3.23
		SD	0.79
	중소도시 및 농어촌	M	3.17
		SD	0.81
		t	1.22

* $p < .05$. ** $p < .01$. *** $p < .001$.

주: “서비스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293명을 제외한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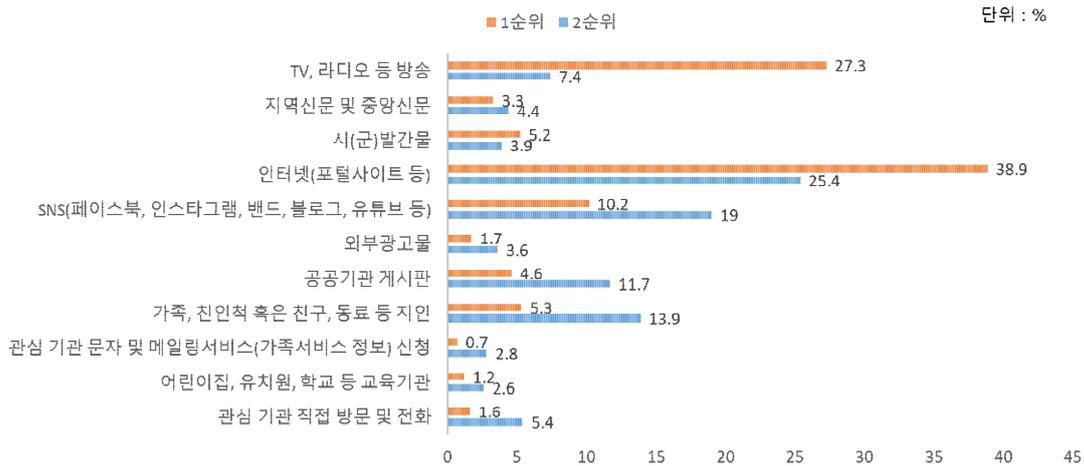
7) 가족서비스 및 정책정보 습득 방법

조사응답자들에게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정책 관련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방법 1순위를 확인한 결과 인터넷(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다음으로 TV 및 라디오,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밴드, 블로그, 유튜브 등) 순으로 파악되었다.

<표 3-19> 가족서비스 및 정책정보 습득 방법 (단위: 명, %)

유형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가족서비스 및 정책정보 습득 방법	TV, 라디오 등 방송	329	27.3	89	7.4	
	지역신문 및 중앙신문	40	3.3	53	4.4	
	시(군)발간물	63	5.2	47	3.9	
	인터넷(포털사이트 등)	470	38.9	307	25.4	
	SNS	123	10.2	229	19.0	
	외부광고물	21	1.7	43	3.6	
	공공기관 게시판	56	4.6	141	11.7	
	가족, 친인척 혹은 친구, 동료 등 지인	64	5.3	168	13.9	
	관심 기관 문자 및 메일링서비스	8	0.7	34	2.8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	14	1.2	31	2.6	
	관심 기관 직접 방문 및 전화	19	1.6	65	5.4	
	합계		1207	100	1207	100

주: 가족서비스나 정책 관련 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는 응답자 1,20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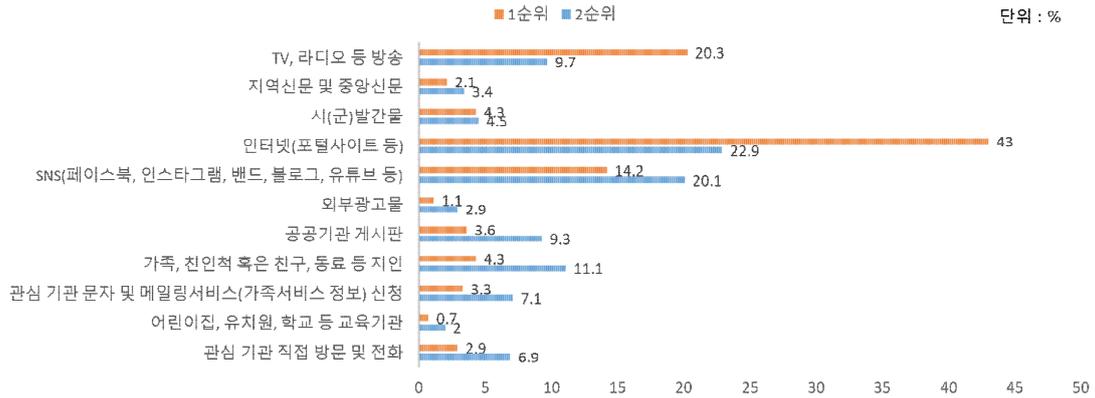
[그림 3-9] 가족서비스 및 정책 관련 정보 습득 방법

8) 가족서비스 및 정책정보 습득 선호방법

조사응답자들에게 현재 이용방법과 달리 가족서비스 및 정책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선호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현재 이용방법과 동일하게 인터넷(포털사이트 등)을 통한 습득을 가장 선호하였고 그다음은 TV 및 라디오,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밴드, 블로그, 유튜브 등)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자들은 가족 서비스 및 정책 관련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접근하기 편한 방법을 실제로 이용하고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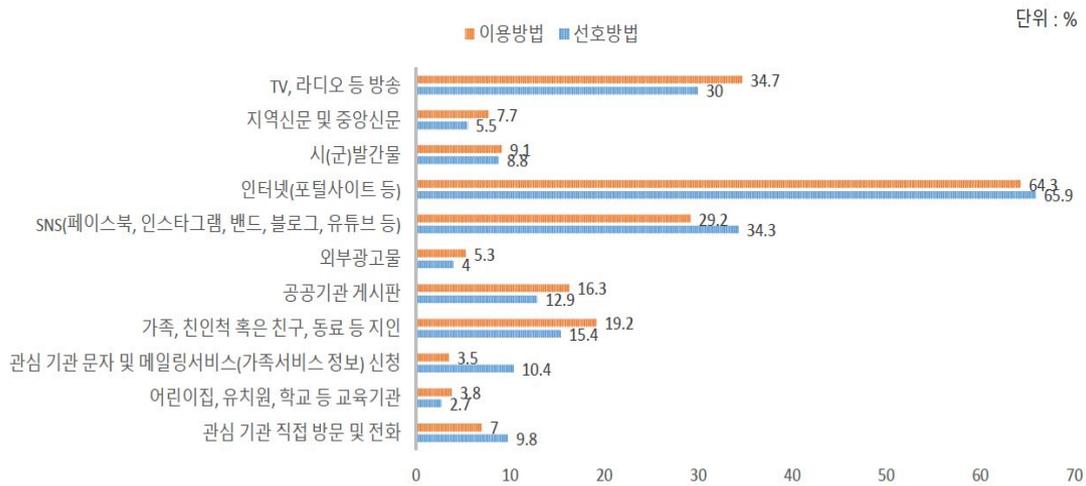
<표 3-20> 가족서비스 및 정책정보 습득 선호방법 (단위: 명, %)

유형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가족서비스 및 정책정보 습득 선호방법	TV, 라디오 등 방송	305	20.3	146	9.7
	지역신문 및 중앙신문	32	2.1	51	3.4
	시(군)발간물	65	4.3	68	4.5
	인터넷(포털사이트 등)	645	43.0	343	22.9
	SNS	213	14.2	302	20.1
	외부광고물	17	1.1	43	2.9
	공공기관 게시판	54	3.6	140	9.3
	가족, 친인척 혹은 친구, 동료 등 지인	65	4.3	167	11.1
	관심 기관 문자 및 메일링서비스	50	3.3	106	7.1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	10	0.7	30	2.0
	관심 기관 직접 방문 및 전화	44	2.9	104	6.9
	합계	1500	100	1500	100



[그림 3-10] 가족서비스 및 정책 관련 정보 습득 선호방법

조사응답자들의 현재 이용방법과 선호방법 1순위와 2순위의 합을 비교한 결과 ([그림 3-11] 참조),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방법인 포털사이트 등의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 습득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현재에는 TV나 라디오 등의 방송을 통한 정보 습득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던 것과 달리, SNS를 통한 가족서비스 및 정책 정보 습득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1] 가족서비스 및 정책 관련 정보 습득 현재 이용방법과 선호방법 비교

9) 가족서비스 이용 장애요인 인식

(1) 가족서비스 이용 장애요인 인식의 일반적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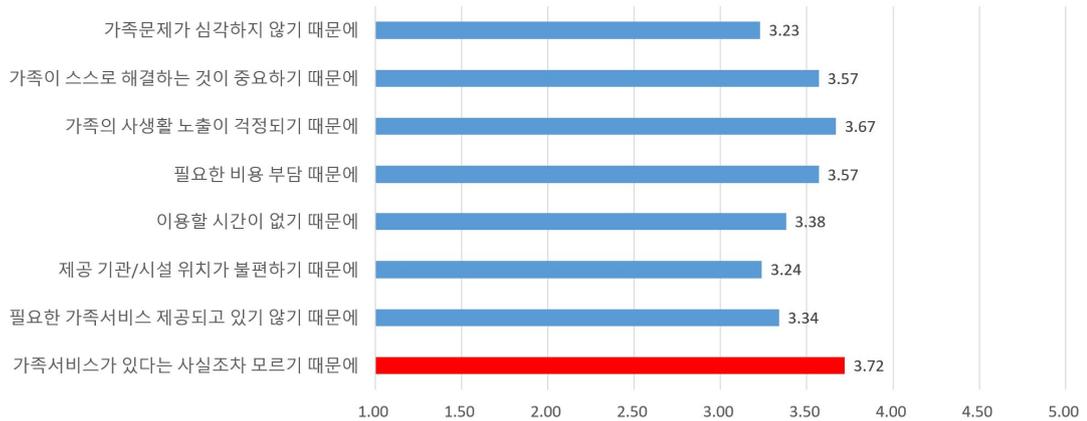
조사응답자들에게 가족서비스 이용의 장애요인(범위: 1-5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장애요인은 크게 가족문제에 대한 인식, 가족서비스 이용을 위한 물리적 조

건, 가족서비스에 대한 인식으로 범주화하여 그 안에 세부 내용을 구성하였다. 가족 문제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이용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가치, 태도, 인식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가족서비스를 받을 만큼 가족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에게 발생하는 어려움은 가족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족의 사생활 노출이 걱정되기 때문에’로 구성되었다. 물리적인 조건은 비용 부담, 시간 부족, 기관 위치의 접근성 문제 등이 포함되었고, 서비스에 대한 인식은 ‘가족에게 필요한 가족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와 ‘가족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여덟 가지의 모든 문항에서 보통 이상의 동의 수준이 확인되었고, 특히 ‘가족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평균 3.72점, 표준편차 1.032)에 대한 동의 수준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족의 사생활 노출이 걱정되기 때문에’(평균 3.67점, 표준편차 .970)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가족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평균 3.57점, 표준편차 .879),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부담 때문에’(평균 3.57점, 표준편차 .994), ‘이용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평균 3.38점, 표준편차 .938), ‘필요한 가족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평균 3.34점, 표준편차 .875), ‘제공하는 기관이나 시설의 위치가 불편하기 때문에’(평균 3.24점, 표준편차 .901), ‘가족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평균 3.23점, 표준편차 .981) 순으로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가족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를 가족서비스 이용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이야기한 결과를 통해 가족센터의 서비스 홍보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1> 가족서비스 이용 장애요인 인식의 일반적 경향 (단위: 명, %, 점)

유형	정도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지역사회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62	4.1	3.23	(.981)
가족서비스를 받을	별로 그렇지 않다	303	20.2		
만큼 가족문제가	보통이다	472	31.5	3.57	(.879)
심각하지 않기	대체로 그렇다	561	37.4		
때문에	매우 그렇다	102	6.8	3.67	(.970)
가족에서 발생하는	전혀 그렇지 않다	33	2.2		
어려움은 가족이	별로 그렇지 않다	157	10.5	3.57	(.994)
스스로 해결하는	보통이다	373	24.9		
것이 중요하다고	대체로 그렇다	798	53.2	3.38	(.938)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그렇다	139	9.3		
가족서비스를	전혀 그렇지 않다	36	2.4	3.38	(.938)
이용할 경우 가족의	별로 그렇지 않다	154	10.3		
사생활 노출이	보통이다	360	24.0	3.24	(.901)
걱정되기 때문에	대체로 그렇다	673	44.9		
	매우 그렇다	277	18.5	3.24	(.901)
가족 관련 서비스를	전혀 그렇지 않다	31	2.1		
이용하는데 필요한	별로 그렇지 않다	175	11.7	3.34	(.875)
비용 부담 때문에	보통이다	421	28.1		
	대체로 그렇다	657	43.8	3.72	(1.032)
	매우 그렇다	216	14.4		
가족서비스를	전혀 그렇지 않다	38	2.5	3.72	(1.032)
이용할 시간이 없기	별로 그렇지 않다	212	14.1		
때문에	보통이다	552	36.8	3.72	(1.032)
	대체로 그렇다	541	36.1		
	매우 그렇다	157	10.5	3.72	(1.032)
가족서비스를	전혀 그렇지 않다	38	2.5		
제공하는 기관이나	별로 그렇지 않다	241	16.1	3.72	(1.032)
시설의 위치가	보통이다	660	44.0		
불편하기 때문에	대체로 그렇다	444	29.6	3.72	(1.032)
	매우 그렇다	117	7.8		
가족에게 필요한	전혀 그렇지 않다	26	1.7	3.72	(1.032)
가족서비스가	별로 그렇지 않다	192	12.8		
제공되고 있지 않기	보통이다	656	43.7	3.72	(1.032)
때문에	대체로 그렇다	492	32.8		
	매우 그렇다	134	8.9	3.72	(1.032)
가족서비스가	전혀 그렇지 않다	47	3.1		
있다는 사실조차	별로 그렇지 않다	136	9.1	3.72	(1.032)
모르기 때문에	보통이다	380	25.3		
	대체로 그렇다	567	37.8	3.72	(1.032)
	매우 그렇다	370	24.7		
합계		1500	100		

단위: 점



[그림 3-12] 가족서비스 이용 장애요인 인식

(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서비스 이용 장애요인 인식

가족서비스 이용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을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3-22>와 같다. 성별에 따른 장애요인 인식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족의 사생활 노출이 걱정되기 때문에’ ($t = -3.61, p < .001$), ‘가족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부담 때문에’ ($t = -3.82, p < .001$), ‘가족서비스를 이용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t = -3.33, p < .01$), ‘가족에게 필요한 가족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t = -2.26, p < .05$) 등의 문항에 동의하는 응답 평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정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에서 가족서비스를 받을 만큼 가족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항의 경우 60대의 동의 수준이 평균 3.52점으로 가장 높았고, 30대는 평균 2.99점으로 동의 수준이 가장 낮았다($F = 12.23, p < .001$). ‘가족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가족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항의 경우 60대의 동의 수준이 평균 3.7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대가 평균 3.6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F = 6.38, p < .001$). ‘가족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부담 때문에’ 문항을 살펴보면 60대와 비교해 20-50대의 동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F = 15.12, p < .001$). ‘가족서비스를 이용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항의 경우 20대와 30대의 동의 수준이 각각 평균 3.69점, 평균 3.66점으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유의하게 높았다($F = 36.36, p < .001$).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시설의 위치가 불편하기 때문에’ ($F = 7.29, p < .001$)와 ‘가족에게 필요한 가족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F = 6.72, p < .001$) 문항의 경우 30대와 40대의 동의 수준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유의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가족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문항의 경우 20대의 동의 수준이 평균 4.04점으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유의하게 높았다($F = 20.94, p < .001$).

결혼지위별 차이를 살펴보면, ‘가족서비스를 이용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F = 14.56, p < .001$)와 ‘가족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F = 13.36, p < .001$) 문항에서 비혼 집단의 동의 수준이 다른 집단과 비교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가족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부담 때문에’ 는 결혼지별 차이는 유의하였으나, 사후검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미성년자녀 유무를 살펴보면, 미성년자녀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과 비교해 ‘가족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족의 사생활 노출이 걱정되기 때문에’ ($t = 2.74, p < .01$), ‘가족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부담 때문에’ ($t = 2.67, p < .01$), ‘가족서비스를 이용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t = 3.18, p < .01$),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시설의 위치가 불편하기 때문에’ ($t = 2.84, p < .01$)와 ‘가족에게 필요한 가족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t = 2.89, p < .01$) 문항에 대한 동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1인가구 여부의 경우, 1인가구가 다인가구와 비교해 ‘가족서비스를 이용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t = 2.23, p < .05$) 문항에 대한 동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지역 유형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가족서비스를 받을 만큼 가족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항은 중소도시 및 농어촌이 대도시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으나($t = -3.28, p < .01$), ‘가족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문항의 경우 대도시 거주 집단의 응답 수준(평균 3.77점)이 중소도시 및 농어촌(평균 3.66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 = 2.03, p < .05$).

<표 3-2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서비스 이용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구분			지역사회에서	가족에서	가족서비스를		가족서비스를	가족에게	가족서비스가		
			가족서비스를	발생하는	이용할 경우	가족 관련	이용할	제공하는	필요한	있다는	
			받을 만큼	어려움은 가족이	가족의	서비스를	가족서비스를	가족서비스가	사실조차		
			가족문제가	스스로 해결하는	사생활	이용하는데	이용할	제공되고	모르기		
			심각하지	것이 중요하다고	노출이	필요한 비용	시간이 없기	있지 않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되기	부담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제공하는				
							기관이나				
							시설의				
							위치가				
							불편하기				
							때문에				
성별	여성	M	3.20	3.55	3.76	3.66	3.46	3.29	3.40	3.74	
		SD	1.00	0.92	0.97	0.93	0.92	0.90	0.88	1.04	
	남성	M	3.25	3.59	3.58	3.48	3.30	3.20	3.29	3.70	
		SD	0.97	0.83	0.96	0.95	0.95	0.90	0.87	1.02	
	t		0.88	0.82	-3.61***	-3.82***	-3.33**	-1.96	-2.26*	-0.81	
연령	20대	M	3.29 ^{ab}	3.65 ^{ab}	3.73	3.73 ^a	3.69 ^a	3.26 ^{ab}	3.33 ^{ab}	4.04 ^a	
		SD	0.98	0.96	1.04	0.92	0.95	0.98	0.89	0.91	
	30대	M	2.99 ^c	3.47 ^b	3.76	3.72 ^a	3.66 ^a	3.43 ^a	3.47 ^a	3.94 ^{ab}	
		SD	1.03	0.91	1.07	0.99	0.91	0.93	0.94	0.97	
	40대	M	3.12 ^{bc}	3.47 ^b	3.64	3.67 ^a	3.47 ^{ab}	3.29 ^a	3.44 ^a	3.77 ^{bc}	
		SD	1.00	0.86	0.92	0.88	0.90	0.87	0.82	1.00	
	50대	M	3.20 ^{bc}	3.51 ^b	3.70	3.54 ^a	3.24 ^b	3.21 ^{ab}	3.35 ^{ab}	3.58 ^{cd}	
		SD	0.91	0.84	0.90	0.88	0.83	0.81	0.79	1.02	
	60대	M	3.52 ^a	3.75 ^a	3.53	3.23 ^b	2.93 ^c	3.04 ^b	3.14 ^b	3.36 ^d	
		SD	0.93	0.81	0.93	0.97	0.910	0.91	0.92	1.09	
		F		12.23***	6.38***	2.70*	15.12***	36.36***	7.29***	6.72***	20.94***
	결혼 지위	비혼	M	3.14	3.52	3.66	3.67	3.55 ^a	3.29	3.37	3.91 ^a
SD			0.97	0.94	1.04	0.93	0.91	0.94	0.89	0.98	
기혼		M	3.27	3.60	3.67	3.51	3.28 ^b	3.20	3.33	3.62 ^b	
		SD	0.99	0.84	0.94	0.94	0.94	0.87	0.86	1.04	
이혼· 사별		M	3.28	3.53	3.68	3.63	3.35 ^{ab}	3.33	3.27	3.65 ^{ab}	
		SD	0.88	0.88	0.92	1.00	0.94	0.92	1.02	1.15	
	F		3.10*	1.20	0.01	5.10**	14.56***	2.17	0.66	13.36***	

구분			지역사회에서	가족에서	가족서비스를	가족 관련	가족서비스를	가족서비스를	가족에게	가족서비스가
			가족서비스를	발생하는	이용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요한	가족서비스가	있다는
			받을 만큼	어려움은 가족이	가족의	이용하는데	이용할	기관이나	필요한	있다는
			가족문제가	스스로 해결하는	사생활	필요한 비용	시간이 없기	시설의	가족서비스가	사실조차
			심각하지	것이 중요하다고	노출이	부담 때문에	때문에	위치가	제공되고	모르기
			않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되기			불편하기	있지 않기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미성년	있음	M	3.16	3.55	3.78	3.68	3.51	3.36	3.46	3.77
		SD	1.02	0.84	0.87	0.89	0.95	0.88	0.88	1.02
자녀	없음	M	3.25	3.57	3.63	3.53	3.33	3.20	3.31	3.70
		SD	0.97	0.89	1.00	0.96	0.93	0.90	0.87	1.04
		t	-1.41	-0.34	2.74**	2.67**	3.18**	2.84**	2.89**	1.09
1인	1인가구	M	3.15	3.49	3.70	3.63	3.49	3.28	3.37	3.79
		SD	0.95	0.97	0.99	0.91	0.90	0.95	0.90	0.99
가구	다인가구	M	3.24	3.59	3.66	3.55	3.35	3.23	3.34	3.70
		SD	0.99	0.86	0.97	0.95	0.95	0.89	0.87	1.04
		t	-1.45	-1.56	0.58	1.31	2.23*	0.75	0.55	1.35
지역	대도시	M	3.15	3.56	3.68	3.59	3.41	3.27	3.38	3.77
		SD	0.99	0.90	0.95	0.93	0.92	0.89	0.85	1.00
유형	중소도시	M	3.31	3.58	3.65	3.55	3.34	3.21	3.30	3.66
		SD	0.96	0.85	0.99	0.96	0.96	0.92	0.90	1.06
		t	-3.28**	-0.39	0.54	0.87	1.30	1.31	1.82	2.03*

* $p < .05$. ** $p < .01$. *** $p < .001$.

10) 소결

이상과 같이 본 절에서는 조사응답자들의 가족 대상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사응답자들은 가족관계나 생활상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기보다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어렵지만 참는 등의 개인적인 대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50대 이상, 이혼·사별,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족인 경우에 개인적인 대처의 정도가 더 높았다. 그리고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 중 신체건강, 경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공공기관 지원 필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 세 가지 어려움에서 여성의 필요성 인식이 높았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30대가 공공기관 지원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가족센터 및 가족서비스 이용 의향의 경우, 조사응답자들의 62%가 가족센터를 이용할 의향이 있고 특히 자녀돌봄지원, 1인가구 지원, 노부모부양가족지원 등의 서비스에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실제 가족센터를 인지하는 정도는 ‘이름만 들어본’ 수준으로 높지 않았다. 이에 가족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가족서비스 미인지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가족사생활 노출 걱정 때문에’, ‘가족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등의 응답도 많았다. 특히 20대의 경우 가족서비스 미인지 정도가 가장 높았고 여성은 가족사생활 노출 걱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대상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었고 가족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족센터의 인지 정도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가족센터 및 가족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정책요구도

본 절에서는 가족센터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센터와 가족센터가 제공하는 가족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살펴보고 세부 서비스별 요구도를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가족센터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는 가족센터를 떠올렸을 때 연상되는 서비스 대상과 내용, 가족센터 이용 경험 및 이용 횟수, 향후 가족센터 이용 의향, 가족센터 관련 홍보물 경험 여부, 가족센터를 알게 된 경로 등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가족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정책 요구도는 개별 가족서비스 인지 여부 및 가족서비스 요구도, 서비스별 이용 경험 및 서비스를 받은 기관,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제공 희망기관과 각 기관별 선호 이유 등을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센터 연상 서비스 대상

조사응답자들에게 가족센터라는 기관 명칭을 들었을 때 연상되는 서비스 대상이 누구인지 질문한 결과, 가족센터의 설립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서비스 대상인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이 7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5순위까지의 결과를 보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족(48.9%), 다문화가족(45.5%),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43.4%), 환자나 장애가 있는 구성원이 있는 가족(39.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혈연가족(8.5%)이나 청년1인가구(11.7%)에 대한 응답 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형	구분	빈도	비율
가족센터 연상 서비스 대상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	1067	71.1
	자녀 양육기 가족	479	31.9
	자녀 없이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족	289	19.3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651	43.4
	다문화가족	682	45.5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족	733	48.9
	맞벌이 가족	339	22.6
	환자나 장애가 있는 구성원이 있는 가족	598	39.9
	청년1인가구	175	11.7
	노인1인가구	418	27.9
	비혈연가족	128	8.5
	기타	0	0
	합계	5559	

2) 가족센터 연상 서비스 내용

조사응답자들에게 가족센터라는 기관 명칭을 들었을 때 연상되는 서비스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그 결과, 가족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대부분에 고르게 응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 부부상담, 부모자녀 상담 등의 가족상담(60.9%)에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이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사업(58.8%),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맞춤형 지원(57%),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자녀돌봄지원(56.9%)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4> 가족센터 연상 서비스 내용 (중복응답)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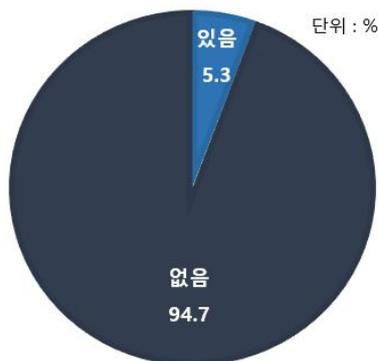
유형	구분	빈도	비율
가족센터 연상 서비스	부모교육, 아버지 교육, 예비/신혼부부 교육 등 가족교육	660	44.0
	부부상담, 부모자녀 상담 등 가족상담 가족사랑의 날, 가족봉사단, 가족체험활동 등 가족문화 프로그램	913	60.9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자녀돌봄지원	640	42.7
	다문화가족지원사업	853	56.9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맞춤형 지원	882	58.8
	긴급위기지원, 재난상황 가족지원, 생활도움 등 취약위기가족지원	855	57.0
	가족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정보 제공	804	53.6
	가족돌봄(노인, 장애인 등) 지원	746	49.7
	기타	789	52.6
		3	0.2
	합계	7145	

3) 가족센터 이용 경험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하고 있는 조사응답자들에게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함) 이용 경험을 확인한 결과 5.3%만이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94.7%는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5> 가족센터 이용 경험 (단위: 명, %)

유형	구분	빈도	비율
가족센터 이용 경험	예	80	5.3
	아니오	1436	94.7
합계		1500	100



[그림 3-13] 가족센터 이용 경험

4) 지난 1년간 가족센터 이용 횟수

가족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80명의 조사응답자들에게 지난 1년간 가족센터를 이용한 횟수를 질문한 결과 ‘지난 1년간은 이용하지 않았다’가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다음으로 일년에 1회가 28.7%, 일년에 2-6회가 21.3% 순으로 나타나 조사응답자들의 가족센터 이용 간격이 크거나 지속적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26> 지난 1년간 가족센터 이용 횟수 (단위: 명, %)

유형	구분	빈도	비율
가족센터 이용 횟수	지난 1년간은 이용하지 않았다	32	40.0
	일년에 1회	23	28.7
	일년에 2-6회	17	21.3
	한달에 1회 이상	5	6.3
	한달에 2회 이상	3	3.8
합계		8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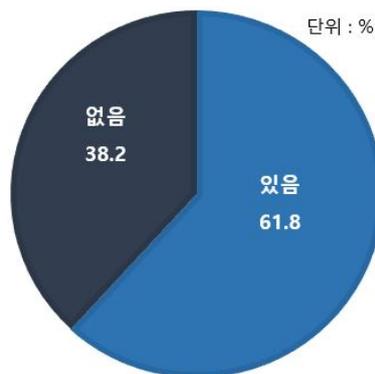
주: 가족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80명

5) 향후 가족센터 이용의향

모든 조사응답자들에게 향후 가족센터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61.8%로 높게 나타났다.

<표 3-27> 향후 가족센터 이용의향 (단위: 명, %)

유형	구분	빈도	비율
가족센터 이용의향	예	927	61.8
	아니오	573	38.2
합계		1500	100



[그림 3-14] 가족센터 이용 의향

가족센터 이용 의향을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3-28>과 같다. 성별, 연령, 결혼지위, 미성년자녀유무, 1인가구 여부, 지역유형별 가족센터 이용의향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28>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센터 이용 의향

구분			향후 가족센터 이용의향	
			있다	없다
성별	여성	<i>n</i>	468	267
		%	63.7	36.3
	남성	<i>n</i>	459	306
		%	60.0	40.0
		χ^2	2.14	
연령대별	20대	<i>n</i>	151	100
		%	60.2	39.8
	30대	<i>n</i>	173	95
		%	64.6	35.4
	40대	<i>n</i>	209	114
		%	64.7	35.3
	50대	<i>n</i>	210	138
		%	60.3	39.7
	60대	<i>n</i>	184	126
		%	59.4	40.6
		χ^2	3.40	
결혼 지위	비혼	<i>n</i>	310	209
		%	59.7	40.3
	기혼	<i>n</i>	571	335
		%	63.0	37.0
	이혼·사별	<i>n</i>	46	29
		%	61.3	38.7
		χ^2	1.52	
미성년자녀 유무	있음	<i>n</i>	237	127
		%	65.1	34.9
	없음	<i>n</i>	690	446
		%	60.7	39.3
		χ^2	2.23	
1인가구 여부	1인 가구	<i>n</i>	164	120
		%	57.7	42.3
	다인가구	<i>n</i>	763	453
		%	62.7	37.3
		χ^2	2.44	
지역유형	대도시	<i>n</i>	510	293
		%	63.5	36.5
	중소도시 및 농어촌	<i>n</i>	417	280
		%	59.8	40.2
		χ^2	2.15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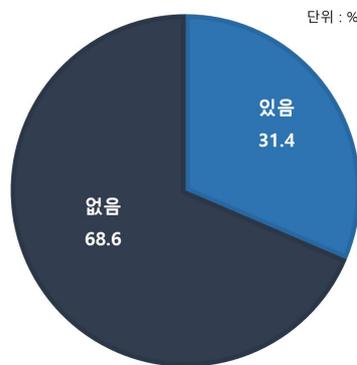
6) 가족센터 관련 홍보물 경험 여부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하고 있는 조사응답자들에게 가족센터 관련 홍보물(버스 및 지하철, TV광고, 브로슈어,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홍보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한 결과, 홍보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68.6%로 홍보물을 경험한 사람 31.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9> 가족센터 관련 홍보물 경험 여부 (단위: 명, %)

유형	구분	빈도	비율
가족센터 관련 홍보물 경험 여부	예	451	31.4
	아니오	985	68.6
합계		1436	100

주: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름만 들어보았다’, ‘서비스 내용을 대략 알고 있다’,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그림 3-15] 가족센터 관련 홍보물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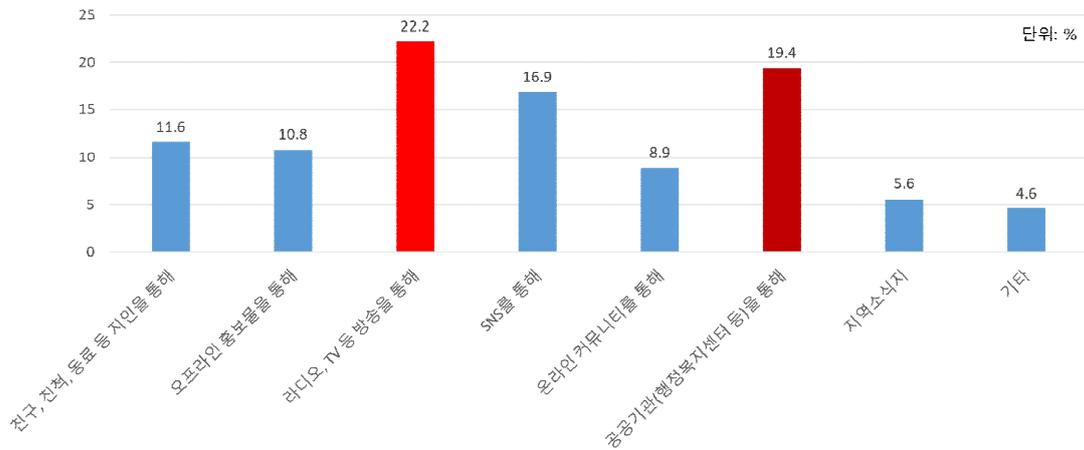
7) 가족센터를 알게 된 경로

조사응답자들에게 가족센터를 알게 된 경로를 확인한 결과, ‘라디오, TV 등 방송을 통해’가 22.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공공기관(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19.4%)’,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등)를 통해 (16.9%)’, ‘친구, 친척, 동료 등 지인을 통해(11.6%)’, ‘가족센터 현판,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책자 등 오프라인 홍보물을 통해(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0> 가족센터를 알게 된 경로 (단위: 명, %)

유형	구분	빈도	비율
가족센터를 알게 된 경로	친구, 친척, 동료 등 지인을 통해	167	11.6
	가족센터 현판,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책자 등 오프라인 홍보물을 통해	155	10.8
	라디오, TV 등 방송을 통해	319	22.2
	SNS를 통해	242	16.9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128	8.9
	공공기관(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278	19.4
	지역소식지	81	5.6
	기타	66	4.6
합계		1436	100

주: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름만 들어보았다', '서비스 내용을 대략 알고 있다',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그림 3-16] 가족센터를 알게 된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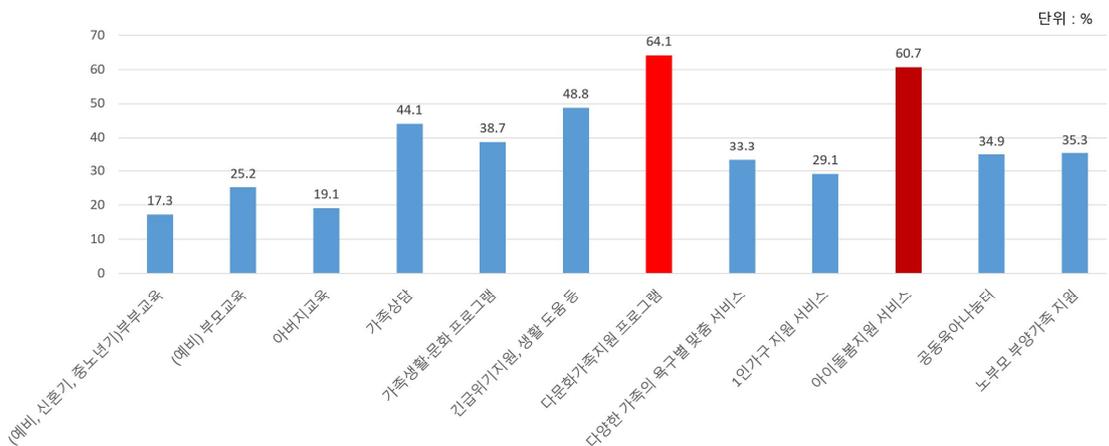
8) 가족서비스 인지도

(1) 가족서비스별 인지도의 일반적 경향

조사응답자들에게 가족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별 가족서비스 인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64.1%)에 대한 인지 정도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아이돌보미지원 서비스(60.7%), 긴급위기지원 및 생활도움(48.8%), 부부상담, 자녀상담, 이혼 전후 상담 등 가족상담(44.1%) 순으로 나타났다. 인지도가 낮은 가족서비스를 살펴보면 (예비, 신혼기, 중노년기) 부부교육 인지도가 17.3%로 가장 낮았고, 아버지 교육(19.1%), (예비)부모교육(25.2%), 1인가구 지원서비스(29.1%) 등에 대한 인지도도 낮게 나타났다.

<표 3-31> 가족서비스별 인지도의 일반적 경향 (단위: 명, %)

유형	구분	빈도	비율
(예비, 신혼기, 중노년기) 부부교육	알고 있다	260	17.3
	모르고 있다	1240	82.7
(예비) 부모교육	알고 있다	378	25.2
	모르고 있다	1122	74.8
아버지교육	알고 있다	287	19.1
	모르고 있다	1213	80.9
부부상담, 자녀상담, 이혼 전후 상담 등 가족상담	알고 있다	662	44.1
	모르고 있다	838	55.9
가족캠프, 가족체험활동, 가족봉사단, 가족사랑의 날 등 가족생활·문화 프로그램	알고 있다	580	38.7
	모르고 있다	920	61.3
긴급위기지원, 생활 도움 등	알고 있다	732	48.8
	모르고 있다	768	51.2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알고 있다	961	64.1
	모르고 있다	539	35.9
다양한 가족의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등)	알고 있다	500	33.3
	모르고 있다	1000	66.7
1인가구 지원 서비스	알고 있다	437	29.1
	모르고 있다	1063	70.9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알고 있다	911	60.7
	모르고 있다	589	39.3
공동육아나눔	알고 있다	523	34.9
	모르고 있다	977	65.1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알고 있다	530	35.3
	모르고 있다	970	64.7
합계		1500	100



[그림 3-17] 가족서비스별 인지도

(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서비스 인지도

가족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가족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본 교차분석 결과는 아래 <표 3-32>와 같다.

성별 가족서비스 인지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모든 영역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가족서비스 인지도 차이를 살펴보면, ‘아버지교육’ ($\chi^2 = 35.52, p < .001$), ‘긴급위기지원, 생활도움 등’ ($\chi^2 = 20.89, p < .001$), ‘다문화가족지원’ ($\chi^2 = 15.82, p < .01$), ‘다양한 가족의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chi^2 = 21.89, p < .001$), ‘1인가구 지원’ ($\chi^2 = 53.76, p < .001$),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chi^2 = 31.06, p < .001$), ‘공동육아나눔터’ ($\chi^2 = 41.75, p < .001$),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chi^2 = 40.74, p < .001$) 등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6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결혼지위의 경우, 기혼 및 이혼·사별 집단이 부모교육($\chi^2 = 8.15, p < .05$)과 아버지교육($\chi^2 = 33.06, p < .001$), 아이돌봄지원서비스($\chi^2 = 23.14, p < .001$), 공동육아나눔터($\chi^2 = 47.08, p < .001$) 등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비혼보다 높았다. 긴급위기지원, 생활 도움 등($\chi^2 = 6.35, p < .05$)의 경우 비혼과 이혼·사별 집단이 기혼에 비해 인지도가 높았다. 다양한 가족의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이혼·사별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chi^2 = 19.51, p < .001$).

미성년자녀 유무에 따른 인지도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교육($\chi^2 = 14.31, p < .001$)과 공동육아나눔터($\chi^2 = 6.44, p < .05$)의 경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긴급위기지원 및 생활도움($\chi^2 = 21.67, p < .001$)과 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chi^2 = 5.22, p < .05$), 1인가구 지원 서비스($\chi^2 = 34.09, p < .001$),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chi^2 = 15.87, p < .001$)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1인가구 여부에 따른 가족서비스 인지도를 살펴보면, 다인가구가 1인가구와 비교해 아버지교육($\chi^2 = 7.49, p < .01$)과 아이돌봄지원서비스($\chi^2 = 13.76, p < .001$)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지역 유형별 인지도는 아버지교육에 대한 인지도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소도시 및 농어촌 거주 집단이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대도시와 비교해 유의하게 높았다($\chi^2 = 5.39, p < .05$).

<표 3-3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서비스 인지도 (1)

구분	(예비, 신혼기, 중노년기) 부부교육		(예비) 부모교육		아버지교육		가족상담		가족생활·문화 프로그램		긴급위기지원, 생활 도움 등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i>n</i>	<i>n</i>	<i>n</i>	<i>n</i>	<i>n</i>	<i>n</i>	<i>n</i>	<i>n</i>	<i>n</i>	<i>n</i>	<i>n</i>	<i>n</i>		
성별	여성	<i>n</i>	142	593	204	531	167	568	356	379	318	417	381	354
		%	19.3	80.7	27.8	72.2	22.7	77.3	48.4	51.6	43.3	56.7	51.8	48.2
	남성	<i>n</i>	118	647	174	591	120	645	306	459	262	503	351	414
		%	15.4	84.6	22.7	77.3	15.7	84.3	40.0	60.0	34.2	65.8	45.9	54.1
	χ^2	3.97*		4.99*		11.99***		10.82**		12.85***		5.12*		
연령 대별	20대	<i>n</i>	46	205	71	180	29	222	102	149	116	135	121	130
		%	18.3	81.7	28.3	71.7	11.6	88.4	40.6	59.4	46.2	53.8	48.2	51.8
	30대	<i>n</i>	50	218	66	202	40	228	115	153	99	169	113	155
		%	18.7	81.3	24.6	75.4	14.9	85.1	42.9	57.1	36.9	63.1	42.2	57.8
	40대	<i>n</i>	52	271	81	242	51	272	136	187	124	199	138	185
		%	16.1	83.9	25.1	74.9	15.8	84.2	42.1	57.9	38.4	61.6	42.7	57.3
	50대	<i>n</i>	53	295	77	271	78	270	155	193	127	221	181	167
		%	15.2	84.8	22.1	77.9	22.4	77.6	44.5	55.5	36.5	63.5	52.0	48.0
	60대	<i>n</i>	59	251	83	227	89	221	154	156	114	196	179	131
		%	19.0	81.0	26.8	73.2	28.7	71.3	49.7	50.3	36.8	63.2	57.7	42.3
		χ^2	2.54		3.47		35.52***		5.83		7.54		20.89***	
	결혼 지위	비혼	<i>n</i>	79	440	108	411	58	461	208	311	208	311	267
%			15.2	84.8	20.8	79.2	11.2	88.8	40.1	59.9	40.1	59.9	51.4	48.6
기혼		<i>n</i>	167	739	250	656	209	697	416	490	347	559	421	485
		%	18.4	81.6	27.6	72.4	23.1	76.9	45.9	54.1	38.3	61.7	46.5	53.5
이혼· 사별		<i>n</i>	14	61	20	55	20	55	38	37	25	50	44	31
		%	18.7	81.3	26.7	73.3	26.7	73.3	50.7	49.3	33.3	66.7	58.7	41.3
	χ^2	2.47		8.15*		33.06***		5.93		1.39		6.35*		

구분	(예비, 신혼기, 중노년기) 부부교육		(예비) 부모교육		아버지교육		가족상담		가족생활·문화 프로그램		긴급위기지원, 생활 도움 등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i>n</i>		<i>n</i>		<i>n</i>		<i>n</i>		<i>n</i>		<i>n</i>			
미성 년자 녀	있음	<i>n</i>	70	294	119	245	76	288	154	210	143	221	139	225
		%	19.2	80.8	32.7	67.3	20.9	79.1	42.3	57.7	39.3	60.7	38.2	61.8
	없음	<i>n</i>	190	946	259	877	211	925	508	628	437	699	593	543
		%	16.7	83.3	22.8	77.2	18.6	81.4	44.7	55.3	38.5	61.5	52.2	47.8
	χ^2	1.21		14.31***		0.95		0.65		0.08		21.67***		
1인가 구 여부	1인 가구	<i>n</i>	51	233	66	218	38	246	120	164	110	174	144	140
		%	18.0	82.0	23.2	76.8	13.4	86.6	42.3	57.7	38.7	61.3	50.7	49.3
	다인 가구	<i>n</i>	209	1007	312	904	249	967	542	674	470	746	588	628
		%	17.2	82.8	25.7	74.3	20.5	79.5	44.6	55.4	38.7	61.3	48.4	51.6
	χ^2	0.10		0.71		7.49**		0.50		0.00		0.51		
지역 유형	대도 시	<i>n</i>	129	674	194	609	136	667	340	463	310	493	401	402
		%	16.1	83.9	24.2	75.8	16.9	83.1	42.3	57.7	38.6	61.4	49.9	50.1
	중소도 시 및 농어촌	<i>n</i>	131	566	184	513	151	546	322	375	270	427	331	366
		%	18.8	81.2	26.4	73.6	21.7	78.1	46.2	53.8	38.7	61.3	47.5	52.5
	χ^2	1.94		0.99		5.39*		2.25		0.00		0.90		

* $p < .05$. ** $p < .01$. *** $p < .001$.

<표 3-3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서비스 인지도 (2)

구분		다양한 가족의												
		다문화가족지원		육구별 맞춤형 서비스		1인가구 지원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성별	여성	<i>n</i>	523	212	291	444	232	503	512	223	308	427	274	461
		%	71.2	28.8	39.6	60.4	31.6	68.4	69.7	30.3	41.9	58.1	37.3	62.7
	남성	<i>n</i>	438	327	209	556	205	560	399	366	215	550	256	509
		%	57.3	42.7	27.3	72.7	26.8	73.2	52.2	47.8	28.1	71.9	33.5	66.5
	χ^2	31.47***		25.40***		4.13*		48.15***		31.44***		2.39		
연령 대별	20대	<i>n</i>	145	106	73	178	81	170	131	120	56	195	81	170
		%	57.8	42.2	29.1	70.9	32.3	67.7	52.2	47.8	22.3	77.7	32.3	67.7
	30대	<i>n</i>	155	113	72	196	58	210	139	129	79	189	70	198
		%	57.8	42.2	26.9	73.1	21.6	78.4	51.9	48.1	29.5	70.5	26.1	73.9
	40대	<i>n</i>	210	113	97	226	62	261	197	126	115	208	96	227
		%	65.0	35.0	30.0	70.0	19.2	80.8	61.0	39.0	35.6	64.4	29.7	70.3
	50대	<i>n</i>	232	116	126	222	102	246	226	122	127	221	132	216
		%	66.7	33.3	36.2	63.8	29.3	70.7	64.9	35.1	36.5	63.5	37.9	62.1
	60대	<i>n</i>	219	91	132	178	134	176	218	92	146	164	151	159
		%	70.6	29.4	42.6	57.4	43.2	56.8	70.3	29.7	47.1	52.9	48.7	51.3
		χ^2	15.82**		21.89***		53.76***		31.06***		41.75***		40.74***	
	결혼 지위	비혼	<i>n</i>	314	205	141	378	149	370	272	247	123	396	172
%			60.5	39.5	27.2	72.8	28.7	71.3	52.4	47.6	23.7	76.3	33.1	66.9
기혼		<i>n</i>	594	312	322	584	264	642	589	317	362	544	326	580
		%	65.6	34.4	35.5	64.5	29.1	70.9	65.0	35.0	40.0	60.0	36.0	64.0
이혼· 사별		<i>n</i>	53	22	37	38	24	51	50	25	38	37	32	43
		%	70.7	29.3	49.3	50.7	32.0	68.0	66.7	33.3	50.7	49.3	42.7	57.3
	χ^2	5.17		19.51***		0.34		23.14***		47.08***		3.02		

구분	(예비, 신혼기, 중노년기) 부부교육		(예비) 부모교육		아버지교육		가족상담		가족생활·문화 프로그램		긴급위기지원, 생활 도움 등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i>n</i>													
미성 년자 녀	있음	<i>n</i>	215	149	121	243	62	302	227	137	147	217	97	267
		%	59.1	40.9	33.2	66.8	17.0	83.0	62.4	37.6	40.4	59.6	26.6	73.4
	없음	<i>n</i>	746	390	379	757	375	761	684	452	376	760	433	703
		%	65.7	34.3	33.4	66.6	33.0	67.0	60.2	39.8	33.1	66.9	38.1	61.9
	χ^2	5.22*		0.00		34.09***		0.54		6.44*		15.87***		
1인가 구 여부	1인 가구	<i>n</i>	168	116	86	198	79	205	145	139	87	197	103	181
		%	59.2	40.8	30.3	69.7	27.8	72.2	51.1	48.9	30.6	69.4	36.3	63.7
	다인 가구	<i>n</i>	793	423	414	802	358	858	766	450	436	780	427	789
		%	65.2	34.8	34.0	66.0	29.4	70.6	63.0	37.0	35.9	64.1	35.1	64.9
	χ^2	3.67		1.47		0.29		13.76***		2.76		0.13		
지역 유형	대도 시	<i>n</i>	506	297	258	545	249	554	481	322	282	521	279	524
		%	63.0	37.0	32.1	67.9	31.0	69.0	59.9	40.1	35.1	64.9	34.7	65.3
	중소도 시 및 농어촌	<i>n</i>	455	242	242	455	188	509	430	267	241	456	251	446
		%	65.3	34.7	34.7	65.3	27.0	73.0	61.7	38.3	34.6	65.4	36.0	64.0
	χ^2	0.83		1.13		2.94		0.50		0.05		0.26		

* $p < .05$. ** $p < .01$. *** $p < .001$.

9) 가족서비스별 이용 경험 여부

가족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족서비스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가족서비스별 이용 경험 여부를 빈도수를 활용하여 정리하면, 가족캠프, 가족체험활동, 가족봉사단, 가족사랑의 날 등 가족생활·문화 프로그램 이용 경험이 8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긴급위기지원 및 생활 도움, (예비) 부모교육,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부부상담, 자녀상담, 이혼 전후 상담 등 가족상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가구 지원 서비스의 이용 경험 빈도는 가장 낮았고, 아버지교육이나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경험도 비교적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개별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는 사랑 중, 실제 참여 비율은 공동육아나눔터 25.3%,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23.9%, 1인가구 지원 서비스 21.5%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34> 지역사회 가족서비스별 이용 경험 여부 (단위: 명, %)

유형	구분	빈도	비율
(예비, 신혼기, 중노년기) 부부교육 (n = 260)	있다	36	13.8
	없다	224	86.2
(예비) 부모교육 (n = 378)	있다	48	12.7
	없다	330	87.3
아버지교육 (n = 120)	있다	23	19.2
	없다	97	80.8
부부상담, 자녀상담, 이혼 전후 상담 등 가족상담 (n = 662)	있다	41	6.2
	없다	621	93.8
가족캠프, 가족체험활동, 가족봉사단, 가족사랑의 날 등 가족생활·문화 프로그램 (n = 580)	있다	80	13.8
	없다	500	86.2
긴급위기지원, 생활 도움 등 (n = 732)	있다	60	8.2
	없다	672	91.8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n = 961)	있다	33	3.4
	없다	928	96.6
다양한 가족의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등) (n = 500)	있다	36	7.2
	없다	464	92.8
1인가구 지원 서비스 (n = 79)	있다	17	21.5
	없다	62	78.5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n = 142)	있다	34	23.9
	없다	108	76.1
공동육아나눔터 (n = 99)	있다	25	25.3
	없다	74	74.7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n = 530)	있다	46	8.7
	없다	484	91.3

주: 개별 서비스 제공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10) 가족서비스 요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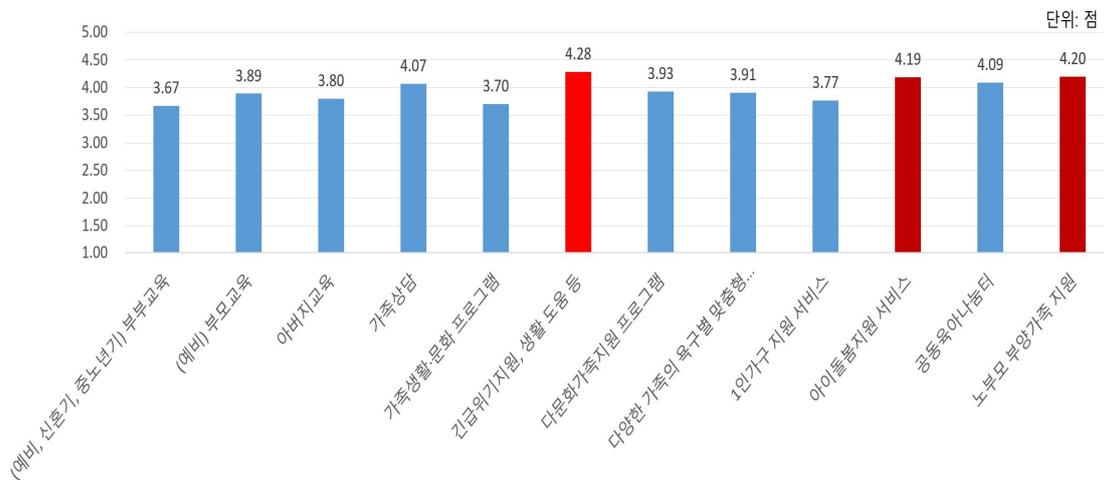
(1) 가족서비스 요구도의 일반적 경향

조사응답자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족서비스 요구도(범위: 1-5점)를 확인한 결과,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4점 이상의 요구도를 보인 서비스를 정리하면, 긴급위기지원 및 생활도움(평균 4.28, 표준편차 .722)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은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평균 4.20, 표준편차 .758), 아이돌봄지원 서비스(평균 4.19, 표준편차 .773), 공동육아나눔터(평균 4.09, 표준편차 .792), 부부상담, 자녀상담, 이혼 전후 상담 등 가족상담(평균 4.07, 표준편차 .769)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5> 가족서비스별 요구도 (단위: 명, %, 점)

유형	구분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예비, 신혼기, 중노년기) 부부교육	전혀 필요없다	16	1.1	3.67	(.795)
	필요없다	83	5.5		
	보통이다	457	30.5		
	필요하다	767	51.1		
	매우 필요하다	177	11.8		
(예비) 부모교육	전혀 필요없다	13	0.9	3.89	(.827)
	필요없다	69	4.6		
	보통이다	321	21.4		
	필요하다	766	51.1		
	매우 필요하다	331	22.1		
아버지교육	전혀 필요없다	20	1.3	3.80	(.885)
	필요없다	86	5.7		
	보통이다	393	26.2		
	필요하다	681	45.4		
	매우 필요하다	320	21.3		
부부상담, 자녀상담, 이혼 전후 상담 등 가족상담	전혀 필요없다	12	0.8	4.07	(.769)
	필요없다	38	2.5		
	보통이다	211	14.1		
	필요하다	816	54.4		
	매우 필요하다	423	28.2		
가족캠프, 가족체험활동, 가족봉사단, 가족사랑의 날 등 가족생활·문화 프로그램	전혀 필요없다	24	1.6	3.70	(.848)
	필요없다	75	5.0		
	보통이다	459	30.6		
	필요하다	707	47.1		
	매우 필요하다	235	15.7		
긴급위기지원, 생활 도움 등	전혀 필요없다	7	0.5	4.28	(.722)
	필요없다	19	1.3		
	보통이다	141	9.4		
	필요하다	714	47.6		
	매우 필요하다	619	41.3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다문화부부 및 자녀 지원, 한국어교육, 취업지원, 방문서비스, 중도입국자녀지원 등)	전혀 필요없다	26	1.7	3.93	(.832)
	필요없다	49	3.3		
	보통이다	269	17.9		
	필요하다	811	54.1		

	매우 필요하다	345	23.0		
다양한 가족의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등)	전혀 필요없다	14	0.9	3.91	(.781)
	필요없다	39	2.6		
	보통이다	329	21.9		
	필요하다	803	53.5		
	매우 필요하다	315	21.0		
1인가구 지원 서비스	전혀 필요없다	36	2.4	3.77	(.927)
	필요없다	78	5.2		
	보통이다	406	27.1		
	필요하다	654	43.6		
	매우 필요하다	326	21.7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전혀 필요없다	15	1.0	4.19	(.773)
	필요없다	21	1.4		
	보통이다	177	11.8		
	필요하다	731	48.7		
	매우 필요하다	556	37.1		
공동육아나눔터	전혀 필요없다	13	0.9	4.09	(.792)
	필요없다	30	2.0		
	보통이다	239	15.9		
	필요하다	742	49.5		
	매우 필요하다	476	31.7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전혀 필요없다	9	0.6	4.20	(.758)
	필요없다	23	1.5		
	보통이다	186	12.4		
	필요하다	718	47.9		
	매우 필요하다	564	37.6		
합계		1500	100		



[그림 3-18] 가족서비스 요구도

(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서비스 요구도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서비스 요구도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3-36>과 같다. 우선, 성별 요구도를 살펴보면, 여성의 요구도가 남성보다 모든 문항에서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요구도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F = 3.91, p < .01$), 1인 가구 지원 서비스’ ($F = 2.90, p < .05$), ‘공동육아나눔터’ ($F = 2.98, p < .05$)에 대한 요구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사후검증 결과에서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0대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결혼 지위별 요구도 차이의 경우, 사후 검증에서 ‘1인 가구 지원 서비스’의 경우 이혼 및 사별 집단의 요구도가 다른 집단과 비교해 유의하게 높았다($F = 9.73, p < .001$). 반면, ‘아버지교육’ ($F = 4.33, p < .05$), ‘가족상담’ ($F = 3.82, p < .05$), ‘가족생활·문화프로그램’ ($F = 5.56, p < .01$)은 차이검증은 유의하였으나, 사후 검증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미성년자녀 유무에 따른 요구도 차이를 살펴보면, ‘가족생활·문화프로그램’ ($t = 3.76, p < .001$)은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t = -3.06, p < .01$), ‘1인 가구 지원 서비스’ ($t = -6.19, p < .001$),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t = -2.39, p < .05$)의 경우 미성년자녀가 없는 집단의 요구도가 있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1인가구 여부별 요구도 차이를 살펴보면, ‘부부교육’ ($t = -2.18, p < .05$), ‘부모교육’ ($t = -2.36, p < .05$), ‘아버지교육’ ($t = -3.95, p < .001$), ‘가족상담’ ($t = -4.03, p < .001$), ‘가족생활·문화프로그램’ ($t = -2.62, p < .01$), ‘아이돌봄지원서비스’ ($t = -2.76, p < .01$), ‘공동육아나눔터’ ($t = -2.09, p < .05$), ‘노부모 부양가족지원’ ($t = -2.33, p < .05$)에 대한 요구도는 다인가구가 1인가구와 비교해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1인가구 지원 서비스’의 경우 1인가구의 요구도가 다인가구와 비교해 유의하게 높았다($t = 6.44, p < .001$). 지역 유형별 요구도는 ‘1인가구 지원 서비스’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도시 집단의 요구도가 평균 3.81점으로 중소도시 및 농어촌과 비교해 유의하게 높았다($t = 1.96, p < .05$).

<표 3-3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족서비스 요구도

구분		(예비, 신혼기, 중노년기) 부부 교육	(예비) 부모 교육	아버지 교육	가족 상담	가족생활·문화 프로그램	긴급위기 지원, 생활도움 등	다문화 가족지원 프로그램	다양한 가족의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1인 가구 지원 서비스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공동 육아 나눔터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성별	여성	M	3.77	4.06	4.06	4.21	3.76	4.35	3.98	4.02	3.86	4.30	4.18	4.28
		SD	0.77	0.74	0.79	0.66	0.79	0.68	0.80	0.71	0.88	0.69	0.74	0.70
	남성	M	3.57	3.72	3.54	3.92	3.64	4.21	3.89	3.81	3.69	4.09	4.01	4.13
		SD	0.81	0.87	0.90	0.84	0.89	0.76	0.86	0.83	0.96	0.83	0.83	0.80
	<i>t</i>		-4.85***	-8.24***	-11.83***	-7.48***	-2.73**	-3.64***	-2.12*	-5.33***	-3.56***	-5.32***	-4.29***	-3.80***
	연령	20대	M	3.65	3.99	3.81	4.06	3.71	4.27	3.90 ^{ab}	3.92	3.79	4.16	4.06
SD			0.87	0.84	0.96	0.88	0.95	0.76	0.88	0.84	1.03	0.84	0.83	0.78
30대		M	3.65	3.93	3.75	4.04	3.66	4.21	3.87 ^b	3.91	3.67	4.27	4.19	4.10
		SD	0.89	0.87	1.00	0.84	0.89	0.80	0.89	0.82	1.05	0.78	0.79	0.87
40대		M	3.70	3.88	3.84	4.10	3.75	4.31	3.87 ^a	3.95	3.68	4.18	4.05	4.22
		SD	0.76	0.78	0.83	0.71	0.82	0.72	0.84	0.69	0.92	0.75	0.79	0.72
50대		M	3.66	3.84	3.77	4.03	3.63	4.27	3.92 ^{ab}	3.87	3.83	4.16	4.01	4.27
		SD	0.73	0.84	0.83	0.73	0.83	0.70	0.84	0.81	0.84	0.78	0.82	0.73
60대		M	3.68	3.83	3.81	4.10	3.76	4.33	4.09 ^a	3.91	3.87	4.21	4.16	4.24
		SD	0.76	0.81	0.85	0.72	0.76	0.64	0.71	0.75	0.81	0.73	0.72	0.69
<i>F</i>		0.22	1.90	0.46	0.53	1.48	1.03	3.91**	0.45	2.90*	1.00	2.98*	2.33	
결혼 지위		비혼	M	3.61	3.87	3.71	3.99	3.61	4.27	3.90	3.88	3.88 ^{ab}	4.15	4.05
	SD		0.86	0.88	0.97	0.85	0.91	0.77	0.84	0.82	0.95	0.82	0.84	0.80
	기혼	M	3.70	3.90	3.85	4.11	3.76	4.27	3.95	3.91	3.69 ^b	4.23	4.12	4.22
		SD	0.76	0.78	0.82	0.71	0.80	0.71	0.83	0.76	0.92	0.72	0.75	0.73
	이혼·사별	M	3.71	3.85	3.72	4.04	3.61	4.43	3.99	4.07	4.01 ^a	4.11	4.05	4.24
		SD	0.80	0.95	0.99	0.88	0.94	0.55	0.85	0.83	0.78	1.01	1.00	0.82
<i>F</i>		1.98	0.35	4.33*	3.82*	5.56**	1.65	0.87	1.85	9.73***	1.91	1.58	0.73	

구분		(예비, 신혼기, 중노년기) 부부 교육	(예비) 부모 교육	아버지 교육	가족 상담	가족생활·문화 프로그램	긴급위기 지원, 생활도움 등	다문화 가족지원 프로그램	다양한 가족의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1인 가구 지원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공동육아 나눔터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미성년자	있음	<i>M</i>	3.70	3.91	3.84	4.11	3.84	4.25	3.81	3.93	3.50	4.25	4.15	4.12
		<i>SD</i>	0.76	0.76	0.81	0.73	0.81	0.75	0.90	0.75	0.99	0.69	0.74	0.78
녀	없음	<i>M</i>	3.66	3.88	3.78	4.05	3.66	4.29	3.97	3.90	3.86	4.18	4.07	4.23
		<i>SD</i>	0.81	0.85	0.91	0.78	0.86	0.71	0.80	0.79	0.89	0.80	0.81	0.75
유무	<i>t</i>		0.75	0.58	1.15	1.23	3.76***	-0.89	-3.06**	0.58	-6.19***	1.49	1.49	-2.39*
1인 가구	1인 가구	<i>M</i>	3.57	3.77	3.59	3.87	3.58	4.22	3.86	3.86	4.06	4.08	4.00	4.11
		<i>SD</i>	0.84	0.93	1.00	0.94	0.91	0.75	0.82	0.83	0.83	0.87	0.86	0.79
여부	다인 가구	<i>M</i>	3.69	3.92	3.84	4.11	3.73	4.29	3.95	3.92	3.70	4.22	4.11	4.23
		<i>SD</i>	0.78	0.80	0.85	0.72	0.83	0.71	0.84	0.77	0.94	0.75	0.77	0.75
	<i>t</i>		-2.18*	-2.36*	-3.95***	-4.03***	-2.62**	-1.49	-1.75	-1.18	6.44***	-2.76**	-2.09*	-2.33*
지역 유형	대도시	<i>M</i>	3.70	3.90	3.80	4.08	3.71	4.30	3.95	3.94	3.81	4.22	4.10	4.24
		<i>SD</i>	0.80	0.84	0.91	0.78	0.83	0.70	0.84	0.78	0.96	0.77	0.80	0.76
	중소도시 및 농어촌	<i>M</i>	3.64	3.87	3.79	4.05	3.69	4.25	3.92	3.88	3.72	4.17	4.09	4.16
		<i>SD</i>	0.79	0.82	0.86	0.76	0.87	0.74	0.82	0.78	0.89	0.77	0.78	0.76
	<i>t</i>		1.59	0.78	0.31	0.84	0.54	1.41	0.59	1.57	1.96*	1.25	0.27	2.17*

* $p < .05$. ** $p < .01$. *** $p < .001$.

11) 가족서비스별 이용 경험 기관

가족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어느 기관에서 참여했는지 살펴 보았다. 가족센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함)에서의 이용 빈도가 높은 서비스는 (예비, 신혼기, 중노년기) 부부교육, 아버지교육, 가족상담, 1인가구 지원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포함되었다. 반면 긴급위기지원, 생활 도움,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등은 타기관에서의 이용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예비) 부모교육, 가족생활·문화 프로그램, 다양한 가족의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등은 가족센터와 타기관에서의 경험 빈도가 같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가족센터와 타기관에서의 이용 경험 중복 여부도 확인하였는데, 빈도수 기준으로 제시하면 가족생활·문화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긴급위기지원, 생활 도움,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부모교육, 부부상담, 자녀상담, 이혼 전후 상담 등 가족상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	구분	빈도	비율
(예비, 신혼기, 중노년기) 부부교육 (n = 36)	가족센터	14	38.9
	타기관	13	36.1
	가족센터 및 타기관	9	25.0
(예비) 부모교육 (n = 48)	가족센터	17	35.4
	타기관	17	35.4
	가족센터 및 타기관	14	29.2
아버지교육 (n = 23)	가족센터	8	34.8
	타기관	6	26.1
	가족센터 및 타기관	9	39.1
부부상담, 자녀상담, 이혼 전후 상담 등 가족상담 (n = 41)	가족센터	18	43.9
	타기관	13	31.7
	가족센터 및 타기관	10	24.4
가족생활·문화 프로그램 (n = 80)	가족센터	30	37.5
	타기관	30	37.5
	가족센터 및 타기관	20	25.0
긴급위기지원, 생활 도움 등 (n = 60)	가족센터	17	28.3
	타기관	26	43.3
	가족센터 및 타기관	17	28.3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n = 33)	가족센터	13	39.4
	타기관	16	48.5
	가족센터 및 타기관	4	12.1
다양한 가족의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n = 36)	가족센터	14	38.9
	타기관	14	38.9

	가족센터 및 타기관	8	22.2
1인가구 지원 서비스 (n = 17)	가족센터	7	41.2
	타기관	5	29.4
	가족센터 및 타기관	5	29.4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n = 34)	가족센터	14	41.2
	타기관	14	41.2
	가족센터 및 타기관	6	17.6
공동육아나눔터 (n = 25)	가족센터	12	48.0
	타기관	8	32.0
	가족센터 및 타기관	5	20.0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n = 46)	가족센터	12	26.1
	타기관	18	39.1
	가족센터 및 타기관	16	34.8

12) 가족생활교육 참여 희망 기관 및 기관별 선호이유

조사응답자들에게 가족센터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 부부/커플교육)에 참여한다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중 어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호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두 기관 모두 상관없다’가 50.5%로 나타났고, 공공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41.2%로 민간기관 선호도 8.3%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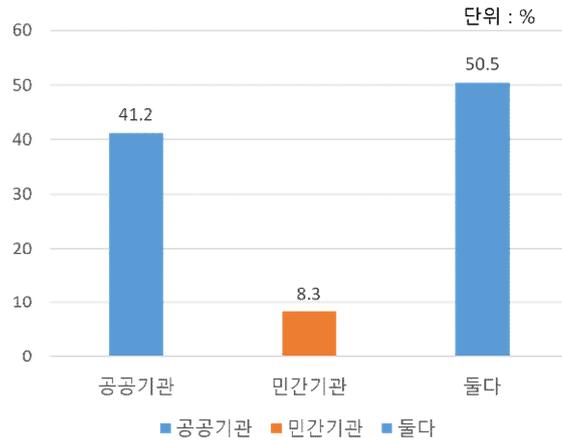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을 선택한 조사응답자들 대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선호 이유(범위: 1-5점)를 비교한 결과 공공기관의 선호도 이유는 ‘비용이 저렴할 것 같아서’ (평균 4.25 표준편차 .626), ‘찾아가기가 쉬울 것 같아서’ (평균 3.90 표준편차 .716), ‘사전에 기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평균 3.85 표준편차 .716), ‘서비스 내용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평균 3.66 표준편차 .746), ‘서비스를 받은 후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서’ (평균 3.50 표준편차 .766)와 ‘원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평균 3.50 표준편차 .90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기관의 선호 이유는 ‘원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평균 3.81 표준편차 .703), ‘서비스 내용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평균 3.77 표준편차 .734), ‘서비스를 받은 후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서’ (평균 3.65 표준편차 .778), ‘사전에 기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평균 3.58 표준편차 .797), ‘찾아가기가 쉬울 것 같아서’ (평균 3.52 표준편차 .879), ‘비용이 저렴할 것 같아서’ (평균 2.62 표준편차 .934) 순으로 나타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선호도 이유에는 차이가 있었다.

<표 3-38> 가족생활교육 제공 희망 기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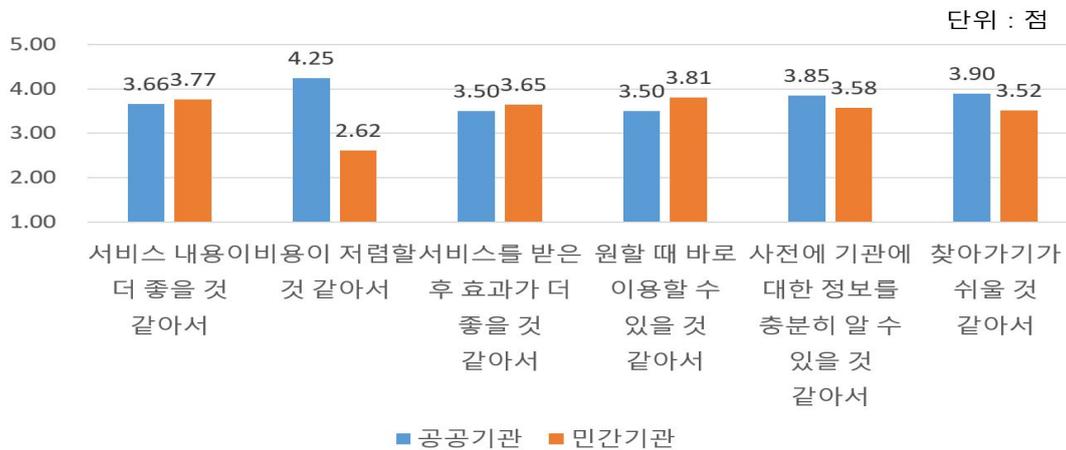
유형	구분	빈도	비율
가족생활교육 제공 희망기관	공공기관(가족센터 등)	618	41.2
	민간기관(사설 개인 교육 기관)	124	8.3
	둘 다 상관 없음	758	50.5
합계		1500	100

<표 3-39> 가족생활교육 제공 희망 기관별 선호이유 (단위: 명, %, 점)

유형	구분	공공기관(n = 618)				민간기관(n = 124)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서비스 내용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전혀 그렇지 않다	4	0.6	3.66	(.746)	1	0.8	3.77	(.734)
	별로 그렇지 않다	33	5.3			3	2.4		
	보통이다	190	30.7			36	29.0		
	대체로 그렇다	334	54.0			68	54.8		
	매우 그렇다	57	9.2			16	12.9		
비용이 저렴할 것 같아서	전혀 그렇지 않다	1	0.2	4.25	(.626)	14	11.3	2.62	(.934)
	별로 그렇지 않다	4	0.6			43	34.7		
	보통이다	45	7.3			44	35.5		
	대체로 그렇다	358	57.9			22	17.7		
	매우 그렇다	210	34.0			1	0.8		
서비스를 받은 후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전혀 그렇지 않다	5	0.8	3.50	(.766)	1	0.8	3.65	(.778)
	별로 그렇지 않다	38	6.1			8	6.5		
	보통이다	271	43.9			37	29.8		
	대체로 그렇다	253	40.9			66	53.2		
	매우 그렇다	51	8.3			12	9.7		
원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혀 그렇지 않다	13	2.1	3.50	(.901)	0	0	3.81	(.703)
	별로 그렇지 않다	67	10.8			4	3.2		
	보통이다	202	32.7			32	25.8		
	대체로 그렇다	269	43.5			71	57.3		
	매우 그렇다	67	10.8			17	13.7		
사전에 기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혀 그렇지 않다	3	0.5	3.85	(.716)	1	0.8	3.58	(.797)
	별로 그렇지 않다	20	3.2			8	6.5		
	보통이다	135	21.8			46	37.1		
	대체로 그렇다	371	60.0			56	45.2		
	매우 그렇다	89	14.4			13	10.5		
찾아가기가 쉬울 것 같아서 (N=618)	전혀 그렇지 않다	5	0.8	3.90	(.716)	1	0.8	3.52	(.879)
	별로 그렇지 않다	10	1.6			13	10.5		
	보통이다	131	21.2			47	37.9		
	대체로 그렇다	366	59.2			47	37.9		
	매우 그렇다	106	17.2			16	12.9		
합계		618	100			124	100		



[그림 3-19] 가족생활교육 제공 희망기관



[그림 3-20] 가족생활교육 제공 희망 기관별 선호이유

13) 가족상담 참여 희망 기관 및 기관별 선호이유

조사응답자들에게 가족상담(부부상담, 부모-자녀관계 상담)을 받는다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중 어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호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한 결과 ‘두 기관 모두 상관없다’가 49.9%로 나타났고, 공공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38.3%로 민간기관 선호도 11.8%보다 높게 확인되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을 선택한 조사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선호이유(범위 1-5점)를 비교한 결과, 공공기관 선호 이유는 ‘비용이 저렴할 것 같아서’ (평균 4.22 표준편차 .650), ‘찾아가기가 쉬울 것 같아서’ (평균 3.91 표준편차 .764), ‘사전에 기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평균 3.91 표준편차 .710), ‘서비스 내용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평균 3.68 표준편

차 .749), ‘원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평균 3.58 표준편차 .871), ‘서비스를 받은 후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서’ (평균 3.57 표준편차 .77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기관의 선호도 이유는 ‘서비스 내용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평균 3.90 표준편차 .696), ‘원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평균 3.79 표준편차 .712), ‘서비스를 받은 후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서’ (평균 3.75 표준편차 .727), ‘사전에 기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평균 3.52 표준편차 .847), ‘찾아가기가 쉬울 것 같아서’ (평균 3.45 표준편차 .832), ‘비용이 저렴할 것 같아서’ (평균 2.36 표준편차 .906) 순으로 나타나, 가족상담 역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선호도 이유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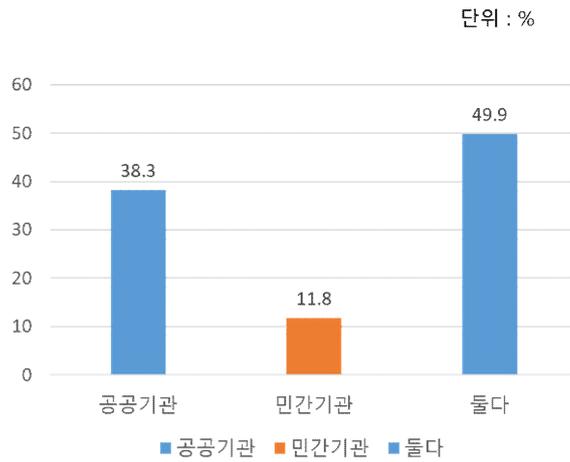
<표 3-40> 가족상담 제공 희망 기관 (단위: 명, %)

유형	구분	빈도	비율
가족상담 제공 희망기관	공공기관(가족센터 등)	575	38.3
	민간기관(사실 개인 교육 기관)	177	11.8
	둘 다 상관 없음	748	49.9
합계		15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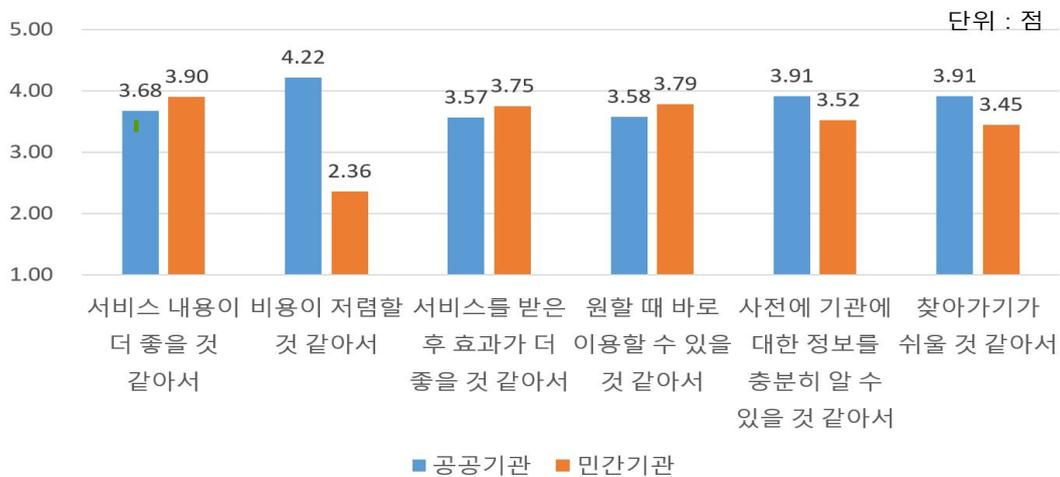
<표 3-41> 가족상담 제공 희망 기관별 선호이유 (단위: 명, %, 점)

유형	구분	공공기관(n = 575)				민간기관(n = 177)			
		빈도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빈도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서비스 내용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전혀 그렇지 않다	4	0.7	3.68	(.749)	0	0	3.90	(.696)
	별로 그렇지 않다	27	4.7			6	3.4		
	보통이다	179	31.1			34	19.2		
	대체로 그렇다	306	53.2			108	61.0		
	매우 그렇다	59	10.3			29	16.4		
비용이 저렴할 것 같아서	전혀 그렇지 않다	1	0.2	4.22	(.650)	29	16.4	2.36	(.906)
	별로 그렇지 않다	4	0.7			78	44.1		
	보통이다	54	9.4			49	27.7		
	대체로 그렇다	325	56.5			20	11.3		
	매우 그렇다	191	33.2			1	0.6		
서비스를 받은 후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전혀 그렇지 않다	6	1.0	3.57	(.777)	1	0.6	3.75	(.727)
	별로 그렇지 않다	24	4.2			6	3.4		
	보통이다	240	41.7			50	28.2		
	대체로 그렇다	244	42.4			99	55.9		
	매우 그렇다	61	10.6			21	11.9		
원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혀 그렇지 않다	9	1.6	3.58	(.871)	0	0	3.79	(.712)
	별로 그렇지 않다	52	9.0			6	3.4		
	보통이다	178	31.0			49	27.7		
	대체로 그렇다	267	46.4			98	55.4		
	매우 그렇다	69	12.0			24	13.6		

사전에 기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혀 그렇지 않다	5	0.9	3.91	(.710)	1	0.6	3.52	(.847)
	별로 그렇지 않다	13	2.3			18	10.2		
	보통이다	104	18.1			66	37.3		
	대체로 그렇다	360	62.6			72	40.7		
	매우 그렇다	93	16.2			20	11.3		
찾아가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전혀 그렇지 않다	6	1.0	3.91	(.764)	1	0.6	3.45	(.832)
	별로 그렇지 않다	15	2.6			15	8.5		
	보통이다	115	20.0			85	48.0		
	대체로 그렇다	328	57.0			55	31.1		
	매우 그렇다	111	19.3			21	11.9		
합계		575	100			177	100		



[그림 3-21] 가족상담 제공 희망기관



[그림 3-22] 가족상담 제공 희망 기관별 선호이유

14) 소결

이상과 같이 가족센터와 가족센터가 제공하는 가족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살펴보고 세부 서비스별 요구도를 확인하였다. 조사응답자들이 가족센터라는 기관 명칭을 들었을 때 연상되는 서비스 대상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 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 내용은 가족상담,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다양한 가족 맞춤형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서비스별 실제 인지도는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가 가장 높았고, 아이돌봄지원, 긴급위기지원 및 생활도움, 가족상담 등의 순서로 확인되었고, 모든 가족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여성과 6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조사응답자들의 가족서비스 요구도는 긴급위기지원 및 생활도움, 노부모부양가족 지원, 아이돌봄지원,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상담 순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이 모든 서비스에서 요구도가 높았다는 특징이 있다. 그중 가족교육과 가족상담만 특정하여 서비스를 받고 싶은 기관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으로 구분하여 확인한 결과 ‘둘 다 상관없음’ 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선호도가 높았다.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경우, 낮은 비용, 기관 정보의 투명성, 지리적 접근성 등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았고, 민간기관을 선호하는 이유에는 질 높은 서비스와 신속한 서비스 이용 등이 제시되었다. 가족센터와 가족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경험, 정책요구도 역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고 가족서비스별 인지도와 요구도 등을 기반으로 가족센터 인지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때 연령이나 성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가족 특성별 대처행동, 가족센터 및 서비스 인지도와 요구도 차이

본 절에서는 주요 가족 특성을 선정하여 그 수준별 대처행동, 가족센터 및 서비스 인지도와 요구도 차이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선정한 가족 특성은 가족의 생활 및 관계 어려움, 가족 중요도, 가족생활 행복도 및 가족탄력성 등이며 각 수준별로의 차이를 살펴본 변수는 가족의 실제 대처행동, 가족서비스 이용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의 지원 필요성, 가족서비스 이용 의향,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인지도 등이다.

1) 가족의 어려움 유형별 대처행동의 차이

조사응답자가 가족 안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개인 및 가족생활 어려움과 가족 관계 어려움으로 구분하여 그 어려움 수준에 따른 대처방법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1) 개인 및 가족생활의 어려움

조사응답자들이 경험하는 개인 및 가족생활의 어려움을 낮음, 중간, 높음의 세 수준으로 구분하여 대처행동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3-42>와 같다. 경제적 문제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높은 경우 ‘어렵지만 그냥 참고 지낸다’에 대한 응답 평균 3.35점으로 ‘중간’이나 ‘낮음’ 집단과 비교해 유의하게 높았다($F = 80.11, p < .001$). ‘주요 언론 매체, 인터넷 포털 사이트, SNS, 동영상, 책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응답 문항에서도 집단별 차이가 유의했는데, ‘높음’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F = 4.40, p < .05$).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대처행동을 살펴보면, ‘어렵지만 그냥 참고 지낸다’는 응답의 경우, ‘높음’ 집단의 응답 평균이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 = 136.90, p < .001$). 또한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는다’와 ‘비용을 지불하면서 민간 서비스를 활용한다’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는다’는 ‘중간’ 집단의 응답 평균이 가장 높았고($F = 4.65, p < .05$), ‘비용을 지불하면서 민간 서비스를 활용한다’는 ‘중간’과 ‘높음’ 집단의 응답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다($F = 8.91, p < .001$).

신체건강문제에 대한 대처행동을 살펴보면, ‘어렵지만 그냥 참고 지낸다’($F = 68.39, p < .001$), ‘주요 언론 매체, 인터넷 포털 사이트, SNS, 동영상, 책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F = 5.58, p < .01$),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는다’($F = 9.00, p < .01$), ‘비용을 지불하면서 민간 서비스를 활용한다’($F = 8.13, p < .001$) 응답에서의 차이가 유의했다. 어려움이 높을수록 해당 응답에 대한 동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가족생활의 어려움 중 가사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행동을 살펴보면, 모든 대처행동에 대한 집단별 차이가 유의하였다. 가사의 어려움이 높을수록, ‘어렵지만 그냥 참고 지낸다’($F = 117.23, p < .001$), ‘주요 언론 매체, 인터넷 포털 사이트, SNS, 동영상, 책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F = 9.27, p < .001$), ‘가족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받는다’($F = 4.61, p < .01$), ‘이웃이나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받는다’($F = 8.68, p < .001$),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는다’($F = 8.92, p < .001$), ‘비용을 지불하면서 민간 서비스를 활용한다’($F = 8.51, p < .001$) 등의

대처행동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았다. 가사의 어려움이 높을 경우 다양한 대처방법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행동을 살펴보면,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이 높을수록 ‘어렵지만 그냥 참고 지낸다’ ($F = 112.03, p < .001$), ‘주요 언론 매체, 인터넷 포털 사이트, SNS, 동영상, 책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F = 12.56, p < .001$), ‘이웃이나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받는다’ ($F = 5.49, p < .01$),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는다’ ($F = 7.31, p < .01$), ‘비용을 지불하면서 민간 서비스를 활용한다’ ($F = 5.86, p < .01$) 등의 대처방법을 활용한다는 응답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았다.

자녀돌봄 및 교육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법을 살펴보면, 어려움의 수준별 차이는 ‘어렵지만 그냥 참고 지낸다’ ($F = 26.00, p < .001$)와 ‘주요 언론 매체, 인터넷 포털 사이트, SNS, 동영상, 책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F = 7.68, p < .01$)에서 유의하였다. 즉, 어려움 수준이 높을수록 참고 지내거나(평균 3.71점), 정보를 수집하는 것(평균 3.30점)에 대한 동의 수준이 ‘중간’이나 ‘낮은’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자녀 외 가족 돌봄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행동을 살펴보면, 어려움 수준이 높을수록 ‘어렵지만 그냥 참고 지낸다’ ($F = 142.39, p < .001$)는 응답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았다. 한편 자녀이외 가족 돌봄의 어려움이 ‘중간’ 및 ‘높음’ 집단이 ‘낮음’ 집단과 비교해 ‘주요 언론 매체, 인터넷 포털 사이트, SNS, 동영상, 책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F = 16.45, p < .001$), ‘이웃이나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받는다’ ($F = 10.52, p < .001$),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는다’ ($F = 22.67, p < .001$), ‘비용을 지불하면서 민간 서비스를 활용한다’ ($F = 20.08, p < .001$) 등의 대처방법에 대한 동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표 3-42> 개인 및 가족생활의 어려움별 대처행동 차이 분석

구분			어렵지만	정보를	가족이나	이웃이나	지역사회	비용을
			그냥 참고 지낸다	수집한다	친척에게 도움을 받는다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받는다	관련 기관의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는다	지불하면 서 민간 서비스를 활용한다
개인 생활 문제	낮음	M	2.48 ^c	2.84 ^{ab}	2.44	2.05	1.76	1.62
		SD	1.12	1.15	1.12	1.03	0.96	0.93
	중간	M	2.84 ^b	2.78 ^b	2.49	2.08	1.82	1.75
		SD	1.04	1.02	1.03	0.91	0.94	0.98
	높음	M	3.35 ^a	2.98 ^a	2.40	2.10	1.75	1.65
		SD	1.05	1.11	1.06	1.05	0.97	0.96

		<i>F</i>	80.11***	4.40*	0.84	0.36	0.74	2.38
정신 건강 문제	낮 음	<i>M</i>	2.03 ^c	2.79	2.42	1.95	1.62 ^b	1.46 ^b
		<i>SD</i>	1.00	1.28	1.24	1.07	0.97	0.91
	중 간	<i>M</i>	2.93 ^b	2.87	2.49	2.11	1.82 ^a	1.74 ^a
		<i>SD</i>	1.03	1.02	1.01	0.94	0.93	0.95
	높 음	<i>M</i>	3.47 ^a	2.89	2.33	2.07	1.77 ^{ab}	1.67 ^a
		<i>SD</i>	1.07	1.15	1.09	1.10	1.00	1.00
		<i>F</i>	136.90***	0.73	2.48	2.58	4.65*	8.91***
신체 건강 문제	낮 음	<i>M</i>	2.22 ^c	2.64 ^b	2.48	1.99	1.53 ^b	1.43 ^b
		<i>SD</i>	1.18	1.31	1.30	1.18	0.95	0.90
	중 간	<i>M</i>	2.88 ^b	2.88 ^a	2.44	2.07	1.79 ^a	1.70 ^a
		<i>SD</i>	1.05	1.04	1.01	0.93	0.91	0.92
	높 음	<i>M</i>	3.41 ^a	2.97 ^a	2.43	2.18	1.90 ^a	1.77 ^a
		<i>SD</i>	1.11	1.14	1.13	1.08	1.11	1.08
		<i>F</i>	68.39***	5.58**	0.11	2.22	9.00***	8.13***
가사의 어려움	낮 음	<i>M</i>	2.13 ^c	2.62 ^b	2.26 ^b	1.84 ^b	1.55 ^b	1.47 ^b
		<i>SD</i>	1.15	1.30	1.22	1.04	0.96	0.94
	중 간	<i>M</i>	2.91 ^b	2.88 ^a	2.47 ^{ab}	2.12 ^a	1.80 ^a	1.70 ^a
		<i>SD</i>	1.02	1.03	1.01	0.95	0.91	0.92
	높 음	<i>M</i>	3.62 ^a	3.04 ^a	2.53 ^a	2.14 ^a	1.89 ^a	1.81 ^a
		<i>SD</i>	1.03	1.12	1.15	1.11	1.12	1.09
		<i>F</i>	117.23***	9.27***	4.61**	8.68***	8.92***	8.51***
일- 생활 균형의 어려움	낮 음	<i>M</i>	2.10 ^c	2.51 ^b	2.34	1.92 ^b	1.59 ^b	1.52 ^b
		<i>SD</i>	1.20	1.31	1.29	1.14	1.05	1.04
	중 간	<i>M</i>	2.84 ^b	2.88 ^a	2.45	2.07 ^{ab}	1.76 ^{ab}	1.67 ^{ab}
		<i>SD</i>	1.03	1.03	1.01	0.93	0.88	0.90
	높 음	<i>M</i>	3.57 ^a	3.02 ^a	2.50	2.23 ^a	1.93 ^a	1.82 ^a
		<i>SD</i>	1.03	1.15	1.13	1.11	1.12	1.09
		<i>F</i>	112.03***	12.56***	1.24	5.49**	7.31**	5.86**
가족 생활	자녀 돌봄	<i>M</i>	2.42 ^c	2.75 ^b	2.58	2.17	2.17	2.21
		<i>SD</i>	1.25	1.26	1.38	1.37	1.44	1.50
	및 간	<i>M</i>	3.05 ^b	2.88 ^{ab}	2.54	2.20	1.82	1.82
		<i>SD</i>	1.01	1.01	1.00	1.00	0.90	1.00
	교육의 어려움	<i>M</i>	3.71 ^a	3.30 ^a	2.64	2.24	2.02	1.91
		<i>SD</i>	0.96	0.99	1.04	1.07	1.08	1.15
		<i>F</i>	26.00***	7.68**	0.43	0.08	2.33	1.52
자녀 이외 가족 돌봄의 어려움	낮 음	<i>M</i>	2.23 ^c	2.58 ^b	2.33	1.87 ^b	1.49 ^b	1.40 ^b
		<i>SD</i>	1.20	1.27	1.23	1.06	0.86	0.85
	중 간	<i>M</i>	2.94 ^b	2.93 ^a	2.49	2.15 ^a	1.84 ^a	1.75 ^a
		<i>SD</i>	0.99	1.00	0.99	0.92	0.92	0.94
	높 음	<i>M</i>	3.72 ^a	3.03 ^a	2.44	2.12 ^a	1.95 ^a	1.80 ^a
		<i>SD</i>	0.90	1.11	1.13	1.15	1.16	1.11
		<i>F</i>	142.39***	16.45***	2.95	10.52***	22.67***	20.08***

주: 낮음 $M-1/2SD$ 미만, 중간 $M-1/2SD$ 이상 - $M+1/2SD$ 미만, 높음 $M+1/2SD$ 이상

* $p < .05$. ** $p < .01$. *** $p < .001$.

(2) 가족관계 어려움

가족관계 어려움 수준별 대처행동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3-43>과 같다. 전반적인 가족관계의 어려움이 높을수록, ‘어렵지만 그냥 참고 지낸다’ ($F = 172.71, p < .001$)와 ‘이웃이나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받는다’ ($F = 3.30, p < .05$)는 응답에 대한 동의 수준이 ‘낮음’ 이나 ‘보통’ 집단과 비교해 유의하게 높았다. ‘주요 언론 매체, 인터넷 포털 사이트, SNS, 동영상, 책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F = 7.17, p < .01$),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는다’ ($F = 15.38, p < .001$), ‘비용을 지불하면서 민간 서비스를 활용한다’ ($F = 17.57, p < .001$) 등의 대처방법에 대한 동의 수준은 가족관계의 어려움이 ‘중간’ 혹은 ‘높음’ 집단이 ‘낮음’ 집단과 비교해 유의하게 높았다.

부부관계 어려움의 경우, 부부관계 어려움이 클수록 ‘어렵지만 그냥 참고 지낸다’ 는 응답이 평균 3.90점으로 다른 집단과 비교해 유의하게 높았다($F = 121.11, p < .001$).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는다’ ($F = 11.37, p < .001$)와 ‘비용을 지불하면서 민간 서비스를 활용한다’ ($F = 10.17, p < .001$)는 대처행동의 경우 부부관계 어려움이 ‘중간’ 집단의 응답 평균이 ‘높음’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웃이나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받는다’ 의 경우 차이 검증은 유의했으나, 사후검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역할 어려움의 경우, ‘어렵지만 그냥 참고 지낸다’ 는 응답만이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역할 어려움이 높을수록, 참고 지낸다는 응답이 평균 3.78점으로 ‘중간’ 이나 ‘낮은’ 집단과 비교해 유의하게 높았다($F = 29.77, p < .001$).

<표 3-43> 가족관계의 어려움별 대처행동 차이 분석

구분		어렵지만 그냥 참고 지낸다	정보를 수집한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받는다	이웃이나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받는다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는다	비용을 지불하면서 민간 서비스를 활용한다
가족 관계의 어려움	낮음	2.17 ^c	2.90 ^b	2.61	2.14 ^b	1.53 ^b	1.37 ^b
		1.09	1.21	1.21	1.13	0.82	0.78
	중간	3.06 ^b	3.13 ^a	2.57	2.29 ^{ab}	1.83 ^a	1.69 ^a
		0.96	0.95	0.95	0.94	0.86	0.89
	높음	3.78 ^a	3.19 ^a	2.49	2.35 ^a	1.89 ^a	1.77 ^a
		0.93	1.10	1.16	1.16	1.02	1.03
		172.71 ^{***}	7.17 ^{**}	0.80	3.30 [*]	15.38 ^{***}	17.57 ^{***}
부부 관계의	낮음	2.16 ^c	3.05	2.64	2.16	1.50 ^b	1.40 ^b
	높음	1.06	1.18	1.19	1.14	0.80	0.82

어려움	중	<i>M</i>	3.03 ^b	3.17	2.56	2.34	1.85 ^a	1.74 ^a
	간	<i>SD</i>	0.96	0.93	0.93	0.93	0.87	0.95
	높	<i>M</i>	3.90 ^a	3.30	2.38	2.15	1.71 ^{ab}	1.53 ^{ab}
	음	<i>SD</i>	0.79	1.04	1.09	1.04	0.90	0.88
		<i>F</i>	121.11 ^{***}	2.39	2.57	3.61 [*]	11.37 ^{***}	10.17 ^{***}
부모 역할의 어려움	낮	<i>M</i>	2.36 ^c	3.23	2.82	2.45	1.68	1.59
	음	<i>SD</i>	1.33	1.02	1.30	1.26	0.89	1.01
	중	<i>M</i>	3.05 ^b	3.18	2.58	2.40	1.89	1.79
	간	<i>SD</i>	0.97	0.97	0.93	0.97	0.93	1.03
	높	<i>M</i>	3.78 ^a	3.21	2.54	2.38	1.95	1.82
	<i>SD</i>	0.87	0.94	1.05	1.11	1.00	1.09	
	<i>F</i>	29.77 ^{***}	0.06	0.70	0.05	0.75	0.44	

주: 낮음 $M-1/2SD$ 미만, 중간 $M-1/2SD$ 이상 - $M+1/2SD$ 미만, 높음 $M+1/2SD$ 이상

* $p < .05$. ** $p < .01$. *** $p < .001$.

2) 가족관계 어려움 수준별 가족서비스 이용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가족관계 어려움인 전반적인 가족관계의 어려움, 부부관계의 어려움, 부모역할의 어려움 정도에 따른 가족서비스 이용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3-44>와 같다. 우선 전반적인 가족관계의 어려움 정도에 따른 가족서비스 이용 장애요인 인식을 살펴보면, 가족관계 어려움이 낮은 집단은 어려움이 높거나 중간인 집단과 비교해 ‘지역사회에서 가족서비스를 받을 만큼 가족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F = 26.31, p < .001$), ‘가족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가족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F = 3.39, p < .05$) 등의 이유로 가족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관계의 어려움이 높은 집단의 경우 ‘가족서비스를 이용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F = 6.30, p < .01$),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시설의 위치가 불편하기 때문에’ ($F = 6.39, p < .01$), ‘가족에게 필요한 가족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F = 6.75, p < .01$), ‘가족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F = 4.87, p < .01$) 등의 이유로 가족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이 유의하게 높았다.

부부관계의 어려움 수준별 가족서비스 이용 장애요인 인식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부부관계의 어려움이 낮은 집단은 어려움이 높거나 중간인 집단과 비교해 ‘지역사회에서 가족서비스를 받을 만큼 가족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4.92, p < .001$). ‘가족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가족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의 경우, 어려움이 낮은 집단일수록 다른 집단과 비교해 유의하게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F = 3.24, p < .05$). 한편, ‘가족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족의 사생활 노출이 걱정되

기 때문에' ($F = 4.52, p < .05$), '가족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부담 때문에' ($F = 3.98, p < .05$)와 '가족서비스를 이용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F = 3.02, p < .05$) 문항의 경우 부부관계의 어려움이 높은 집단이 다른 집단과 비교해 유의하게 동의 수준이 높았다.

부모역할의 어려움 수준별 가족서비스 이용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어려움이 낮은 집단은 어려움이 높거나 중간인 집단과 비교해 '지역사회에서 가족 서비스를 받을 만큼 가족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8.70, p < .001$). 한편, 어려움이 높은 집단의 경우 '가족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부담 때문에' ($F = 3.51, p < .05$)와 '가족에게 필요한 가족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F = 8.63, p < .001$) 문항의 동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표 3-44> 가족관계 어려움 수준별 가족서비스 이용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구분			지역사회에서	가족에서	가족서비스를	가족 관련	가족서비스를	가족에게	가족서비스가		
			가족서비스를 받을 만큼 가족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은 가족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용할 경우 가족의 사생활 노출이 걱정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부담 때문에	이용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공하는 기관이나 시설의 위치가 불편하기 때문에	필요한 가족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가족 관계의 어려움	낮음	M	3.49 ^a	3.67 ^a	3.69	3.57	3.32 ^b	3.13 ^b	3.29 ^b	3.81 ^{ab}	
		SD	1.07	1.00	1.07	1.04	1.09	1.05	1.01	1.13	
	중간	M	3.21 ^b	3.55 ^{ab}	3.64	3.55	3.35 ^b	3.24 ^b	3.32 ^b	3.66 ^b	
		SD	0.93	0.82	0.94	0.90	0.88	0.84	0.81	1.00	
	높음	M	2.85 ^c	3.48 ^b	3.76	3.67	3.60 ^a	3.43 ^a	3.56 ^a	3.86 ^a	
		SD	0.99	0.94	0.97	1.00	0.92	0.91	0.94	0.98	
			F	26.31 ^{***}	3.39 [*]	1.34	1.42	6.30 ^{**}	6.39 ^{**}	6.75 ^{**}	4.87 ^{**}
	부부 관계의 어려움	낮음	M	3.50 ^a	3.73 ^a	3.60 ^b	3.37 ^b	3.17 ^b	3.09	3.26	3.74
SD			1.13	0.87	1.01	1.01	1.04	0.94	0.91	1.08	
중간		M	3.29 ^a	3.58 ^{ab}	3.64 ^b	3.51 ^{ab}	3.28 ^{ab}	3.21	3.33	3.56	
		SD	0.94	0.83	0.92	0.92	0.92	0.84	0.83	1.03	
높음		M	2.87 ^b	3.49 ^b	3.90 ^a	3.69 ^a	3.44 ^a	3.31	3.44	3.74	
		SD	0.94	0.87	0.89	0.95	0.86	0.92	0.88	1.01	
		F	14.92 ^{***}	3.24 [*]	4.52 [*]	3.98 [*]	3.02 [*]	2.31	1.58	2.96	
부모 역할의 어려움		낮음	M	4.00 ^a	3.64	3.50	3.32 ^b	3.36	3.14	3.09 ^b	3.68
	SD		0.98	1.09	1.14	1.00	1.09	1.17	0.92	1.09	
	중간	M	3.27 ^b	3.58	3.74	3.65 ^{ab}	3.42	3.30	3.37 ^{ab}	3.64	
		SD	0.95	0.82	0.88	0.88	0.94	0.84	0.87	1.04	
	높음	M	2.75 ^c	3.49	3.92	3.83 ^a	3.76	3.54	3.73 ^a	4.08	
		SD	1.03	0.82	0.78	0.87	0.90	0.89	0.82	0.89	
			F	18.70 ^{***}	0.55	2.80	3.51 [*]	5.23 ^{**}	3.64 [*]	8.63 ^{***}	6.98 ^{**}

주: 낮음 M-1/2SD 미만, 중간 M-1/2SD 이상 - M+1/2SD 미만, 높음 M+1/2SD 이상

* $p < .05$. ** $p < .01$. *** $p < .001$.

3) 가족 특성별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의 지원 필요성

가족 특성별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3-45>와 같다. 우선 가족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가족생활 행복도 수준별로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가족생활 행복도 수준이 낮은 집단이 중간 및 높은 집단과 비교해 ‘경제적 문제’ ($F = 5.70, p < .01$)와 ‘정신건강 문제’ ($F = 6.74, p < .01$)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높았다. 가족탄력성 수준별 영역별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가족탄력성이 낮은 집단이 다른 집단과 비교해 ‘정신건강 문제’ ($F = 4.92, p < .01$)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높았다.

<표 3-45> 가족 특성별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 지원 필요성

구분		경제적 문제	정신건강 문제	신체건강 문제	가사의 어려움	부부관계의 어려움	부모역할의 어려움	자녀 돌봄 및 교육의 어려움	자녀 이외의 가족돌봄의 어려움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가족 중요도	낮음	M	3.61	3.67	3.58	2.95	2.84	3.19	3.52	3.33	3.27
		SD	1.05	1.09	1.18	1.02	1.03	1.05	1.10	1.10	1.01
	중간	M	3.65	3.66	3.70	2.97	2.90	3.14	3.44	3.35	3.20
		SD	0.91	0.88	0.87	0.92	0.89	0.97	1.09	1.01	0.83
	높음	M	3.64	3.63	3.67	3.03	2.97	3.17	3.45	3.34	3.23
		SD	1.01	1.07	1.04	1.05	1.05	1.08	1.21	1.16	1.07
F		0.05	0.15	0.39	0.53	0.91	0.13	0.12	0.01	0.14	
가족 생활 행복도	낮음	M	4.02 ^a	4.06 ^a	3.98	3.06	3.06	3.31	3.50	3.21	3.37
		SD	1.00	0.92	1.06	1.02	1.09	1.11	1.16	1.16	1.24
	중간	M	3.69 ^b	3.70 ^b	3.69	3.00	2.93	3.19	3.36	3.31	3.22
		SD	0.93	0.93	0.91	0.93	0.96	0.99	1.13	1.04	0.92
	높음	M	3.59 ^b	3.58 ^b	3.65	3.02	2.96	3.15	3.50	3.37	3.22
		SD	1.03	1.09	1.06	1.07	1.05	1.09	1.21	1.17	1.06
F		5.70 ^{**}	6.74 ^{**}	2.81	0.08	0.42	0.79	2.56	0.72	0.52	
가족 탄력성	낮음	M	3.88	4.27 ^a	3.92	3.15	3.23	3.58	3.92	3.69	3.27
		SD	1.24	0.87	1.29	1.05	1.14	1.42	1.20	1.16	1.34
	중간	M	3.67	3.63 ^b	3.67	3.02	2.96	3.17	3.43	3.33	3.23
		SD	0.93	0.98	0.95	0.96	0.96	0.98	1.13	1.07	0.94
	높음	M	3.57	3.63 ^b	3.68	2.98	2.92	3.13	3.47	3.34	3.22
		SD	1.09	1.13	1.11	1.11	1.12	1.17	1.27	1.23	1.13
F		2.45	4.92 ^{**}	0.83	0.58	1.25	2.21	2.36	1.28	0.04	

주: 낮음 $M-1/2SD$ 미만, 중간 $M-1/2SD$ 이상 - $M+1/2SD$ 미만, 높음 $M+1/2SD$ 이상

* $p < .05$. ** $p < .01$. *** $p < .001$.

4) 가족 특성별 가족서비스 이용 의향

가족 특성별 가족서비스 이용 의향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3-46>과 같다. 가족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별 가족서비스 이용 의향 차이는 ‘부부교육’ 과 ‘가족생활·문화프로그램’ 이용 의향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통과 높은 집단이 부부교육 이용 의향이 유의하게 높았으며($F = 9.03, p < .001$), 가족생활·문화프로그램 이용 의향의 경우 가족중요성 인식 수준이 높은 집단의 참여 의향이 중간 및 낮은 집단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F = 12.67, p < .001$).

가족생활 행복도 수준별 가족서비스 참여 의향은 ‘가족생활·문화프로그램’ 에서만 사후검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행복도 수준이 높은 집단이 평균 3.31점으로 가족행복도가 중간 혹은 낮은 집단과 비교해 유의하게 이용 의향이 높았다($F = 7.51, p < .01$). 반면 ‘부부교육’ 과 ‘부모교육’ 은 차이검증에서는 유의했으나, 사후검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가족탄력성 수준별 가족서비스 이용 의향을 살펴보면, ‘부부교육’ ($F = 5.74, p < .01$)과 ‘부모교육’ ($F = 5.15, p < .01$)의 경우 가족탄력성이 높은 집단과 중간 집단이 낮은 집단과 비교해 유의하게 참여 의향이 높았다. ‘아버지교육 등 남성대상 교육’ ($F = 3.36, p < .05$)과 ‘가족생활·문화프로그램’ ($F = 6.40, p < .01$)의 경우 가족탄력성 수준이 높은 집단이 중간이나 낮은 집단과 비교해 유의하게 참여 의향이 높았다.

<표 3-46> 가족 특성별 가족서비스 이용 의향

구분		부부교육	부모교육	아버지교육 등 남성대상 교육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	부부상담, 자녀상담, 이혼전후상 담 등 가족 상담	가족캠프, 가족체험활동, 가족봉사단, 가족사랑의 날 등 가족생활·문화 프로그램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자녀 돌봄 지원	1인가구 지원 서비스		
가족 중요도	낮음	M	2.56 ^b	2.81	2.93	3.42	2.95	3.00 ^{ab}	3.25	4.00	3.82	
		SD	0.99	1.22	1.18	1.17	1.23	1.23	1.30	0.00	1.17	
	중간	M	2.90 ^a	3.05	2.85	3.44	3.09	3.09	2.97 ^b	3.48	3.68	3.77
		SD	1.07	1.12	1.13	1.03	1.08	1.08	1.08	1.09	0.86	1.11
	높음	M	3.08 ^a	3.13	3.02	3.31	3.13	3.13	3.31 ^a	3.47	3.82	3.79
		SD	1.10	1.23	1.18	1.11	1.16	1.16	1.12	1.19	0.96	1.20
F	9.03 ^{***}	2.54	1.38	1.91	0.88	12.67 ^{***}	1.12	0.33	0.03			
가족 생활 행복도	낮음	M	2.94	3.12	3.04	3.58	3.04	2.94 ^b	3.44	4.50	3.96	
		SD	1.16	1.32	1.29	1.05	1.28	1.21	1.23	0.71	1.22	
	중간	M	2.89	2.96	2.97	3.37	3.13	3.10 ^{ab}	3.43	3.76	3.76	
		SD	1.08	1.17	1.11	1.07	1.08	1.06	1.16	0.74	1.08	
	높음	M	3.09	3.19	2.99	3.31	3.11	3.31 ^a	3.49	3.81	3.78	
		SD	1.09	1.22	1.20	1.12	1.18	1.15	1.18	0.99	1.23	
F	6.04 ^{**}	5.92 ^{**}	0.05	1.87	0.16	7.51 ^{**}	0.34	0.59	0.29			
가족 탄력성	낮음	M	2.38 ^b	2.54 ^b	2.40 ^b	3.62	2.73	2.73 ^b	3.12	-	4.30	
		SD	1.24	1.33	1.35	1.13	1.31	1.37	1.42	-	0.95	
	중간	M	3.00 ^a	3.06 ^a	2.94 ^{ab}	3.34	3.13	3.17 ^{ab}	3.45	-	3.72	
		SD	1.06	1.17	1.09	1.05	1.09	1.08	1.14	-	1.12	
	높음	M	3.09 ^a	3.21 ^a	3.09 ^a	3.33	3.11	3.34 ^a	3.52	-	3.87	
		SD	1.14	1.27	1.29	1.20	1.23	1.18	1.23	-	1.25	
F	5.74 ^{**}	5.15 ^{**}	3.36 [*]	0.84	1.58	6.40 ^{**}	1.72	-	1.55			

주: 낮음 M-1/2SD 미만, 중간 M-1/2SD 이상 - M+1/2SD 미만, 높음 M+1/2SD 이상

* $p < .05$. ** $p < .01$. *** $p < .001$.

5) 가족 특성별 가족센터 인지도

가족 특성별 가족센터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3-47>과 같다. 가족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별 가족센터 인지도 차이는 유의했으나, 사후검증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생활 행복도의 경우 가족행복도 수준이 높은 집단과 중간 집단의 인지도가 낮은 집단보다 가족센터 인지도가 유의하게 높았다($F = 9.67, p < .001$). 가족탄력성 수준에 따른 인지도는 가족탄력성이 높은 집단과 중간 집단의 인지도가 낮은 집단보다 인지도가 유의하게 높았다($F = 12.79, p < .001$).

<표 3-47> 가족 특성별 가족센터 인지도 차이

	구분		가족센터
가족중요도	낮음	M	1.73
		SD	0.82
	중간	M	1.79
		SD	0.76
	높음	M	1.89
		SD	0.79
		F	3.02*
가족생활 행복도	낮음	M	1.42 ^b
		SD	0.61
	중간	M	1.84 ^a
		SD	0.77
	높음	M	1.90 ^a
		SD	0.80
		F	9.67***
가족탄력성	낮음	M	1.46 ^b
		SD	0.81
	중간	M	1.81 ^a
		SD	0.75
	높음	M	1.99 ^a
		SD	0.84
		F	12.79***

주: 낮음 $M-1/2SD$ 미만, 중간 $M-1/2SD$ 이상 - $M+1/2SD$ 미만, 높음 $M+1/2SD$ 이상

* $p < .05$. ** $p < .01$. *** $p < .001$.

6) 가족 특성별 가족서비스 요구도

가족 특성별 가족서비스 요구도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3-48>과 같다. 가족중요성 인식 수준별 가족서비스 요구도를 살펴보면, ‘부부교육’ ($F = 9.06, p < .001$)과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F = 16.95, p < .001$)에 대한 요구도는 가족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집단과 중간 집단의 요구도가 낮은 집단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부모교육’ ($F = 9.44, p < .001$), ‘아버지교육’ ($F = 9.86, p < .001$), ‘가족상담’ ($F = 19.07, p < .001$), ‘가족생활·문화프로그램’ ($F = 16.82, p < .001$), ‘긴급위기지원 및 생활 도움 등’ ($F = 4.55, p < .05$), ‘아이돌봄지원’ ($F = 8.63, p < .001$)의 경우 가족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집단의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가족생활 행복도 수준별 서비스 요구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교육’ ($F = 6.11, p < .01$)과 ‘가족생활·문화프로그램’ ($F = 7.57, p < .01$)의 경우 가족행복도 수준이 높은 집단의 요구도가 다른 집단과 비교해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1인가구지원’ ($F = 5.07, p < .01$)과 ‘공동육아나눔터’ ($F = 8.69, p < .001$)에 대한 서비스 요구는 가족생활 행복도가 낮은 집단의 요구도가 다른 집단과 비교해 유의하게 높았다.

가족탄력성 수준별 서비스 요구도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교육’ ($F = 9.93, p < .01$)과 ‘아버지교육’ ($F = 6.04, p < .01$) 요구도의 경우 가족탄력성 수준이 높은 집단의 요구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가족상담’ ($F = 10.94, p < .001$)과 ‘가족생활·문화프로그램’ ($F = 11.74, p < .001$)의 경우 가족탄력성이 높은 집단과 중간수준 집단의 요구도가 낮은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표 3-48> 가족 특성별 가족서비스 요구도 차이

구분		부부교육	부모교육	아버지 교육	가족상담	가족생활 ·문화 프로그램	긴급위기 지원, 생활 도움 등	다문화 가족지원	다양한 가족의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1인 가구 지원	아이돌봄 지원	공동육아 나눔터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가 족 요 구 도	낮 음	M	3.34 ^b	3.61 ^b	3.44 ^b	3.69 ^c	3.33 ^b	4.08 ^b	3.84	3.83	3.77	4.02 ^b	4.00	3.80 ^b
		SD	0.86	1.06	1.08	0.96	0.87	0.86	0.88	0.83	1.07	1.00	0.91	1.03
	중 간	M	3.58 ^a	3.76 ^{ab}	3.68 ^{ab}	3.91 ^b	3.53 ^b	4.22 ^{ab}	3.86	3.81	3.82	4.06 ^{ab}	3.96	4.08 ^a
		SD	0.75	0.81	0.92	0.77	0.82	0.70	0.80	0.78	0.87	0.78	0.75	0.75
높 음	M	3.72 ^a	3.94 ^a	3.85 ^a	4.13 ^a	3.77 ^a	4.31 ^a	3.96	3.94	3.76	4.24 ^a	4.13	4.26 ^a	
	SD	0.80	0.81	0.86	0.75	0.84	0.72	0.84	0.78	0.94	0.75	0.79	0.73	
F		9.06 ^{***}	9.44 ^{***}	9.86 ^{***}	19.07 ^{***}	16.82 ^{***}	4.55 [*]	2.15	4.08 [*]	0.59	8.63 ^{***}	6.27 ^{**}	16.95 ^{***}	
가 족 생 활 행 복 도	낮 음	M	3.77	3.65 ^b	3.77	4.00	3.46 ^b	4.40	3.96	4.00	4.13 ^a	4.33	4.31 ^a	4.17
		SD	0.83	1.10	1.23	1.07	1.04	0.77	0.86	0.82	0.97	0.92	0.92	0.96
	중 간	M	3.61	3.82 ^{ab}	3.77	4.01	3.62 ^{ab}	4.27	3.87	3.85	3.80 ^b	4.12	3.98 ^b	4.14
		SD	0.79	0.83	0.85	0.74	0.77	0.68	0.79	0.73	0.87	0.74	0.76	0.73
높 음	M	3.70	3.94 ^a	3.82	4.10	3.77 ^a	4.28	3.97	3.94	3.73 ^b	4.23	4.14 ^{ab}	4.24	
	SD	0.80	0.81	0.88	0.76	0.87	0.74	0.85	0.81	0.96	0.78	0.79	0.76	
F		2.30	6.11 ^{**}	0.55	2.42	7.57 ^{**}	0.87	2.11	2.25	5.07 ^{**}	4.57 [*]	8.69 ^{***}	2.79	
가 족 탄 력 성	낮 음	M	3.62	3.54 ^b	3.42 ^b	3.69 ^b	3.19 ^b	4.27	3.77	3.77	3.96	4.12	4.04	4.04
		SD	1.06	1.21	1.24	1.26	1.17	0.92	1.21	0.99	1.25	1.03	1.00	1.00
	중 간	M	3.62	3.83 ^{ab}	3.76 ^{ab}	4.02 ^a	3.65 ^a	4.23	3.87	3.86	3.73	4.14	4.03	4.14
		SD	0.78	0.81	0.87	0.74	0.81	0.71	0.82	0.75	0.90	0.74	0.77	0.75
높 음	M	3.77	4.01 ^a	3.89 ^a	4.18 ^a	3.82 ^a	4.37	4.06	4.01	3.85	4.30	4.21	4.33	
	SD	0.81	0.83	0.88	0.77	0.88	0.74	0.83	0.81	0.95	0.81	0.81	0.74	
F		5.85 ^{**}	9.93 ^{***}	6.04 ^{**}	10.94 ^{***}	11.74 ^{***}	5.51 ^{**}	9.04 ^{***}	5.91 ^{**}	3.34 [*]	7.77 ^{***}	7.93 ^{***}	11.05 ^{***}	

주: 낮음 M-1/2SD 미만, 중간 M-1/2SD 이상 - M+1/2SD 미만, 높음 M+1/2SD 이상

* $p < .05$. ** $p < .01$. *** $p < .001$.

7) 소결

이상으로 가족의 주요 특성을 선정하여 그 수준별 대처행동, 가족센터 및 서비스 인지도와 요구도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가족관계와 생활에서의 어려움 수준에 따른 대처행동에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정신건강이나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이 큰 집단보다 중간 집단의 경우에 외부 전문기관 도움을 받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했을 때, 어려움이 큰 집단의 가족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가족관계 어려움 수준에 따라서도 가족서비스 이용에서의 장애요인은 다르게 확인되었다. 어려움이 낮은 집단은 가족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가족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던 반면,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높은 집단은 비용, 시간, 접근성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족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가족중요도 인식이나 가족탄력성 등이 높은 집단은 가족서비스별 요구도도 높게 나타났다. 즉 가족중요도에 대한 인식이나 가족생활행복도, 가족탄력성 향상 등을 목표로 하는 가족서비스 제공은 가족센터 및 서비스 요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가족센터 인지도 조사와 함께 가족센터 및 가족 대상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 및 경험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개인 및 가구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족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태도,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욕구 등을 파악하여 가족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욕구 파악 및 가족센터 인지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응답자들의 가족 대상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어려움 대처방법, 가족 어려움에 대한 공공기관 지원 필요성 인식, 이용 의향, 장애요인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사응답자들은 가족관계나 생활상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기보다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어렵지만 참는 등의 개인적인 대처를 우선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50대 이상, 이혼·사별,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족인 경우에 개인적인 대처의 정도가 더 높았다.

가족센터 및 가족서비스 이용 의향의 경우, 조사응답자들의 62%가 가족센터를 이용할 의향이 있고 특히 자녀돌봄지원, 1인가구 지원, 노부모부양가족지원 등의 서비스에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족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로 가족서비스 미인지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가족사생활 노출 걱정 때문에’, ‘가족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등의 응답 비율도 높았다. 특히 20대의 경우 가족서비스 미인지 정도가 가장 높았고 여성은 가족사생활 노출 걱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응답자들의 가족센터 및 서비스 인지도와 경험, 요구도 등을 살펴본 결과, 가족센터 인지도는 ‘이름만 들어본’ 수준으로 높지 않았다. 가족서비스별 실제 인지도는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가 가장 높았고, 아이돌봄지원, 긴급위기지원 및 생활도움, 가족상담 등의 순서로 확인되었으며, 모든 가족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여성과 6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족서비스 요구도 또한 여성이 남성과 비교해 모든 서비스에서 요구도가 높았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 가족 특성별 가족서비스 인식과 가족센터 및 서비스 인지도, 요구도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족관계와 생활에서의 어려움 수준에 따른 대처행동에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정신건강이나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이 큰 집단보다 중간 집단의 경우에 외부 전문기관 도움을 받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려움이 큰 집

단의 가족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가족관계 어려움 수준에 따라서도 가족서비스 이용에서의 장애요인은 다르게 확인되었다. 어려움이 낮은 집단이 가족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가족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높은 집단은 비용, 시간, 접근성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족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가족중요도 인식이나 가족탄력성 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과 비교해 가족서비스별 요구도도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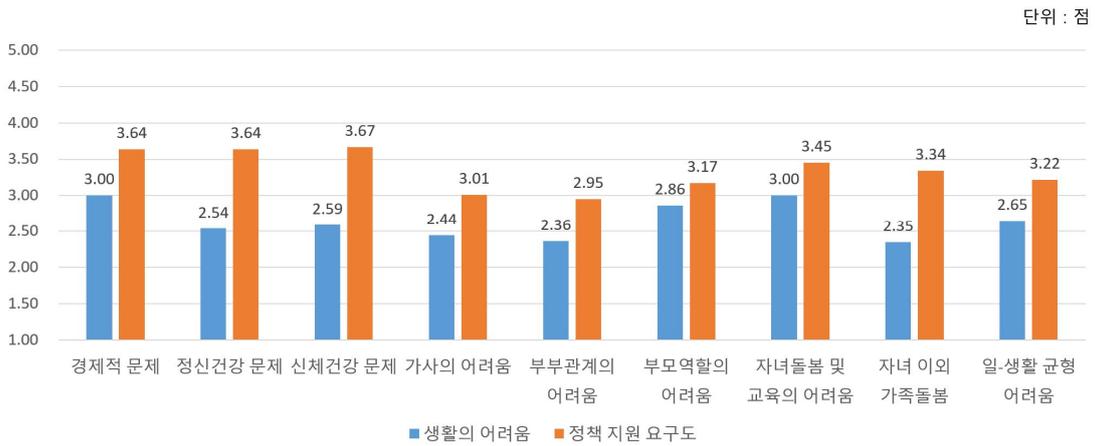
2. 주요 논의

본 연구에서는 주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가족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논의 사항을 ‘가족서비스 및 전달체계에 대한 인식 전환’, ‘가족서비스와 정책 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 ‘가족센터 인지도 및 이용 경험과 이용 의향의 차이 해소’, ‘다양한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가족서비스 제공’ 등으로 정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서비스 및 전달체계에 대한 인식 전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가족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높았다. 본 조사에 참여한 상당수의 응답자들은 지역사회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를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개인적 혹은 소극적 대처를 우선으로 하고 있었다. 이는 조사응답자들이 실제 경험하는 어려움과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가족의 어려움 영역 간의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4-1 참조). 부모역할의 어려움이나 자녀 돌봄 및 교육의 어려움이 다른 영역의 어려움과 비교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이 가족서비스 이용에서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이야기한 ‘가족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와 ‘가족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가족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결과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진아 외(2019)가 제시한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전략의 단계 중 첫 번째인 정보 제공 측면에서, 가족서비스도 지역사회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 가족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의 노력이 이루어질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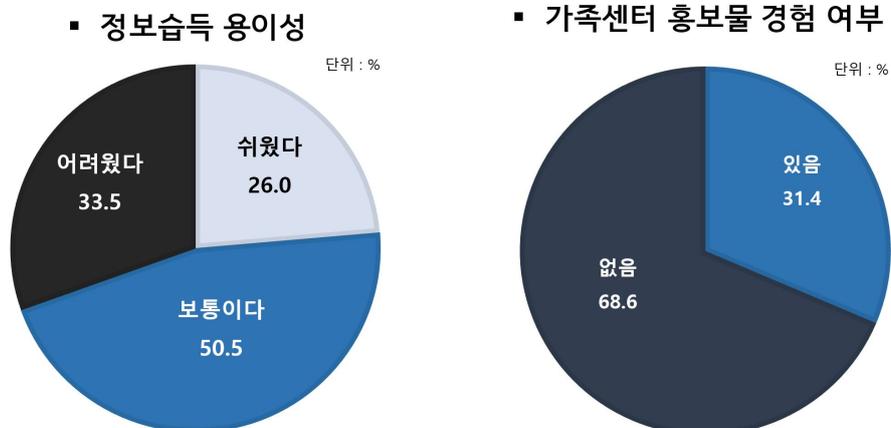
요가 있다.



[그림 4-1] 가족생활의 어려움과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 지원 필요성

2) 가족서비스와 정책 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

본 조사의 응답자의 33.5%는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정책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가족센터 홍보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경험한 사람보다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응답자들이 가족서비스나 정책 관련 정보를 실제로 얻거나 선호하는 방법이 인터넷이나 SNS인 점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족서비스와 정책 관련 정보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이용자의 가족센터 이용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정보 제공과 정보 접근 편의성은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겠다.



[그림 4-2] 가족서비스 정보습득 용이성 및 가족센터 홍보물 경험 여부

3) 가족센터 인지도 및 이용 경험과 이용 의향의 차이 해소

조사 결과 가족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았고 실제 이용 경험 역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가족센터 인지도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향후 가족센터 이용 의향이 약 62%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가족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애주기와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 등을 교차하여 대상별 맞춤형 홍보를 펼침으로써 가족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가족센터 인지도와 실제 이용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그림 4-3] 가족센터 인지도, 이용경험, 이용의향 비교

4) 다양한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가족서비스 제공

본 조사에서는 연령, 성별, 결혼지위, 미성년자녀 유무, 1인가구 여부, 지역 유형이라는 요인을 활용하여 가족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족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요구도를 살펴보았는데 수요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가족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측면인 자녀 양육 가정, 1인가구, 이혼·사별자 등의 특성이 가족서비스의 인지와 요구에 일관되게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욕구가 실제 서비스 경험으로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편 가족중요성에 대한 인식, 가족생활 행복도, 가족탄력성과 같은 가족 특성이 가족서비스 이용 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서비스별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족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지원뿐 아니라 가족관계나 가족건강성 제고를 위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정책적 시사점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센터의 역할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서비스 전달의 첫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가족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은 실정이다. 가족서비스 확산을 위해서는 가족센터 및 가족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실제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주요 논의 사항을 토대로 ‘지역사회의 가족지원 체계에 대한 인식 제고’, ‘가족서비스의 효과성 홍보 강화’,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 전략 마련’, ‘온·오프라인 가족서비스 연계 확대’, ‘고위험 가족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필요’ 등 다섯 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지역의 가족지원 체계에 대한 인식 제고

가족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가족을 지원한다’와 ‘지역사회에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센터와 가족서비스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널리 인식시키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센터는 보편적·예방적 가족서비스와 함께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위기가족 지원 등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러한 가족센터가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센터에 대한 홍보 예산 확대 및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족센터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가족센터 인지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가족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을수록 부모교육 및 부모교육 이용 의향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손서희, 이재림, 2023)를 고려할 때, 가족센터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가족서비스 이용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가족센터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2) 가족서비스의 효과성 홍보 강화

가족센터 및 가족서비스 자체에 대한 홍보와 함께 가족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나 공공기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가족생활(예. 자녀 및 노부모 돌봄, 일생활균형 등)에 대한 높은 지원 필요성 인식과 달리 가족관계(예. 부부관계 및 부모역할)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가족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가족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처전략 중 하나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관계 지원 서비스가 가족의 건강성 및 가족관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가족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 전략 마련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센터 및 가족서비스 홍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센터의 홍보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국민곁에 가족센터” 라는 슬로건 하에 아이돌봄서비스,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전반적인 가족서비스를 함께 소개하는 형태로 가족센터를 홍보하고 있다. 전반적인 가족센터에 대한 홍보와 함께 대상별 특화된 홍보 메시지 개발 및 매체 선정에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담 및 1인가구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20대를 대상으로 한 홍보에서는 개인 및 가족상담과 1인가구지원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가족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가 높은 20-50대를 대상으로 한 가족교육, 가족상담, 자녀돌봄 및 교육, 가족생활·문화프로그램 홍보, 30-50대를 대상으로 할 경우 부양가족지원 서비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즉, 연령대 및 가족 특성별 관심사를 고려하여 홍보 내용을 선정하고, 연령대별 주요 홍보 채널을 달리한 홍보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가족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정보수집 능력이 높은 20-30대의 상황을 고려할 때 괴리가 큰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홍보 내용 및 수단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연령대별 효과적인 맞춤형 홍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센터에 대한 40대 이하의 인지도가 낮으므로 이들이 주로 활용하는 홍보 매체를 선정하여 집중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가족서비스 필요성 인식이나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난 것과 달리, 사생활 보호에 대한 염려나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경우 가족서비스의 필요성 인식이나 참여 의향이 여성과 비교해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여성을 대상으로는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방법과 가족서비스 제공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가족서비스에 대한 높은 욕구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형태의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비밀보장 등 사생활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가 가족서비스에 마련되어 있음에 대한 소개가 홍보에 함께 활용되는 것은 가족들의 사생활보호

에 대한 걱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가족센터가 가족갈등이나 가족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족이 이용하는 기관으로서의 이미지뿐 아니라, 일상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움을 얻는 공간으로서의 가족센터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도 가족센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지역주민에게 열린 공간인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의 활성화는 가족센터의 긍정적 이미지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남성의 경우 가족서비스의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가족서비스의 가치를 알리는 것이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아이돌봄서비스나 서울시 가족학교와 같이 가족센터 서비스만의 고유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도 가족서비스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전국 가족센터에서 다양한 사업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서비스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전국적으로 동일한 가족서비스의 명칭이 활용되고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가족서비스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온·오프라인 가족서비스 연계 확대

가족센터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가족서비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가족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직접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가족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 관련 정보를 찾아본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고려할 때, 가족 문제의 영역별 대처방법 등의 정보를 담은 영상이나 가족생활 갈등 관리 및 의사소통 팁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가족센터 홈페이지 등에 제공함으로써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법’이라는 키워드로 정보를 검색하였을 때, 가족센터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게시된 효과적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족서비스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가족센터에서 제공한 정보가 효과적이라면, 이후 가족센터의 부모교육 서비스 검색 및 참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온라인 콘텐츠 제공 확대는 가족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가족관계 및 부부관계의 어려움이 높은 집단과 20-30대의 경우 ‘가족서비스를 이용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시설의 위치가 불편하기 때문에’, ‘가족에게 필요한 가족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

기 때문에’ 등의 사유를 가족서비스 이용의 장애요인으로 응답하고 있다. 가족센터는 야간 및 주말 서비스 등 오프라인 서비스 확대를 진행 중에 있는데, 시공간 제약 없는 온라인 콘텐츠 제공은 가족서비스 제공 활성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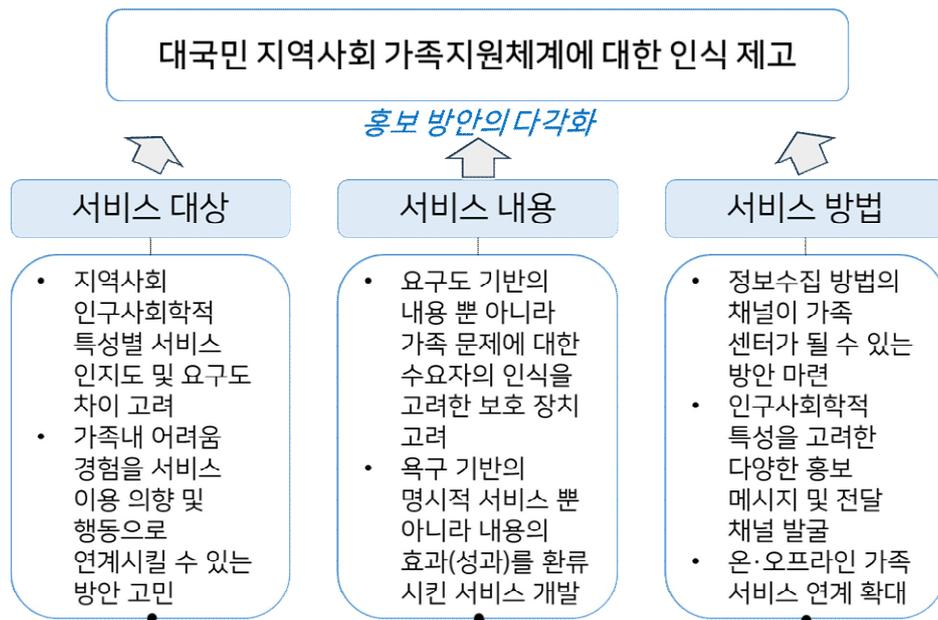
가족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이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서비스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가족서비스 접근성 향상도 오프라인 가족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일차적인 정보 전달을 통해 가족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이후 가족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이후 가족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차원적인 접근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5) 고위험 가족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필요

가족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가족 어려움 수준별 대처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부관계 및 부모역할의 어려움이 클수록 “어렵지만 그냥 참고 지낸다”는 응답이 높았다. 또한 부부관계 어려움이 높은 집단이 중간 집단과 비교해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는다”와 “비용을 지불하면서 민간 서비스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낮았다. 이와 유사하게 가족중요성, 가족생활 행복도,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가족서비스 참여 의향 및 가족서비스 요구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고려할 때, 관계 어려움이 높은 집단일수록 개인적 혹은 소극적 대처 방안을 활용하고 가족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양한 아웃리치 및 관계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가족서비스가 필요한 가족을 발굴하고 가족서비스 참여로 연계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가족 가치 확산 및 가족서비스를 통한 가족건강성 향상은 가족서비스 참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가족서비스 이용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가족센터는 지역사회 가족지원체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방안을 서비스 대상, 내용, 방법적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서비스 대상 차원에서 지역사회 인구 특성별 서비스 인지도 및 요구도의 차이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가족 내 어려움 경험을 가족서비스 의용 의향을 넘어 행동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단계적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 내용 차원에서는 가족의 요구도 및 문제 기반의 내용뿐 아니라 사생활 노출 걱

정과 같은 가족문제에 대한 수요자 인식을 고려한 보호 장치도 동시에 고려하고 가족중요도, 가족행복도, 가족탄력성 등과 같은 가족건강성 향상을 위한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가족들이 정보수집의 대처를 많이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센터가 정보수집 방법의 채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홍보메시지와 전달 채널을 발굴해야 하며 온·오프라인 연계 확대를 통해 가족서비스 접근 방법을 다양하게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4-4] 지역사회 가족지원체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방안 다각화 구조(안)

4. 조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가족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서비스 이용 의향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탐색적 측면에서 가족서비스 이용 의향 관련 요인은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가족서비스에 대한 태도 및 인식 등 가족서비스의 잠재적 이용자와 관련한 다양한 특성을 파악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가족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잠재적 이용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잠재적 이용자의 특성에 기반한 홍보 전략 마련 등 가족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가족서비스는 가족상담, 사례관리 등 가족의 위기 및 갈등 해소를 위한 문제 해결적 서비스에서부터 가족교육, 가족생활문화 프로그램 등 가족관계 및 가족건강성 향상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까지 서비스의 범위가 넓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용하는 가족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가족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법, 가족서비스 이용 장애요인 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가족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과 관련한 후속 연구에서는 예방적 성격을 띤 가족서비스와 문제해결 성격을 띤 가족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구분하여 조사하는 것이 가족서비스 잠재적 이용자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선강, 손서희, 서찬란(2023). 가족다양성을 고려한 가족센터 사업 운영에 대한 연구: 가족센터 실무자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7(2), 19-33.
- 김주미, 유성경(2002).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문화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91-1002.
- 김안나, 최승아(2012).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영향 요인 연구. *보건사회연구*, 32(2), 295-334.
- 김영란, 주재선, 정가원, 배호중, 선보영, 최진희, 김수진, 이진숙(2021). 2020년 가족실태 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 김혜미·허선영(2022). 인천시민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인지도에 대한 연구. *인천학연구*, 37, 215-251.
- 김효주(2009). 건강가정사업 인지 및 프로그램 요구에 관한 연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정윤, 김정은, 송혜림, 진미정(2022). 가족생활 변화에 따른 가족서비스 수요조사 운영방안 기초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손병돈(2014).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 및 이용 결정 요인. *보건사회연구*, 34(4), 354-384.
- 손서희, 이재림(2023). 서울시민의 부부교육 및 부모교육 참여의향 관련 요인 탐색: Andersen과 Newman의 행동모델 활용. *가정과삶의질학회*.
- 여성가족부(2021).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여성가족부(2021). 2021년 가족사업 안내 개정(2021. 10.13 시행)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2022). '모든 가족 곁으로' ... 전국 244개 가족센터 역할 강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541380>
- 여성가족부(2023) 2023년 가족사업안내.
- 윤성은, 홍우정, 손서희, 권영재, 박연진(2022). 2022 가족센터공간활용 프로그램 운영매뉴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이재림, 손서희, 박지수, 박인숙, 신하은, 윤보라(2023). 2023 서울가족보고서. 서울시 가족센터.
- 임효연, 정은수(2017). 지역사회복지관 주민조직화 서비스의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앤더슨 행동모형의 적용을 통해 본 복지의식의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9), 159-172.
- 전진아, 전민경, 김남희, 박재현, 이용주, 윤시몬, 유혜영, 김보은(2019). 수요자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 전략 연구, 세종: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춘애, 이종남, 방한별(2009).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가정 실태 및 가정유형에 따른 서비스 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 거주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3), 225-237.

- 진미정(202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비판적 검토와 가족 정책의 과제. *가족정책연구*, 1(2), 1-13.
- 진미정, 노신애, 소효중(2023).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도와 양육스트레스 및 가족건강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5(3), 113-126.
- 진미정, 유재연(2012). 지리적 근접성이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50(7), 13-20.
- 천재영·최영(2014). 앤더슨 행동모델을 적용한 지역사회 주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요인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9, 307-335.
- 최새은, 김미영, 손서희(2020). 서울시 자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의 통합서비스 이용 경험 연구: 혼합방법론 접근. *가정과삶의질연구*, 38(3), 99-116.
- 홍은숙(2018). 가족탄력성 척도 타당화 연구: 장애아 가족을 대상으로. *특수교육학연구*, 53(2), 1-22.
- McCurdy, K., & Daro, D. (2001). Parent involvement in family support programs: An integrated theory. *Family Relations*, 50(2), 113-121.

4.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떨어져 사는 기혼·미혼 자녀 포함, 입양·재혼 등으로 인한 자녀 포함)

- 1) 있다
- 2) 없다

4-1. [prog: 4=1만 응답] 귀하의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명

귀하의 첫째 자녀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녀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첫 번째 자녀)부터 나이가 적은 자녀 순서대로 응답해주시고, 쌍둥이의 경우에도 각각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4-2. 귀하의 자녀의 만 나이는 몇 세입니까? [숫자입력]

자녀	만 나이
첫째자녀	만___세
둘째자녀	만___세
셋째자녀	만___세

[개인 및 가족 생활 전반]

5. 귀하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6. 지난 한 달(최근 30일) 동안 귀하의 가족생활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1인가구의 경우 현재 가족이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자신의 가족을 고려하여 응답)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매우 행복했다
1	2	3	4	5	6	7	8	9	10

7. [PROG: 3=2만 응답] 귀하와 배우자와의 관계는 지난 한 달(최근 30일) 동안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매우 행복했다
1	2	3	4	5	6	7	8	9	10

8. 귀하는 평소 생활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얼마나 겪으십니까?

항 목	전혀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어렵다	매우 어렵다
경제적 문제(낮은 임금, 불안정한 소득 등)	1	2	3	4	5
정신건강 문제(외로움, 우울 등)	1	2	3	4	5
신체건강 문제(질병 등)	1	2	3	4	5
가사의 어려움(식사준비, 설거지, 청소, 빨래, 장보기 등)	1	2	3	4	5
가족관계의 어려움 (1인가구의 경우 현재 가족이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자신의 가족을 고려하여 응답)	1	2	3	4	5
부부관계의 어려움(부부갈등 등) [PROG: 3=2만 제시]	1	2	3	4	5
부모역할의 어려움(부모-자녀관계 등) [PROG: 4-2=만0-18세 자녀가 있을 경우만 제시]	1	2	3	4	5
자녀 돌봄 및 교육의 어려움 [PROG: 4-2=만0-18세 자녀가 있을 경우만 제시]	1	2	3	4	5
자녀 이외 가족 돌봄(부모 및 형제 등)의 어려움 (1인가구의 경우 현재 가족이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자신의 가족을 고려하여 응답)	1	2	3	4	5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1	2	3	4	5

9-1. 귀하는 평소 가족 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가족관계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1인가구의 경우 현재 가족이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자신의 가족을 고려하여 응답)

항 목	부부갈등, 부모-자녀갈등 등 가족관계 어려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어렵지만 그냥 참고 지낸다	1	2	3	4	5
주요 언론 매체(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포털사이트, SNS, 동영상, 책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1	2	3	4	5
가족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받는다	1	2	3	4	5
이웃이나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받는다	1	2	3	4	5
지역사회 관련 기관(주민자치센터, 가족센터, 복지기관 등)의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는다	1	2	3	4	5
비용을 지불하면서 민간 서비스(시설 상담센터 등)를 활용한다	1	2	3	4	5

9-2. 귀하는 평소 가족 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가족생활의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1인가구의 경우 현재 가족이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자신의 가족을 고려하여 응답)

항 목	자녀/노부모돌봄, 가사노동 등 가족생활의 어려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어렵지만 그냥 참고 지낸다	1	2	3	4	5
주요 언론 매체(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포털사이트, SNS, 동영상, 책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1	2	3	4	5
가족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받는다	1	2	3	4	5
이웃이나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받는다	1	2	3	4	5
지역사회 관련 기관(주민자치센터, 가족센터, 복지기관 등)의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는다	1	2	3	4	5
비용을 지불하면서 민간 서비스(민간서비스 및 돌봄 시설 등)를 활용한다	1	2	3	4	5

10. 귀하의 가족은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최근 3개월 동안 귀하 가족과 가장 가까운 응답을 선택해주시오. (1인가구의 경우 현재 가족이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자신의 가족을 고려하여 응답)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우리 가족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	1	2	3	4	5
우리 가족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1	2	3	4	5
우리 가족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헤쳐나갈 수 있다	1	2	3	4	5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한데 뭉쳐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	1	2	3	4	5
우리 가족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역사회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우리 가족은 서로 얼마나 위하는지를 말로 표현한다	1	2	3	4	5

[가족 대상 서비스에 대한 인식]

11.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일반적으로 가족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 지역사회나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항 목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경제적 문제(낮은 임금, 불안정한 소득 등)	1	2	3	4	5
정신건강 문제(외로움, 우울 등)	1	2	3	4	5
신체건강 문제(질병 등)	1	2	3	4	5
가사의 어려움(식사준비, 설거지, 청소, 빨래, 장보기 등)	1	2	3	4	5
부부관계의 어려움(부부갈등 등)	1	2	3	4	5
부모역할의 어려움(부모-자녀관계 등)	1	2	3	4	5
자녀 돌봄 및 교육의 어려움	1	2	3	4	5
자녀 이외의 가족돌봄(부모 및 형제 등)의 어려움	1	2	3	4	5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1	2	3	4	5

12. 귀하는 다음의 가족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공공기관, 민간기관, 학교 모두 포함)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많이 있다
(예비, 신혼기, 중노년기) 부부교육	1	2	3	4	5
(예비) 부모교육	1	2	3	4	5
아버지교육 등 남성대상 교육 [PROG: SQ1=1만 제시]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	1	2	3	4	5
부부상담, 자녀상담, 이혼전후상담 등 가족상담	1	2	3	4	5
가족캠프, 가족체험활동, 가족봉사단, 가족사랑의 날 등 가족생활·문화 프로그램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1	2	3	4	5
자녀 돌봄 지원(아이돌보미, 공동육아나눔터 등) [PROG: 4-2=만 0-12세 자녀가 있는 경우만 제시]	1	2	3	4	5
1인가구 지원 서비스 [PROG: 1=1만 제시]	1	2	3	4	5

13. 귀하는 다음 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기관	전혀 모른다	이름만 들어보았다	서비스 내용을 대략 알고 있다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가족센터	1	2	3	4
건강가정지원센터	1	2	3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2	3	4
지역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 관 등)	1	2	3	4

14. 귀하는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정책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쉬웠습니까?

- 1) 매우 쉬웠다
- 2) 대체로 쉬웠다
- 3) 보통이다
- 4) 대체로 어려웠다
- 5) 매우 어려웠다
- 6) 서비스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15-1. [PROG: 14=1~5만 응답] 귀하는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정책 관련 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습득하여 이용하고 계십니까? 현재 이용중인 방법을 선택해 주십시오. [2순위 선택 필수]

- 1) TV, 라디오 등 방송
- 2) 지역신문 및 중앙신문
- 3) 시(군)발간물
- 4) 인터넷(포털사이트 등)
- 5)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밴드, 블로그, 유튜브 등)
- 6) 외부광고물
- 7) 공공기관 게시판
- 8) 가족, 친인척 혹은 친구, 동료 등 지인
- 9) 관심 기관 문자 및 메일링서비스(가족서비스 정보) 신청
- 10)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
- 11) 관심 기관 직접 방문 및 전화

15-2. 귀하가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정책 관련 정보를 습득할 때 가장 선호하는 방법을 선택해 주십시오. [2순위 선택 필수]

- 1) TV, 라디오 등 방송
- 2) 지역신문 및 중앙신문
- 3) 시(군)발간물
- 4) 인터넷(포털사이트 등)
- 5)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밴드, 블로그, 유튜브 등)

- 6) 외부광고물
- 7) 공공기관 게시판
- 8) 가족, 친인척 혹은 친구, 동료 등 지인
- 9) 관심 기관 문자 및 메일링서비스(가족서비스 정보) 신청
- 10)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
- 11) 관심 기관 직접 방문 및 전화

16.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가족교육(부모, 부부 교육 등) 및 가족상담 등의 가족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의 장애요인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다
지역사회에서 가족서비스를 받을 만큼 가족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1	2	3	4	5
가족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가족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	2	3	4	5
가족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족의 사생활 노출이 걱정되기 때문에	1	2	3	4	5
가족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부담 때문에	1	2	3	4	5
가족서비스를 이용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1	2	3	4	5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시설의 위치가 불편하기 때문에	1	2	3	4	5
가족에게 필요한 가족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	2	3	4	5
가족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1	2	3	4	5

[가족센터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정책 요구도]

◆ 다음은 가족센터 및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가족서비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 체계인 가족센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가족(다문화가족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 문화 등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라는 명칭으로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에서는 가족교육(부부, 부모 등), 가족상담, 가족돌봄, 다양한가족지원(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1인가구 등), 아이돌봄서비스 등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7. 귀하는 “가족센터”라는 기관 명칭을 들으셨을 때, 서비스의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모두 선택]

- 1)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
- 2) 자녀 양육기 가족

- 3) 자녀 없이 부부로만 구성된 가족
- 4)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5) 다문화가족
- 6)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족
- 7) 맞벌이가족
- 8) 환자나 장애가 있는 구성원이 있는 가족
- 9) 청년1인가구
- 10) 노인 1인가구
- 11) 비혈연가족
- 12) 기타 ()

18. 귀하는 “가족센터”라는 기관 명칭을 들으셨을 때, 가족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모두 선택]

- 1) 부모교육, 아버지 교육, 예비/신혼부부 교육 등 가족교육
- 2) 부부상담, 부모자녀 상담 등 가족상담
- 3) 가족사랑의 날, 가족봉사단, 가족체험활동 등 가족문화 프로그램
- 4)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자녀돌봄지원
- 5) 다문화가족지원사업
- 6)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맞춤형 지원
- 7) 긴급위기지원, 재난상황 가족지원, 생활도움 등 취약위기가족지원
- 8) 가족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정보 제공
- 9) 가족돌봄(노인, 장애인 등) 지원
- 10) 기타(자세히)

19. 귀하는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함)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PROG: 13번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 항목 모두 1(전혀모른다)이 아닌 경우만 19 응답]

19-1. [prog: 19=1만 응답] 가족센터를 이용하셨다면, 지난 1년간 이용 횟수는 몇 회입니까?

- 1) 지난 1년간은 이용하지 않았다
- 2) 일년에 1회
- 3) 일년에 2-6회
- 4) 한달에 1회 이상
- 5) 한달에 2회 이상

20. 귀하는 향후 가족센터를 이용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귀하의 가족서비스 인식과 이용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응답해주시시오.

21-1. 귀하는 지역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가족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책 인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예비, 신혼기, 중노년기) 부부교육	1	2
(예비) 부모교육	1	2
아버지교육	1	2
부부상담, 자녀상담, 이혼 전후 상담 등 가족상담	1	2
가족캠프, 가족체험활동, 가족봉사단, 가족사랑의 날 등 가족생활·문화 프로그램	1	2
긴급위기지원, 생활 도움 등	1	2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다문화부부 및 자녀 지원, 한국어교육, 취업지원, 방문서비스, 중도입국자녀지원 등)	1	2
다양한 가족의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등)	1	2
1인가구 지원 서비스	1	2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1	2
공동육아나눔터(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놀이공간 및 놀이활동 지원, 육아정보 공유,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등)	1	2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1	2

21-2. 귀하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서비스가 가족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 필요성	전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예비, 신혼기, 중노년기) 부부교육	1	2	3	4	5
(예비) 부모교육	1	2	3	4	5
아버지교육	1	2	3	4	5
부부상담, 자녀상담, 이혼 전후 상담 등 가족상담	1	2	3	4	5
가족캠프, 가족체험활동, 가족봉사단, 가족사랑의 날 등 가족생활·문화 프로그램	1	2	3	4	5
긴급위기지원, 생활 도움 등	1	2	3	4	5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다문화부부 및 자녀 지원, 한국어교육, 취업지원, 방문서비스, 중도입국자녀지원 등)	1	2	3	4	5
다양한 가족의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등)	1	2	3	4	5
1인가구 지원 서비스	1	2	3	4	5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1	2	3	4	5
공동육아나눔터(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놀이공간 및 놀이활동 지원, 육아정보 공유,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등)	1	2	3	4	5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1	2	3	4	5

21-3A. [PROG: 21-1=1인 항목만 제시] 귀하는 지역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본적 있습니까?

정책 이용	있다	없다
(예비, 신혼기, 중노년기) 부부교육	1	2
(예비) 부모교육	1	2
아버지교육 [prog: SQ1=1만 제시]	1	2
부부상담, 자녀상담, 이혼 전후 상담 등 가족상담	1	2
가족캠프, 가족체험활동, 가족봉사단, 가족사랑의 날 등 가족생활·문화 프로그램	1	2
긴급위기지원, 생활 도움 등	1	2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다문화부부 및 자녀 지원, 한국어교육, 취업지원, 방문서비스, 중도입국자녀지원 등)	1	2
다양한 가족의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등)	1	2
1인가구 지원 서비스 [prog: 1=1인경우에만 제시]	1	2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prog: 4-2=만0-12세 자녀가 있는 경우만 제시]	1	2
공동육아나눔터(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놀이공간 및 놀이활동 지원, 육아정보 공유,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등) [prog: 4-2=만0-12세 자녀가 있는 경우만 제시]	1	2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1	2

21-3B. [PROG:21-3A=1인 항목만 제시] 이용 경험이 있다면, 어느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으셨습니까?

정책 이용	가족센터 (구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함)	타기관 (복지관 등)	가족센터 및 타기관 (복지관 등)
(예비, 신혼기, 중노년기) 부부교육	1	2	3
(예비) 부모교육	1	2	3
아버지교육	1	2	3
부부상담, 자녀상담, 이혼 전후 상담 등 가족상담	1	2	3
가족캠프, 가족체험활동, 가족봉사단, 가족사랑의 날 등 가족생활·문화 프로그램	1	2	3
긴급위기지원, 생활 도움 등	1	2	3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다문화부부 및 자녀 지원, 한국어교육, 취업지원, 방문서비스, 중도입국자녀지원 등)	1	2	3
다양한 가족의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등)	1	2	3

1인가구 지원 서비스	1	2	3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1	2	3
공동육아나눔터(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놀이공간 및 놀이활동 지원, 육아정보 공유,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등)	1	2	3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1	2	3

21-4. [PROG: 21-3A=1인 항목만 제시] 이용하신 서비스의 만족 정도를 응답해주시시오.

정책 만족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예비, 신혼기, 중노년기) 부부교육	1	2	3	4	5
(예비) 부모교육	1	2	3	4	5
아버지교육	1	2	3	4	5
부부상담, 자녀상담, 이혼 전후 상담 등 가족상담	1	2	3	4	5
가족캠프, 가족체험활동, 가족봉사단, 가족사랑의 날 등 가족생활 문화 프로그램	1	2	3	4	5
긴급위기지원, 생활 도움 등	1	2	3	4	5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다문화부부 및 자녀 지원, 한국어교육, 취업지원, 방문서비스, 중도입국자녀지원 등)	1	2	3	4	5
다양한 가족의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맞벌이 가족, 한부모가족 등)	1	2	3	4	5
1인가구 지원 서비스	1	2	3	4	5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1	2	3	4	5
공동육아나눔터(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놀이공간 및 놀이활동 지원, 육아정보 공유,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등)	1	2	3	4	5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1	2	3	4	5

22. 귀하가 부모교육, 부부/커플교육 등의 가족교육을 받는다면, 귀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중 어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호하십니까?

공공기관(가족센터 등)	민간기관(사설 개인 교육 기관)	둘 다 상관 없음
1	2	3

22-1. [PROG: 22=1, 2만 응답] 귀하가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별 1개 선택]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서비스 내용이 더 좋을 것 같아서	1	2	3	4	5
비용이 저렴할 것 같아서	1	2	3	4	5

서비스를 받은 후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서	1	2	3	4	5
원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	2	3	4	5
사전에 기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1	2	3	4	5
찾아가기가 쉬울 것 같아서	1	2	3	4	5

23. 귀하가 부부상담, 부모-자녀관계 상담 등의 가족상담을 받는다면, 귀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중 어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호하십니까? [1개 선택]

공공기관(가족센터 등)	민간기관(사설 개인 상담 기관)	둘 다 상관 없음
1	2	3

23-1. [PROG: 23=1, 2만 응답] 귀하가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별 1개 선택]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서비스 내용이 더 좋을 것 같아서	1	2	3	4	5
비용이 저렴할 것 같아서	1	2	3	4	5
서비스를 받은 후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서	1	2	3	4	5
원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	2	3	4	5
사전에 기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1	2	3	4	5
찾아가기가 쉬울 것 같아서	1	2	3	4	5

24. 귀하는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홍보물(버스 및 지하철, TV 광고, 브로슈어,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홍보 등)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PROG: 13번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 항목 모두 1(전혀모른다)이 아닌 경우만 24번 응답]

25. 귀하는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 1) 친구, 친척, 동료 등 지인을 통해
- 2) 가족센터 현판,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책자 등 오프라인 홍보물을 통해
- 3) 라디오, TV 등 방송을 통해
- 4)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등)를 통해
- 5)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카페, 밴드, 블로그 등)
- 6) 공공기관(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 9) 지역소식지

10) 기타(자세히)

[PROG: 13번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 항목 모두 1(전혀모른다)이 아닌 경우만 25번 응답]

26. [PROG: 19=1만 응답] 귀하가 현재의 가족센터를 선택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높은 서비스 질
- 2) 다양한 프로그램
- 3) 이동시간 및 거리(집 또는 직장에서 가깝다)의 편의성
- 4) 기관 시설, 규모 및 환경에 대한 만족
- 5) 좋은 주변 평판
- 6) 높은 종사자의 자질
- 7) 기타(자세히)

27. [PROG: 19=1만 응답] 다음은 가족센터 이용과 관련한 문항입니다. 본인이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족센터를 기준으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가족센터의 소통활동(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 참여자 모집 등)은 지역 주민에게 잘 전달되고 있다	1	2	3	4	5
가족센터가 제공하는 정보가 유용하다	1	2	3	4	5
가족센터 이용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쉽다	1	2	3	4	5
가족센터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할 것이다	1	2	3	4	5
서비스 이용을 통해 가족센터의 다른 서비스에도 관심이 생겼다	1	2	3	4	5
서비스 이용을 통해 가족센터에 신뢰가 생겼다	1	2	3	4	5
가족센터는 충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가족센터의 이용 환경과 시설은 이용하기 편리하다(지리적 근접성 포함)	1	2	3	4	5
가족센터 내 직원 또는 이용자와 나는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가족센터의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다	1	2	3	4	5

[응답자 특성]

28.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개 선택]

- 0) 학교를 안 다녔음
- 1) 초등학교
- 2) 중학교
- 3) 고등학교
- 4) 대학교 (2-3년제)
- 5) 대학교 (4년제 이상)
- 6) 대학원 이상(재학, 수료, 중퇴, 졸업 포함)

29.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전반적으로)는 어디에 속합니까? [1개 선택]

하-하층	하-상층	중-하층	중-상층	상-하층	상-상층
1	2	3	4	5	6

30. 귀하는 지난 1주일 동안 돈을 받고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 ※ 부업, 아르바이트 등 수입이 있는 일을 1시간 이상 한 경우, '일하였다'에 해당
- ※ 군복무 중이면 '일을 하지 않았다'로 응답, 직업군인이면 '일하였다'로 응답 [1개 선택]
- 1) 일하였다
- 2) 일을 하지 않았다

31. [PROG: 3=2만 응답] 귀하의 배우자는 지난 1주일 동안 돈을 받고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 ※ 부업, 아르바이트 등 수입이 있는 일을 1시간 이상 한 경우, '일하였다'에 해당
- ※ ※ 군복무 중이면 '일을 하지 않았다'로 응답, 직업군인이면 '일하였다'로 응답 [1개 선택]
- 1) 일하였다
- 2) 일을 하지 않았다

32. 지난 1년(최근 12개월) 동안 귀하와 함께 사는 가족 전체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세금 공제 이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 등의 합계)

(1인가구의 경우, 1인가구의 소득으로 응답) [1개 선택]

- 1) 100만원 미만
- 2) 100만원~200만원 미만
- 3) 200만원~300만원 미만
- 4) 300만원~400만원 미만
- 5) 400만원~500만원 미만
- 6) 500만원~600만원 미만

- 17) 600만원~700만원 미만
- 8) 700만원~800만원 미만
- 9) 800만원~900만원 미만
- 10) 900만원~1,000만원 미만
- 11) 1,000만원~1,100만원 미만
- 12) 1,100만원~1,200만원 미만
- 13) 1,200만원~1,300만원 미만
- 14) 1,300만원~1,400만원 미만
- 15) 1,400만원~1,500만원 미만
- 16) 1,500만원~1,600만원 미만
- 17) 1,600만원~1,700만원 미만
- 18) 1,700만원~1,800만원 미만
- 19) 1,800만원~1,900만원 미만
- 20) 1,900만원 이상

2023년 가족센터 인지도 조사

발간등록번호 | 2023-KIHF-251

발행일 | 2023년 12월

발행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기획 | 가족서비스전문성향상본부 가족위기지원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전화 | 02-3479-7754

팩스 | 02-3479-7788

홈페이지 | www.kihf.or.kr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발췌하거나 무단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